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음화
실현 양상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朴智淑

2021年 2月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음화 실현 양상 연구

指導教授 裴 泳 煥

朴 智 淑

이 論文을 國語國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0年 12月

朴智淑의 國語國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_____ (인)

委 員_____ (인)

委 員_____ (인)

濟州大學校 大學院

2020年 12月

A study on the Actualization Phase of Glottalization of Vietnamese Korean Learners

Ji-Sook Pak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Hwan Ba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2020.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
.....
.....
.....
.....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 초록	VI
I. 서론	1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2. 선행 연구 검토	3
3.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1
II. 이론적 배경	14
1.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 대조	14
1.1.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자음체계	14
1.2.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절구조	15
2. 한국어의 경음화	17
III. 연구 설계 및 방법	31
1. 자유 발화	31
1.1. 실험 대상	31
1.2. 실험 방법	32
2. 낭독 실험과 인지 실험	34
2.1. 실험 대상	34
2.2. 실험 방법	35
2.2.1. 낭독 실험 방법	35
2.2.2. 인지 실험 방법	38
IV. 경음화 실현 양상 및 결과 분석	40
1. 자유 발화	40
2. 낭독 실험	58
3. 인지 실험	73
4. 결과에 대한 분석	85

V. 결론	91
참고문헌	95
부록	99
Abstract	106

그림 차례

<그림 1> 경음화 유형별 실현 빈도율	40
<그림 2> 경음화 유형별 오류율	41
<그림 3> 평과열음 뒤 경음화 환경별 오류율	44
<그림 4> 평과열음 자음군 뒤 경음화 환경별 오류율	48
<그림 5> 용언 어간 말 비음 뒤 경음화 환경별 오류율	50
<그림 6> 한자어 ‘ㄹ’ 뒤 경음화 환경별 오류율	52
<그림 7> 관형형 어미 ‘ㄹ’ 뒤 경음화 환경별 오류율	54
<그림 8> 사이시옷 경음화 환경별 오류율	57
<그림 9> 낭독 실험 유형별 오류율	58
<그림 10> 인지 실험 유형별 오류율	74
<그림 11> 평과열음 뒤 경음화 인지 실현율	77
<그림 12> 평과열음 자음군 뒤 경음화 인지 실현율	78
<그림 13> 용언 어간 말 비음 뒤 경음화 인지 실현율	79
<그림 14> 한자어 ‘ㄹ’ 뒤 경음화 인지 실현율	81
<그림 15> 관형형 어미 ‘ㄹ’ 뒤 경음화 인지 실현율	82
<그림 16> 사이시옷 경음화 인지 실현율	84
<그림 17> 자유 발화, 낭독, 인지 실험 경음화 오류율	85
<그림 18> 자유 발화, 낭독, 인지 실험 유형별 오류율	86

표 차례

<표 1>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자음 체계	14
<표 2>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절 구조	16
<표 3> 경음화 유형 및 예시	29
<표 4> 자유 발화 조사 대상자 정보	32
<표 5> 자유 발화 조사 주제	33
<표 6> 낭독 및 인지 실험 피실험자 정보	35
<표 7> 경음화 실험 어휘 목록	36
<표 8> 낭독 실험 문장 예시	37
<표 9> 인지 실험 문장 예시	38
<표 10> 평파열음 뒤 경음화 실현 양상과 실현 빈도	44
<표 11> 평파열음 자음군 뒤 경음화 실현 양상과 실현 빈도	47
<표 12> 용언 어간 말 비음 뒤 경음화 실현 양상과 실현 빈도	49
<표 13> 한자어 ‘ㄹ’ 뒤 경음화 실현 양상과 실현 빈도	51
<표 14> 관형형 어미 ‘ㄹ’ 뒤 경음화 실현 양상과 실현 빈도	53
<표 15> 사이시옷 경음화 실현 양상과 실현 빈도	55
<표 16> 학습자별 경음화 낭독 실현율	60
<표 17> 평파열음 뒤 경음화 실현 양상	61
<표 18> 평파열음 뒤 경음화 오류 양상	63
<표 19> 평파열음 자음군 뒤 경음화 실현 양상	63
<표 20> 평파열음 자음군 뒤 경음화 오류 양상	65
<표 21> 용언 어간 말 비음 뒤 경음화 실현 양상	65
<표 22> 용언 어간 말 비음 뒤 경음화 오류 양상	67
<표 23> 한자어 ‘ㄹ’ 뒤 경음화 실현 양상	68
<표 24> 한자어 ‘ㄹ’ 뒤 경음화 오류 양상	69
<표 25> 관형형 어미 ‘ㄹ’ 뒤 경음화 실현 양상	69
<표 26> 관형형 어미 ‘ㄹ’ 뒤 경음화 오류 양상	71
<표 27> 사이시옷 경음화 실현 양상	72
<표 28> 사이시옷 경음화 오류 양상	73
<표 29> 학습자별 경음화 인지 실현율	75
<표 30> 평파열음 뒤 경음화 인지 오류 양상	77

<표 31> 평파열음 자음군 뒤 경음화 인지 오류 양상	78
<표 32> 용언 어간 말 비음 뒤 경음화 인지 오류 양상	80
<표 33> 한자어 ‘ㄹ’ 뒤 경음화 인지 오류 양상	81
<표 34> 관형형 어미 ‘ㄹ’ 뒤 경음화 인지 오류 양상	82
<표 35> 사이시옷 경음화 인지 오류 양상	84
<표 36> 유형별 자유 발화, 낭독, 인지 오류율 순서	87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경음화 현상을 모든 유형별 각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하여 실현하는지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실험 목록으로 구성된 낭독 실험과 인지 실험 외에도 자유 발화 조사를 실시하여 실생활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오류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 대상은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기관 정규 교육 과정 6급에서 학습 중인 베트남인 학습자이다. 먼저 자유 발화 조사는 두 명의 베트남인 학습자를 매주 한 시간씩 총 10차례에 걸쳐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전사하여 자료를 만들었다. 그리고 낭독 실험과 인지 실험을 위해 세분화된 유형별 환경으로 구성된 실험 문장을 제작하여 학습자 2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행하였다. 세 실험의 자료를 가지고 경음화의 각 유형별 실현율과 오류율을 도출하고 각 환경별 오류 유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먼저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인지 실험의 오류율이 38%, 낭독 실험은 20%, 자유 발화에서는 6.7%의 오류율을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경음화 실현에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유 발화의 경우에는 개인의 학습 능력과 수준에 맞춰 어휘를 선택하여 대화를 구성해서 발화하였기 때문에 오류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각 실험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 전체에서 베트남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합성어 사이시옷 환경의 경음화와 어간 말 ‘ㄴ, ㄹ’의 어휘수가 많지 않아 학습이나 생활 속에서 노출 기회가 적은 용언 어간 말 비음 뒤 경음화로 나타났다. 둘째, 평과열음 뒤 경음화와 같이 비교적 쉬운 규칙의 유형이라도 환경별 경음화 실현에 차이가 있어 세부적인 환경에서의 교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했다. 셋째, 평과열음 자음군 뒤의 경음화 오류는 대부분 자음군 발음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자음군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넷째, 관형형 어미 ‘ㄴ’ 뒤 경음화는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할 수’의 경우 100% 실현을 함으로써 난이도가 높은 규칙이라도 사용 빈도가 높으면 오류가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세 가지 실험에 나타난 학습자들의 주된 오류 유형은 베트남어의 간섭으로 인한 철

자법대로 음절별로 끊어서 발음하는 오류가 가장 많았고 선행 음절의 종성을 탈락하여 경음화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와 경음을 격음으로 대치하여 발음하는 등의 오류를 각 유형에서 골고루 발견할 수 있다. 여섯째, 유형별 각 환경에서의 오류를 비교해 봄으로써 계획된 문장을 읽은 낭독 실험에서보다 학습자가 스스로 구성하여 산출한 자유 발화가 인지 실험의 결과를 더 잘 설명해주는 객관적인 조사임을 알 수 있었다.

I.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의 음운현상 중의 하나인 경음화 현상의 실현 양상을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에 한국어 경음화를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각각의 유형을 어떻게 인지하고 발화하는지를 자유 발화와 낭독 실험, 인지 실험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세 가지의 실험을 통해 먼저 각 유형에서의 실현율과 오류율을 살펴봄으로써 학습자들이 어떤 유형에서 경음화 실현을 어려워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 실현 양상과 오류 양상을 분석하여 학습자들의 발음 특성을 찾고 오류의 원인을 밝혀내는 데에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학습자들의 경음화 교수·학습에서 학습자들의 오류를 방지하고 발음 특성에 맞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경음화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는 3만 7426명으로 한국 대학의 전체 유학생 수 16만 165명의 23.4%에 해당한다.¹⁾ 지난 10년 동안 베트남인 학습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최근 2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학습자 수가 중국인 유학생 다음으로 많은 상황이다. 이처럼 베트남인 유학생들이 주요 한국어 학습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교육적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학습할 때 모국어와 목표어인 한국어의 언어적 차이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한국어

1) 교육부 홈페이지 www.moe.go.kr의 교육 통계 자료를 참고하였다.

국가	중국	베트남	우즈벡	몽골	일본	미국
2017	68,184	14,614	2,716	5,384	3,828	2,767
비율(%)	55.1%	11.8%	2.2%	4.3%	3.1%	2.2%
2018	68,537	27,061	5,496	6,768	3,977	2,746
비율(%)	48.2%	19%	3.9%	4.8%	2.8%	1.9%
2019	71,067	37,426	7,492	7,381	4,392	2,915
비율(%)	44.4%	23.4%	4.7%	4.6%	2.7%	1.8%

의 발음에서 어려움을 겪는다.²⁾ 학습자에게 한국어 발음은 자음, 모음, 억양 등을 학습하는 것 이외에도 음운 변동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음절과 음절의 경계에서 음운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한국어에 비하여 베트남어는 음운 변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음운 현상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³⁾ 그중에서도 경음화 현상은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음운 현상 규칙을 이해하고 낭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발음 중의 하나이다. 김영선(2004:2)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발음 가운데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경음이라고 하였고 경음화 오류의 원인을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이나 음절 구조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희숙(2008:160)에서는 발음 오류의 원인이 한국어의 고유한 언어적 특징에서 기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경음화 현상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국어의 간섭이 특히 심한 발음 교육에서 모국어 가 아닌 목표어 자체에서 기인하는 오류 발생을 지적한 것으로 그만큼 한국어 경음화는 복잡하다.

먼저 경음화는 한국어에서 실현 빈도가 가장 높은 음운 현상⁴⁾으로 그 실현되는 환경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한 음운 규칙이 여러 환경에서 실현 된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각 환경에서의 규칙을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을 의미한다. 또 경음화는 유형에 따라 예외가 있는 것이 많아서 모국어 사용자도 어려워할 수 있는 음운 현상이다. 예를 들어 ‘물고기’와 ‘불고기’의 경우에 선행 종성과 후행 초성이 ‘ㄱ’으로 음운론적 연쇄를 이루지만 전자는 [물꼬기]로 경음화가 실현되며 후자는 [불고기]로 경음화 현상이 실현되지 않는 복잡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들의 모국어 간섭이나 경음화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한 여러 이유에서 경음화를 어려워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2) 임소정(2019:39)에서 베트남인 설문 참여자 94%는 발음의 중요성을 크다고 답하여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발음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김정연(2018:2)에서는 베트남어는 음소들이 본래 음가대로 발음되므로 한국어와 같은 음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음운 현상을 어려워 할 것이고 특히 한국의 음운현상은 규칙이 매우 복잡하여 이를 내재화하여 발화하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4) 이상역(1990)에서는 규칙들이 언어의 음변화 과정에 동원되는 빈도수를 알아보는 조사에서 음운 현상 중에는 경음화가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김형복(2004:17)에서는 한국어 기초 어휘에서 많이 나타나는 음운 변동은 된소리되기→거센소리되기→콧소리되기의 순이라고 밝히고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어휘가 많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된소리되기 음운규칙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수 있다. 이는 경음화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음화 교육의 중요성과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경음화 연구는 많지 않다.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한 경음화 연구는 김영선(2004)의 논의가 유일하다. 이 외에 신정애(2005)와 도옥루이엔(2015), 김정연(2018), 임소정(2019) 등에서 자음과 모음, 그리고 전체 음운 현상을 통해 베트남인 화자의 발음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도 음운 현상의 하나로 경음화를 다루고 있으며 경음화의 일부 유형만을 논의하고 있어서 모든 환경에서의 경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보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경음화 전반에 걸친 유형과 기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베트남인 학습자가 각 유형에서의 규칙을 얼마나 잘 인지하고 실현하는지를 자유 발화와 낭독, 인지 실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경음화 실현 환경을 밝히고 오류의 양상과 그 원인을 밝힘으로써 베트남인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경음화 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 연구 검토

선행 연구는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경음화 교육 연구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음운현상을 고찰한 연구를 살펴보고 이어서 자유 발화를 이용한 연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한국어 교육 분야의 경음화 연구로 경음화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인 박고영(2010), 강희숙(2008)과 경음화 실현 양상을 고찰한 김영선(2004), 우금혜(2010), 배영환(2017), 정광미(2018), 왕신(2018), 이한결(2017) 그리고 세부적인 경음화 유형을 살펴본 노순주(2014), 부가준·배영환(2020)의 연구가 있다.

박고영(2010)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경음화 학습 내용에서 경음화 유형별 교육 내용으로 장애음 뒤 경음화, 용언 어간말 비음 뒤 경음화, 관형형

어미 ‘(으)ㄹ’ 뒤 경음화를 선정하고 학습자별 교육 순서를 제시하였다. 경음화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교재 분석에서부터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경음화 유형 선정과 난이도와 빈도를 기준으로 한 교육 순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이전의 연구에서 경음화 내용의 선정과 제시 순서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에 주목하여 난이도를 위한 오류율 조사와 말뭉치를 이용한 빈도수 측정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난이도와 빈도를 기준으로 교육에 필요한 경음화 유형을 선정하고 제시하였지만 그 적용 기준과 순서가 세밀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강희숙(2008)은 한국어 경음화 실현 양상에 대한 사회 언어학적 분석을 위하여 표준발음법 23항에서 28항을 중심으로 경음화의 복잡성과 각각 다른 환경에서의 실현 여부와 예외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학습자들이 경음화의 다양한 규칙을 학습하고 제대로 적용하여 발음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경음화 유형은 관형형 어미 ‘(으)ㄹ’ 뒤의 체언을 1음절과 2음절로 나누어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실시하였는데 7가지 유형 모두 매우 낮은 경음화 실현율이 나타났다. 특히 발화 실험에서는 관형형 어미 ‘(으)ㄹ’ 뒤의 자립 명사, 어간 말 비음, 사이시옷 개재 의 경우 경음화 실현율이 낮았다.

김영선(2004), 우금훤(2008)은 효과적인 경음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기 경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학습자의 경음화 오류 양상을 살펴본 결과 두 연구 모두에서 학습자들이 경음화를 잘 인식하지 못했고 평음 경음, 격음에 대한 변별력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도 경음화 유형별 오류 분석이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형별 지도 방안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연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김영선(2004)은 설문조사에서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발음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응답한 항목이 경음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정확한 발음을 위해 경음화에 대한 올바른 인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자는 경음화 유형을 음절말 단함소리 ‘ㅂ, ㄷ, ㄱ’ 뒤 경음화와 용언 어간말 비음 ‘ㄴ, ㄹ’ 뒤 경음화, 그리고 어절경계에서의 경음화와 어휘부 경음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실험 결과의 오류를 네 가지로 유형화 시킨 후 오류의 원인은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이나 음절구조의 차이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과는 박정태(2018)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

났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초급 학습자에 국한된 결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과 한자어 경음화를 함께 살펴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김영선(2004)과 같이 학습자의 경음화 실현 양상과 오류를 살펴본 연구로 배영환(2017)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경음화 유형에 따른 학습자들의 오류를 음운론적 환경별로 분석하여 김영선(2004)과는 차이가 있다. 학습자들은 평파열음 뒤> 어간말 자음군> 용언 어간말 비음>관형형 어미 >한자어>사이시옷 순으로 경음화를 습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의 경우 초급에서도 일반적으로 잘 실현하였으며 학습자의 수준이 올라간다고 하여도 경음화 실현율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학습자들이 한자어나 사이시옷과 같은 형태소 내부의 경음화를 형태소 경계의 경음화보다 더 어려워하여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왕신(2018), 정광미(2018)는 중국인 학습자가 경음화 규칙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인데 연구 대상인 경음화 유형에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결과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왕신(2018)에서는 경음화 유형을 표준발음법23항~28항과 12항의 7가지로 분류하였다. 경음화 습득테스트와 낭독실험, 인지실험의 결과 습득테스트에서의 오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낭독 실험에서는 합성어 사이시옷의 경음화, 관형형어미 ‘(으)ㄴ’ 뒤에서의 경음화가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정광미(2018)에서는 사용빈도가 높고 예외가 적고, 다른 음운규칙과 함께 적용되지 않는 경음화 유형을 중심으로 발음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때 한자어 경음화와 합성어 경음화는 배제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자들은 단어 내에서는 용언 어간말 홀받침 뒤의 경음화를 어려워하였고 단어 경계에서는 관형형어미 ‘(으)ㄴ’ 뒤에서의 경음화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결(2017)은 규칙의 실현 환경과 규칙의 유효성⁵⁾에 따라 한국어의 경음화와 비음화 규칙의 실현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그 오류 원인을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는 피 실험자를 국적별로 선정하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오류의

5) 이한결(2017:21)에서는 유효성의 개념 중 ‘어떤 것이 더해졌다’는 것과 관련된 ‘복잡성’에 주목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규칙 하나만 단독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무표적, 두 가지 이상의 규칙을 동시에 적용해야 하는 경우를 유효적인 규칙으로 분류하였다.

원인이 모국어에 의한 간접인지를 알 수 없다는 점과 개별 인터뷰가 3명의 학습자에 한해서만 실시가 되어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오류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경음화 실현율은 용언의 활용 환경, 체언·조사 결합 환경, 단어 내부 환경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힘으로서 규칙의 실현 환경의 차이에 따른 실현 양상에 대해 살펴 본 연구로서 이전의 연구와 차별되었다.

노순주(2014), 부가준·배영환(2020)은 각각 장애음 뒤의 경음화와 합성어에서의 경음화를 다룬 연구로 경음화의 여러 실현 환경 가운데 하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들이다. 노순주(2014)에서는 장애음 뒤의 경음화 중 어미가 결합한 형태에서의 경음화 실현 양상과 조사가 결합한 형태에서의 경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어미 결합형과 조사 결합형에서 학습자들의 경음화 실현율이 낮았는데 이는 음운론적 원인이라기보다는 사용빈도 및 난이도와 관련한 학습자의 익숙함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또 자료수집 방법과 관련하여 문장을 읽게 하는 것 방식보다 학습자의 실제적인 상황에서 경음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가준·배영환(2020)에서는 합성어 경음화를 특정 형태소에서 일어나는 경음화와 의미 관계에 따른 경음화로 나누고 83개의 조사 목록을 만들어 학습자에게 읽게 하였다. 여기서는 자립성이 높은 단어를 그대로 발음하거나 과잉일반화로 경음화를 실현한 오류 유형도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연구자는 이것을 유추로 인한 오류로 판단했다. 합성어에서의 오류는 학습자들이 합성어를 구성하는 한자어나 고유어 형태소간의 긴밀도와 개별 형태소의 자립성에 유무에 따라 오류의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는 특정 형태소에 따른 합성어의 경음화 실현 양상을 밝히고 있지만 다른 의미적 관계나 환경별로 나타나는 경음화의 구체적인 실현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들은 외국인 학습자들의 교육적 필요에 목적을 두고 경음화 현상의 일부만을 다루었다. 다시 말해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자어 경음화와 합성어 사이시옷에서의 경음화가 대부분의 실험 연구에서 배제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발음교육에서 경음화 연구를 살펴보겠다.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발음 교육은 발음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와 개별 음소에 대한 연구, 음운변동에 대한 연구들이 일반

적이다. 특히 음운변동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자음과 함께 전체 음운현상을 다루고 있으며 한국어 개별 음운현상 규칙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베트남인 학습자의 경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어의 자음과 음운현상을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에서 경음화와 관련된 논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신정애(2005), 강정희(2009), 도옥 루이엔(2015), 이해정(2015), 윤셋별(2018), 김정연(2018), 임소정(2019)이 있다.

신정애(2005), 강정희(2009)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체계와 음절구조, 음운변동 대조를 통해서 오류를 예측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가 서로 상이한 음운체계에 의해서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또 경음의 인지율과 생성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삼지적 대립 관계⁶⁾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두 연구는 모두 학습자들이 자음 ‘ㅅ’의 발음에서 오류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로 학습자들은 자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제대로 발음했다고 했다. ‘ㅅ’의 생성율이 높은 것에 대해 강정희(2009)에서는 베트남어에 한국어 마찰음/ㅅ/에 대응하는 /s/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자음을 어떻게 인식하여 베트남어 자음으로 대응하는지와 한국어의 음운체계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것이 다른 연구와 구별된다. 신정애(2005)에서는 음운현상의 오류는 모국어의 간섭이 있지만 초급보다 중급에서의 오류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볼 때 교육을 통해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 경음화 평가 항목이 6문항으로 매우 적고 실험 결과에서도 음운현상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해정(2015)은 한국어 숙달도와 거주기간에 따른 베트남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습득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음 뒤, 어간말 비음 뒤, 관형형어미 ‘-(으)ㄴ’ 뒤에서 나타나는 경음화를 조사하였는데 연구 결과, 경음화 실현과 숙달도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거주 기간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전체 음운현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므로 경음화 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은 많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윤셋별(2018)에서는

6) 한국어의 자음 중에 파열음과 파찰음 계열은 평음(ㄱ, ㄷ, ㅂ, ㅈ), 경음(ㄱ', ㄷ', ㅂ', ㅈ'), 격음(ㅋ, ㅌ, ㅍ, ㅊ)의 세 갈래의 대립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음소를 형성하는 삼중체계를 이룬다.

한국어 발음 습득과 관련하여 베트남 학습자의 출신 지역과 학습 기간이 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는데 북부와 중부의 출신지역의 차이는 크게 관련이 없었으며 학습기간이 주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정(2015)과 윤셋별(2018)에서는 베트남 학습자들이 유음 ‘ㄹ’과 마찰음 ‘ㅅ, ㅆ’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운현상에서는 비교 항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경음화의 오류율이 음운현상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정애(2005)와 허용(2012)과 일치하는 것으로 음운현상 습득 난이도에서 연음과 경음화의 난이도가 높지는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연구 외에 베트남 남부 방언을 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어서 함께 살펴보았다. 도 옥 루이엔(2015)에서는 베트남 방언의 차이에 따라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음 오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남부 방언을 쓰는 학습자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여 언어 간 오류와 언어 내 오류를 설명했다. 이 연구에서는 종성 위치에서의 오류유형 중 ‘ㄹ’을 ‘ㄴ’이나 ‘ㅇ’으로 대체, 또는 탈락시키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한국어를 베트남어의 방식으로 음절별로 발음하는 예가 가장 많았다고 보고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음운규칙에서 경음화의 오류가 연음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앞선 논의들과 비교된다.

김정연(2018)과 임소정(2019)은 음운현상만을 다룬 발음 연구로 이상에서 살펴본 논의들이 자모의 발음과 음운현상을 함께 다룬 것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각 음운환경의 구체적 오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정연(2018)에서는 경음화의 유형을 필수적 경음화와 수의적 경음화⁷⁾로 나눈 뒤 사이시옷을 배제한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오류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필수적 경음화와 수의적 경음화에서의 오류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자들은 필수적 경음화에서 종성자음이 ‘ㄷ’ 일 때의 경음화를 어려워 하였고 겹받침의 경음화는 오류율이 낮았다. 또 경음화 문장 실현을 살펴보는 낭독 실험은 77.7%, 경음화 규칙 인식률은 6.4%로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이러한 실험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학습자가 인식을 잘 못하더라도 발음을 할 때에는 자

7) 필수적 경음화란 필수적이고 자동적인 규칙 현상으로 장애음이 연속될 경우 반드시 뒤 자음이 경음으로 발음 된다는 것이며 수의적 경음화란 유성음 다음에 평음이 경음으로 발음되는 것을 말하며 불규칙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연스럽게 경음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미 한국어 맞춤법에 익숙한 학습자들에게 ‘소리가 나는 대로’ 쓰는 규칙 인식 실험의 표기에 따른 학습자들의 오류가 실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임소정(2019)에서는 음운규칙의 오류 분석 연구에서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무의미한 단어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이미 학습한 어휘나 용언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어휘는 실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따라 합성명사 및 파생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음운현상들과 관형형 어미, 용언 어간말 등에서 적용되는 음운현상이 실험에서 제외되어 경음화의 여러 유형별 오류를 살펴볼 수 없었다. 연구 결과 베트남인 학습자의 음운변동 중에서 경음화가 가장 낮은 오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자는 이것이 대부분의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음소배열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베트남인 학습자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연구 방법으로 실시된 자유 발화를 이용한 발음 연구로 백경미(2018), 김태경(2018), 김경희(2019), 배영환·김성란(2019)를 살펴 보겠다.

백경미(2018)와 김태경(2018)은 자유 발화를 통한 자음 발음 오류 연구이다. 백경미(2018)는 중국인 중급·고급 학습자 100명을 대상으로 두 명씩 30분 동안 자유 발화를 실시하여 어두 초성, 어중 초성, 어말 종성에 나타난 자음 대치 오류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음운 환경에 따른 오류는 어중 초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중급뿐만 아니라 고급에서도 자음 대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숙달도에 맞게 지속적인 발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경(2018)에서는 선행연구의 단어나 문장 읽기를 통한 산출 실험은 예상치 못한 발화자의 양상을 놓칠 수 있으므로 총체적인 발음 양상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베트남인 결혼이주여성 26명을 대상으로 하여금 자유 발화를 통한 오류 양상을 확인하였다. 또 연구자는 자유 발화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특성상 음운 환경 및 그에 따른 발화 분량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언급하였다. 김경희(2019)와 배영환·김성란(2019)는 구술 발화⁸⁾를 통한 중국인

8) 박경래(2007:77~78)에서는 구술 발화와 자연 발화가 모두 입으로 소리를 내어 산출된 음의 연쇄 체라는 점에서 같다. 차이점이 있다면 구술 발화는 제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자의 질문이나 요

학습자의 발음 오류 양상 연구이다.

김경희(2019)는 한국어교육학적 측면에서 ‘구술 발화’를 처음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술 발화 조사 방식을 이용한 연구는 선행 연구들과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비슷한 결과가 나왔지만 오류 예와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발견되어 구술 발화 조사 방식이 한국어 연구에 충분히 적용 가능함을 밝혔다. 배영환·김성란(2019)에서는 한국어를 배운지 5년이 된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구술 발화를 통해 중성 발음 오류 양상을 살펴보았다. 오류의 양상은 중성의 자음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여, 목표어인 한국어의 ㄱ, ㄷ, ㄹ, ㅂ은 대체로 ‘누락’의 양상을 보이고 ㅁ, ㄴ, ㅇ에 대해서는 ‘대치’와 ‘첨가’의 양상이 두드러졌다. 연구자는 이를 모국어인 중국어의 음절 구조에 기인한 간섭으로 설명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베트남인 학습자의 경음화 실현 양상을 탐구한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선행 연구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경음화 연구와 베트남인 학습자의 전체 음운현상을 다룬 발음 연구에서 경음화 연구를 중심으로 한 논의를 검토해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연구 과제를 정리해 보면 첫째, 기존의 연구는 베트남인 학습자의 발음에서 자음과 음운현상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개별적인 음운현상에서 각 유형별 실현과 오류를 분석하고 오류의 원인을 찾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기존의 연구는 외국인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칙적이고 음운론적인 환경에서의 경음화만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좀 더 유창하게 발음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형에서 완벽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한국어 경음화의 모든 유형을 대상으로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 오류 유형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적합한 실험 도구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음운현상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인지 실험과 낭독 실험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인지 실험에서 발음을 소리 나는 대로 쓰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매우 낮은 인지율을 보였

구에 응답하는 상황에서 발화하는 것이라면 자유 발화는 관찰자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찰자 이외의 사람에게 발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는데 학습자들의 표기에 대한 부담이 인지 실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인지 실험, 낭독 실험 외에도 실제적인 대화 상황에서의 발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좀 더 정확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복잡한 원인과 기제를 갖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한국어 경음화를 자유 발화, 낭독실험, 인지 실험의 방식으로 측정하려고 한다. 기존 연구에서 실시한 인지 실험, 낭독 실험과 함께 실제 대화에서의 구어를 통한 경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봄으로서 좀 더 실제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방법

이 절에서는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것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 절에서 논의할 것은 연구 대상인 경음화와 연구 실험 도구인 자유 발화에 대한 중요성이다.

먼저 그동안 경음화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예외가 없고 음운론적 조건만으로 가능한 필수적인 경음화만을 연구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경음화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볼 수 없었다. 경음화 연구의 목적이 효과적인 경음화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라고 할 때,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학습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학습 대상에서 배제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예외가 많고 수의적인 경음화라고 해도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구사하면서 그 발화 환경을 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음운규칙 적용이 어려워 개별 어휘로 학습을 한다고 해도 학습은 이루어져야 하고 정확한 발화로 완성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실제 발화 상황에서 한국어의 경음화 현상을 어떻게 발화하는지를 언어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즉 국어학적 경음화를 유형별로 나누어 각 환경에서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좀 더 실제적인 상황에서 베트남인 학습자의 경음화 실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자유 발화를 통해 살펴볼 것이며 자유 발화에서 모든 유형의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보완하여 낭독을 통한 산출 실험과 인지 실험

험을 함께 진행할 것이다. 노순주(2014)⁹⁾와 도옥 루이엔(2015)¹⁰⁾에서의 학습자 발화 실현과 오류를 살펴보면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한국어 발화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가 실제 생활에서와 같은 환경에서 한국어를 발화하도록 하면 더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자유 발화를 통한 질적 연구¹¹⁾와 낭독 실험을 통한 양적 연구¹²⁾를 모두 사용한 혼합적 접근을 시도하려고 한다. John W. Creswell(2011:243)에서도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절차를 모두 사용한 혼합 연구의 활용은 연구의 문제점을 보다 광범위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연구자의 목적에 맞추어 의도된 대로 제작된 실험을 통해서 경음화 유형별로 각 환경에서의 실현과 학습자들의 오류를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질적 연구인 자유 발화를 통한 조사에서는 학습자들이 성공적인 발화를 위해 사용하는 중간 언어와 개인적 습관 등의 발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밝힌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에서의 경음화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발음 연구에서 경음화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연구 방법과 대상에 대해 지적하고 연구 절차를 설명한다.

2장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을 대조하여 학습자의 모국어의 영향으로 목표어인 한국어 발화에 미칠 수 있는 오류를 예측해 본다. 그리고 한국어의 음운 현상 중의 하나인 경음화의 규칙과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본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 본 경음화의 유형별 실현을 고찰하기 위하여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다. 실험은 세 가지로 진행된다. 먼저 자유 발화는 2명의 학습자를 매주 한 시간씩 만나 10차에 걸친 녹음을 통해 수집한다. 낭독 실험은 베트남인 학습자 20명을 대상으로 경음화 문장을 읽도록 하고

9) 노순주(2014:57)는 장애음 뒤 경음화의 실현에 대한 연구에서 실제 대화에서의 구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면 더욱 실제적이고 진정성 있는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0) 도옥 루이엔(2015:96)에서는 오류를 분석할 때,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한국어 발화 상황이 되어야 보다 객관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여 학습자에게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였다.

11) 질적 연구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로서 연구 상황을 조작, 통제, 변환시키지 않고 연구 결과에 대해 미리 정해두지 않는다. 박동숙(2019:3)

12) John W. Creswell(2011:117)에서 양적 연구는 조사연구와 실험 연구 설계에 중점을 두고 통제된 최소한의 변인으로 줄임으로써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측정이나 관찰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녹음한다. 인지 실험은 학습자가 경음화 목록의 문장을 읽어보고 어휘의 바른 발음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베트남 학습자의 자유 발화 전사 자료와 경음화 문장의 낭독 전사 자료, 그리고 인지 실험 자료를 각각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환경에서의 실현율과 오류율을 살펴본다. 자유 발화에서와 낭독 실험, 인지 실험에서의 경음화 실현 양상을 비교하여 오류의 원인과 특성을 찾아본다.

5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다.

음	베트남		m[m]				n[n]				nh[n]		ng, ngh [ŋ]		
유음	한국						ɾ[r(l)]								
음	베트남						l[l]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자음체계를 비교해보면 한국어는 파열음과 파찰음에서 평음과 경음, 격음의 삼지적 대립을 이루고 있는데 비하여 베트남어는 파열음과 마찰음에서 무성음과 유성음이 상호 대립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치조 파열음의 경우에는 삼지적 대립을 이룬다. 따라서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발음에서 평음, 경음, 격음의 발음을 혼동하여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¹⁴⁾

또 한국어에만 있고 베트남어에는 없어서¹⁵⁾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은 먼저 한국어의 경구개 파찰음 ‘ㄷ, ㅌ, ㅊ’이다. 베트남어에는 한국의 파찰음에 해당하는 조음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학습자들이 ‘ㄷ, ㅌ, ㅊ’을 인지하여 낭독해내는 것을 어려워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의 치조 마찰음인 ‘ㅅ, ㅆ’에 대응하는 베트남어에는 ‘x’ 하나뿐이어서 베트남어에 존재하지 않는 ‘ㅅ’의 발음을 어려워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라 평음과 경음, 격음의 관계를 인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절 구조 대조

한국어의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지고 베트남어의 음절은 전체적으로 성조를 수반하여 초성, 중성, 종성, 활음, 성조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와 베트남어에는 초성과 종성에 자음이 오고 중성에 모음이 올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음절 구성이 복잡한 베트남어와의 차이로 인해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오류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2>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절 구조 이다.

14) 강정희(2011:129)에서는 한국어 자음체계에 삼지적 대립 관계가 있고 베트남어는 무성·유성의 대립 관계가 있어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평음, 경음, 격음을 어려워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실험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김소현(2013:61~62)에서는 베트남 학습자들이 ‘ㅅ’을 어려워하여 평음을 경음으로 비슷하게 발음하였으며 경음 ‘ㅌ’의 경우에도 평음 ‘ㄷ’과 격음 ‘ㅊ’을 더 어려워한다고 하였다.

15) 도옥 루이엔(2015:34)에서는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음소들에 양순음 /p, p', p^h/, 치조음 /t, s', r/, 경구개음 /ʃ, ʃ', ʃ^h/, 연구개음 /k', k^h/ 있다고 하였다.

<표2>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절 구조¹⁶⁾

한국어		베트남어	
초성	자음18개	초성	자음21개
중성	단모음10개 이중모음11개	성조	활음 활음1개
종성	자음7개	6	중성 단모음 11개 이중모음 3개
		개	종성 자음8개 반모음2개

먼저 <표2>를 보면 한국어에는 초성에 ‘ㅇ’을 제외한 18개의 자음이 올 수 있고 베트남어는 ‘p’를 제외한 21개의 자음이 초성에 올 수 있는 것이 다르다. 둘째, 한국어는 중성에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올 수 있는데 베트남어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구성 된 중성 앞에 활음이 올 수 있다. 셋째, 종성 위치에 한국어는 7개의 자음만 올 수 있는데 베트남어는 자음 8개 이외에 2개의 반모음이 올 수 있는 것이 다르다. 넷째, 종성에서 한국어는 표기로 두 자음이 오는 자음군의 경우에 한 자음만을 선택하여 발음하는데 베트남어는 두 자음을 초성에서와 같이 음소별로 나타난다. 따라서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모국의 간섭으로 인하여 성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많은 수의 이중 모음도 학습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종성에서는 자음군의 발음을 어려워 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또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절 종성에 오는 자음을 비교해볼 때 도옥 루이엔(2015:57)에서는 ‘p, m, t, n, ŋ, k’ 6개의 자음이 한국어와 베트남어에 공통으로 올 수 있고 이외에도 베트남어에는 ‘c, ɲ’이 있으나 한국어에는 없고, 한국어에는 ‘ㄱ’이 있으나 베트남어에는 없다고 하였다. 베트남어에도 유음 ‘l’이 있으나 ‘l’은 종성에서 나타나지 않고 초성에서만 나오는 자음이기 때문이다. 이에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종성 ‘ㄱ’을 발음할 때 탈락을 시키거나 같은 조음 위치의 ‘ㄴ’으로 대체하여 발음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음절의 발음에서 오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한국어는 음절과 음절이 결합할 때 선행 음절과 후행 음절을 하나의 음절로 발음한다. 즉 선행

16) 도옥 루이엔(2015)에서 제시한 음절구조를 참고하였다.

음절의 종성이 자음이고 후행 음절이 모음일 때는 선행 음절의 종성을 후행 음절에 초성으로 연음하여 발음하고 선행 음절의 종성과 후행 음절의 초성이 자음일 때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대체되거나 탈락하거나 첨가되는 등의 다양한 음운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베트남어는 모든 음절이 독립적으로 음절간의 경계가 뚜렷하여 음절별로 발음되기 때문에 음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발화할 때 음운 현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모국어의 간섭이 나타난다면 음절별로 발음하는 오류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한국어의 경음화

경음화는 평음이 경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장애음 다음에 오는 평음이 경음으로 바뀌거나 유성음 다음에 오는 무성음이 경음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 즉 경음화는 앞 음절 종성에 놓인 자음의 일정한 환경에서 후행 음절의 초성에 놓인 자음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경음화는 일어나는 일정한 환경에서도 여러 조건에 따라 예외가 있고 복잡하여 한국어에는 다양한 유형의 경음화가 발생한다.

오정란(2004:94)에서는 경음화를 결합 음운의 종류에 따라 규칙적 경음화와 불규칙적 경음화로 나누고 있다. 규칙적 경음화는 선행 음절의 종성이 장애음일 때 후행 초성 장애음이 무조건 경음화하는 현상이고, 불규칙 경음화는 선행 음절의 종성이 공명성 자음일 경우 후행 초성 장애음이 경음화 되거나 예외를 나타내는 다양성을 보이는 현상이다. 허용·김선정(2006:263)에서도 경음화를 음운 환경의 면에서 분류하여 필수적인 현상과 수의적인 현상으로 나누었다. 경음화는 음운론적 조건 현상이 충족될 때 자동적이고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필수적 경음화와 음운론적 조건 이외에도 형태론적 조건이 요구되고 어느 정도 규칙적이긴 하지만 많은 예외로 인해 예측이 불가능한 수의적 경음화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어의 경음화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적 측면에서 설명이 비교적 용이한 필수적 경음화와 수의적 경음화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효과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배영환2017:350).

한국어 경음화 규정과 유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많은 연구에서 현행 표준어 규정 제2부에 포함되어 있는 표준발음법 제23항~제28항을 제시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진호(2014)에서는 용언 어간말 비음 뒤의 경음화와 자음군 ‘ㄴ’ 뒤에서의 경음화를 하나의 유형으로 다루고 있는 표준발음법 24항에 대해 이견을 보인다.¹⁷⁾ 먼저 표준발음법 24항을 살펴보면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의 경음화에서 ‘ㄴ’, ‘ㄹ’이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ㄴ’과 ‘ㄹ’이 되므로 ‘ㄴ, ㄹ’의 경음화와 ‘ㄴ, ㄹ’의 경음화를 하나의 유형으로 묶은 듯하다. 그러나 이진호(2014:178)는 경음화를 일으키는 비음은 용언 어간의 끝에 와야 한다는 조건을 상기할 때 ‘ㄴ’의 ‘ㄴ’은 어간의 마지막에 오지 않으므로 경음화를 일으킬 수 없다고 하였다. 또 지역 방언의 예를 살펴보면 그 현상들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준어에서 ‘안-’, ‘삼-’과 같이 어간 뒤에서 경음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지역 방언에서는 대개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한편 ‘앉-, 었-’뒤에서는 언제나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ㄴ’뒤에서의 경음화가 ‘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이진호2014:179). 오히려 ‘ㄴ’뒤에서의 경음화는 어간의 마지막 자음이 평파열음화하여 ‘ㄷ’으로 바뀌고 어미의 초성을 경음화를 시킨 후에 자음군 단순화로 탈락하게 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준발음법 제25항에 “어간 받침 ‘ㄹ, ㄹ’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 한다” 도 위 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자음군의 발음 ‘ㄷ, ㄷ’이 ‘ㄷ, ㄷ’으로 평파열음화 되고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가 일어난 후에 자음군 단순화로 ‘ㄷ, ㄷ’이 탈락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이에 본 연구는 배주채(2003)과 이진호(2014)를 참고하여 한국의 경음화 현상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그 유형에 따라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7) 구분관 외(2015:72)에서도 ‘읽고, 활다’를 제시하며 겹받침 중 후행하는 자음에 의해 경음화가 일어난 경우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하기에 앞서 경음화가 적용된 것으로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와 관련된다고 보았다.

(1)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¹⁸⁾

평파열음인 ‘ㄴ, ㄷ, ㄱ’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이다. 즉,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는 선행하는 음절의 종성 ‘ㄱ, ㄷ, ㄴ’ 다음에 후행하는 음절의 초성으로 ‘ㄱ, ㄷ, ㄴ, ㅅ, ㅈ’가 오는 경우에 국한한다. 음절 구조 제약에 따르면 자음 중에 종성에 올 수 있는 것은 7개뿐이어서 7개 자음 이외에 자음이 종성에 올 때는 7개 중의 하나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ㄱ, ㅋ’은 ‘ㄱ’으로, ‘ㅅ, ㅆ, ㅈ, ㅊ, ㅌ, ㅎ’은 ‘ㄷ’으로, ‘ㅍ’은 ‘ㄴ’으로 바뀌어 종성에 오는 평파열음은 ‘ㄱ, ㄷ, ㄴ’ 세 개뿐이다. 평파열음 뒤의 환경에서는 무조건 예외 없이 경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필수적 경음화이다.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는 국어의 음절 배열 제약과 관계가 깊다. 음절 배열 제약이란 음절과 음절이 만나는 위치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 특히 선행 음절의 종성 자음과 후행 음절의 초성 자음의 배열에 대한 제약이다 (이진호 2014:145).

국어의 음절 배열 제약:

㉞ 선행 음절의 종성에 놓인 자음은 후행 음절의 초성에 오는 자음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클 수 없다.

㉟ 자음의 음운론적 강도:

유음 < 비음 < 장애음 (평음 < 경음, 격음)

음절 배열 제약에 의하면 음절의 종성과 초성에 장애음이 연속으로 오는 경우에는 앞 음절의 자음보다 뒤 음절의 자음의 강도가 반드시 커야하며 그러기 위해서 앞 음절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뒤 음절이 강도가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필수적 경음화는 ‘장애음이 연속으로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뒤 음절의 자음이 앞 음절의 자음보다 강도가 커야한다(허용·김선정 2006:265).’는 음절 배열 제약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18) 표준발음법의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ㄱ), ㄷ(ㅅ, ㅆ, ㅈ, ㅊ, ㅌ, ㅎ), ㄴ(ㅍ, ㅂ, ㅃ,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ㄴ,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가 여기에 해당된다.

- 가) 잡고→[잡꼬], 믿지→[믿찌]
- 나) 국밥→[국뺨], 입구→[입꾸]
- 다) 약부터→[약뿌터], 밥도→[밥또]
- 라) 직업 고르기¹⁹⁾→[지겍꼬르기], 목소리→[목쏘리]

위의 제시된 예들은 모두 음절 말에 평파열음인 ‘ㄷ, ㄸ, ㄱ’이 있는 조건에서 후행하는 음절의 초성 ‘ㄱ, ㄸ, ㅂ, ㅅ, ㅈ’가 경음화 되는 예이다. 예들 가운데 (1-가)는 어간과 어미의 결합이고 (1-나)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며 (1-다)는 체언과 조사의 결합, (1-라)는 단어와 단어의 결합으로 모두 경음화가 일어난다. 이로써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에서는 음운론적인 조건만 갖추면 형태론적인 환경에서는 상관없이 반드시 경음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라) 옷장[온짱], 덥지[뎡찌,] 깎고[깍꼬], 부엌도[부억또]
- 마) 읊고[읍꼬], 읽고[일꼬], 앉고[안꼬]
- 바) 짧다[짤따], 핥고[할꼬]

위의 제시된 예에서 (1-라)는 ‘옷장’→‘온장’→‘온짱’과 같이 선행 음절의 마지막 자음이 평파열음화를 이루고 다시 경음화를 이룬 것이다. (1-마)와 (1-바)는 어간 말 자음군의 경음화의 예이다. 즉, 모두 자음군 중 후행하는 자음이 평파열음 이기 때문에 경음화가 일어나고 이어서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탈락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읽고’는 [일꼬]로 발음되어 받침 ‘ㄱ’이 뒤에 오는 후행 음절의 초성을 경음화 시킬 수 없는데도 경음화가 일어났다. 이것은 ‘읽-’의 ‘ㄱ’ 뒤에 있는 ‘ㄱ’이 평파열음이기 때문에 경음화가 일어났고 후에 ‘ㄱ’은 자음군 단순화로 인해 탈락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바)의 예는 표준발음법 25항 “어간 받침 ‘ㄷ, ㄸ’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ㄸ, ㅂ,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에 해당한다. 받침 ‘ㄷ, ㄸ’은 ‘뺨다[뺨따]’, ‘넓둥글다[넙뚱글다]’, ‘넓죽하다[넙쭈카다]’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발음에서 [ㄷ]

19) 단어와 단어의 경계에서는 개인 기식의 차이에 따라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가 없는 경우에는 단어와 단어의 결합으로 경음화가 일어난다.

로 소리가 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받침 ‘ㄹ’이 뒤에 오는 어미의 초성을 경음화 시킬 수 없지만 ‘짧다[짤따], 활고[할꼬]’의 경우는 항상 경음으로 발음한다. 이것은 ‘활고’의 경우에도 말음 ‘ㄹ’이 ‘ㄷ’으로 평파열음화 되고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가 일어난 후에 자음군단순화로 ‘ㄷ’이 탈락해서 [할꼬]로 발음되므로 어간 말 자음군의 경우와 함께 다른 것이다.

활고	입력 ⇒ 활-+-고	⇒ 평파열음화 ⇒ 할ㄷ고	⇒ 경음화 ⇒ 할ㄷ꼬	⇒ 자음군단순화 ⇒ 할꼬	⇒ 출력 할꼬
----	---------------	------------------	----------------	------------------	------------

활고	입력 ⇒ 활-+-고	⇒ 자음군단순화 ⇒ 할고	⇒ 평파열음화 ⇒ -	⇒ 경음화 ⇒ -	⇒ 출력 할고
----	---------------	------------------	----------------	--------------	------------

어말 간 자음군의 경우에 주의할 것은 이때 반드시 경음화와 자음군 단순화의 순서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자음군단순화가 먼저 일어나면 [할고]가 되어 받침 ‘ㄹ’이 뒤에서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발음의 오류를 나타낼 수 있다.

수의적 경음화는 앞 음절의 종성이 유성음인 경우 후행하는 음절의 초성이 경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즉, 종성 7개중에서 파열음을 제외한 유성음인 ‘ㄴ, ㄹ, ㅁ, ㅇ’에서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경음화인데 경우에 따라서 경음화가 허용되기도 하고 경음화가 허용되지 않는 예가 공존하여 수의적이라는 것이다 허용·김선정(2006:277). 또 수의적 경음화는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가 음운론적인 환경에서 무조건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과 달리 음운론적 환경 이외에도 형태, 통사론적인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경음화는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의 경음화와 한자어 ‘ㄹ’ 뒤의 경음화,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의 경음화, 사이시옷에서의 경음화가 있다. 다음에서 수의적 경음화의 규정과 그 예를 살펴보겠다.

(2)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의 경음화²⁰⁾

- 가) 안+고→ [안꼬], 신+던→ [신편]
 나) 감+더라→ [감떠라], 삼+지→ [삼찌]
 다) 젊+지→ [점찌], 삶+습니다→ [삼씀니다]
 라) 심+기→ [심끼], 심기(心氣)→ [심기]
 마) 안(安)+도→ [안도], 감(柿)+부터→ [감부터]
 바) (신을) 신기다[신기다], (물건을) 남기다[남기다]

(2)는 용언의 어간 말음에 놓인 비음(ㄴ, ㄹ) 뒤에서 연결되는 어미의 초성이 경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용언 어간 말 비음’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경음화이다. 여기서 어간 말 비음 ‘ㄴ, ㄹ, ㅇ’ 중에 ‘ㄴ, ㄹ’만의 환경에서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은 국어에 ‘ㅇ’으로 끝나는 용언이 없기 때문이며, 연결되는 어미의 초성을 ‘ㄱ, ㄷ, ㅌ, ㅈ’만 국한하는 것은 국어에 ‘ㅂ’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의 경음화는 조건이 없이 음운론적 환경에서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와 달리 ‘용언 어간’이나 ‘어미’와 같은 형태·통사론적 조건이 요구된다.

(2-가)~(2-나)는 용언의 어간 말 ‘ㄴ, ㄹ’ 뒤에 어미의 초성이 ‘ㄱ, ㄷ, ㅌ, ㅈ’가 반드시 경음화 되는 예이다. (2-다)는 용언 어간말의 종성이 ‘ㄹ’로 어간 말음이 ‘ㄹ’인 경우이다. 자음군단순화와 경음화가 일어나는데 그 순서에는 상관이 없다. ‘젊-’과 ‘삶-’은 [점찌], [삼씀니다]로 어미에 초성이 경음화가 일어난다. (2-라)에서는 용언 ‘심다’의 명사형 ‘심기’의 발음은 [심끼]로 경음화가 일어난 것에 반하여 체언인 ‘심기(心氣)’의 발음은 [심기]로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음운론적으로 모두 말음 ‘ㄹ’ 뒤에 ‘ㄱ’이 왔으나 용언이 아닌 체언의 경우에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2-마)는 ‘체언+조사’의 결합으로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의 경음화가 수의적 경음화이나 용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조건이 수반될 때는 매우 규칙적임을 알

20) 표준발음법 24항 “어간 받침 ‘ㄴ(Lx),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가 여기에 해당된다.

수 있다.

다만,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의 경음화에서는 (2-바)와 같이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가 결합할 때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수의적인 경음화이다. 즉,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접미사 ‘-기-’가 붙은 피동사, 사동사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안기다, 신기다, 넘기다, 감기다, 숨기다’ 등의 예시에서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이다. 실생활에서 ‘(신을) 신기다’는 [신끼다].[신키다]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표준발음이 아니다.²¹⁾

(3) 한자어 ‘ㄹ’ 뒤의 경음화²²⁾

- 가) 발달(發達)→ [발딸], 발생(發生)→ [발쌩], 발전(發展)→ [발쩨]
- 나) 물질(物質)→ [물쩨], 물질하다→ [물질]
- 다) 발병(發病)→ [발병], 발각(發覺)→ [발각]
- 라) 갈대→ [갈때], 술집→ [술집]
- 마) 실격(失格)→ [실격] 인격(人格)→ [인격] 품격(品格)→ [품격]
- 바) 허허실실(虛虛實實)→ [허허실실], 구구절절(句句節節)→ [구구절절]

(3)은 (3-가)의 ‘발달[발딸], 발생[발쌩], 발전[발쩨]과 같이 한자어의 선행 음절의 종성 ‘ㄹ’ 뒤에서 연결되는 초성 ‘ㄷ, ㅌ, ㅈ’이 경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3-나)의 한자어인 물질[물쩨]은 경음화가 일어나는데 ‘물질하다’의 고유어 물질[물질]은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음운론적 환경 이외에 한자어라는 형태론적 조건을 필요로 한다.

한자어 ‘ㄹ’ 뒤의 경음화는 후행 음절의 초성으로 ‘ㄷ, ㅌ, ㅈ’가 올 때 경음화가 일어나고 ‘ㄱ, ㅋ’이 올 때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3-다)의 발병[발병]과 발각[발각]은 한자어 ‘ㄹ’ 뒤에 ‘ㄱ, ㅋ’이 온 경우인데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21) 그러나 신승용·안미애 (2012:130)에서는 ‘감도[감또], 돈도[돈또], 강도[강또]’ 등과 같이 경남 방언의 경우에는 비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조사가 결합할 때도 경음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음을 밝혔다.

22) 표준발음법 26항 “한자어에서 ‘ㄹ’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것은 ‘ㄹ’과 ‘ㄷ, ㅅ, ㅈ’이 모두 치조음과 경구개음인 것과 관계가 있어서 혀끝이 입천장 쪽으로 올라가서 나오는 소리를 낸다. 즉 ‘ㄷ, ㅅ, ㅈ’이 ‘ㄹ’과 같은 [+설정성]이라는 자질을 가진 자음으로 음운론적 특성이 있는 반면에 ‘ㄱ, ㅋ’은 연구개음과 양순음으로 ‘ㄹ’과의 조음 위치가 멀기 때문이다(양순임2009:245). (3-라) ‘갈대[갈때], 술집[술짹]과 같이 고유어의 경우에도 ‘ㄹ’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이 경음으로 바뀌는 경우를 볼 때 ‘ㄹ’과 ‘ㄷ, ㅅ, ㅈ’의 설정성(coronality)이라는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자어 ‘ㄹ’ 뒤의 경음화는 음절말 ‘ㄹ’ 뒤에 후행하는 음절이 ‘ㄷ, ㅅ, ㅈ’인 경우에는 인명과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경음화를 일으키며 종성이 ‘ㄹ’인 숫자 ‘일(一), 칠(七), 팔(八)’ 뒤에서도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광범위성을 보여준다(배주채 2003:275).

(예) 인명: 철수(哲秀)[철쭉], 을지문덕(乙支文德)[을찌문덕]

지명: 팔달구(八達區)[팔딸구], 을지로(乙支路)[을찌로]

숫자: 일동(一洞)[일똥], 18세(十八歲)[십팔썰], 7집(七集)[칠짹]

한자어 ‘ㄹ’ 뒤의 경음화는 한자어 음절말 ‘ㄹ’ 뒤에 후행하는 음절이 반드시 한자어이며 초성이 ‘ㄷ, ㅅ, ㅈ’인 경우에 반드시 경음화가 일어나지만 예외도 있는 수의적 경음화임을 알 수 있다. (3-마)의 경우는 그 예외의 예이다. ‘실격[실격]’은 ‘ㄹ’ 뒤의 자음이 ‘ㄱ’으로 [+설정성]이 아님에도 경음화가 일어났고, ‘인격[인격], 품격[품격]’은 선행 음절의 종성이 ‘ㄹ’ 아닌 비음 뒤에서 경음화가 일어나면서 (3-가)~(3-라)의 설명과는 다르게 해석되어야한다. 이에 대해서 임홍빈(1981), 배주채(2003)에서는 ‘-격(格)’을 경음성을 가진 한자 형태소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안소진(2005:85)에서는 특정 한자 형태소의 경음 정보가 본래부터 그 한자 형태소의 발음 정보로 어휘부에 등재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3-바)는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를 나타내고 있어 ‘허허실실(虛虛實實), 구구절절(句句節節)’ 과 같이 한자형태소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밖에도 ‘몰지각(沒知覺)’과 같은 3음절 이상의 한자어에서는 ‘ㄹ’뒤의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등 특정한 한자형태소의 경음화 실현 양상에는 예외가

매우 많으며 경음화 여부에 개인차를 보이기도 한다.

(4) 관형사형 어미 ‘-을’ 뒤의 경음화²³⁾

- 가) 할 수가→ [할쑤가], 갈 바→ [갈빠], 먹을 것→ [머글곶]
- 나) 만날 사람→ [만날싸람], 다닐 병원→ [다닐 뽕원], 앓을#공간→ [안즐#공간]
- 다) 만날 그 사람→ [만날 그 사람], 다닐 새 병원→ [다닐 새병원]
- 라) 할지라도→ [할찌라도], 할수록→ [할쑤록], 할걸→[할곶]

관형사형 어미 ‘-을’ 뒤의 경음화는 관형사형 어미 ‘-을’ 뒤에 후행하는 체언의 초성 ‘ㄱ, ㄷ, ㅂ, ㅅ, ㅈ’가 경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먼저, 관형사형 전성어미란 용언의 어간에 붙어 관형사의 기능을 하게 해주는 어미로서 ‘-(으)ㄴ, -는, -(으)ㄹ’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먹을 것’에서 ‘먹을’은 용언 ‘먹다’에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 붙어 후행하는 의존명사 ‘것’을 수식하고 있는 것이다. 관형사형 어미 ‘-을’ 뒤의 경음화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중에서 오직 ‘-을’ 뒤에서 만의 음운론적 환경이 요구되는데 그 원인은 통시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 관형사형 어미 ‘-(으)ㄹ’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으)ㄹ’의 ‘ㅎ’은 성문 파열음으로 음절 말에서 불파음이 되고 ‘ㄹ’ 뒤에 오는 장애음을 경음이 되게 한다(권성미 2017:212).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관형어 뒤에 어떤 체언이 오는지에 따라 경음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데 이진호(2005:180)에서는 관형어와 체언의 밀착도가 높을수록 경음화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관형어 뒤에 의존명사가 올 때 경음화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했다.

(4-가)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을’ 뒤에 의존명사가 오는 경우로 항상 경음화가 일어나며 (4-나)는 관형사형 어미 ‘-을’ 뒤에 자립명사가 오는 경우로 경음화가 일어날 때도 있고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 ‘-을’ 관형어와 자립

23) 표준발음법 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붙임]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에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가 여기에 해당된다.

명사가 한 단어처럼 이어서 발음할 때는 경음화가 잘 일어나지만 ‘-을’ 관형어 후에 휴지(#)를 둔 다음 자립명사를 발음할 때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 ‘-을’ 관형어 후에 자립명사를 수식하는 어떤 요소가 삽입되면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4-다)의 ‘만날’ 뒤에 ‘사람’을 수식하는 ‘그’가 들어가면 [만날 그사람]으로 경음화가 안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관형사형 어미 ‘-을’ 뒤의 경음화는 수의적이고 경음화의 실현 여부와 양상에 정도성이 있다. 이는 관형사형 어미 ‘-을’ 뒤의 경음화가 관형사형 어미 ‘-을’에 의해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선행하는 ‘-을’ 관형어와 후행하는 체언과의 결합하는 과정에서 경음화가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준다. 즉 선행하는 ‘-을’ 관형어와 후행하는 체언이 의존명사인지, 자립명사인지, 또 자립명사여도 ‘만날 사람’ 과 같이 평소 특정한 용언에 ‘-을’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함께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강한 결속력을 보여 그 긴밀성에 따라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²⁴⁾

이밖에도 표준발음법 제26항의 ‘붙임’에도 명시한 것과 같이 관형사형 어미 ‘-을’ 뒤의 경음화는 이미 경음화가 일어난 구가 어미로 굳어진 예시들도 포함한다. (4-라)의 ‘할지라도[할찌라도], 할수록[할쑤록], 할걸[할꼇]’은 관형사형 어미 ‘-을’ 뒤의 경음화 이후에 굳어진 어미들인데 ‘-을’ 뒤에 오는 초성에 경음화가 일어난다.

(5) 합성어 사이시옷에서의 경음화²⁵⁾

가) 봄비→ [봄뵤], 아침밥→ [아침뵤]

나) 산새→ [산췌], 시골쥐→ [시골췌]

다) 손거울→ [손꺼울], 침대보→ [침대뵤]

24) 김유범(1999:18)에서는 경음화 진행의 정도성의 차이는 후행 요소의 의존성과 자립성 여부 그리고 사용빈도와 관련된 언중들의 친밀성 정도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입을 것 > 먹을 시금치 > 묶을 갈대(蘆)에서 ‘입을 것’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경음화가 일어나고 ‘먹을 시금치’는 화자에 따라 경음화 발생에 차이를 보이며 ‘묶은 갈대’는 경음화 발생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하였다.

25) 표준발음법 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가 여기에 해당한다.

라) 강줄기→ [강쫄기], 밀가루→ [밀까루]

마) 물고기→ [물꼬기], 불고기→ [불고기]

바) 비빔밥→ [비빔빱], 볶음밥→ [보끔밥]

합성어 사이시옷에서의 경음화는 합성어에서 선행 요소의 끝음절의 종성이 유성자음이나 모음일 때 후행 요소의 초성이 경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즉, 두 요소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룰 때 일어나는 경음화 현상으로 이는 형태소 경계에 첨가되는 국어의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이다(권성미 2017:213). 이때 ‘넷가 [넛까], 바람소리[바람쏘리]’와 같이 사이시옷이 표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사이시옷이 표기에 나타나지 않아도 경음으로 발음된다.

합성어 사이시옷에서의 경음화는 선행 요소의 끝음절의 종성이 유성자음이나 모음이라는 음운론적 환경이외에도 합성어를 이루는 두 구성 요소 중에 적어도 하나는 고유어이어야 한다는 형태론적 조건이 요구된다. 그리고 사잇소리 현상이 그 구성 요소들의 의미 관계에 따라 일어나는 음운 현상이므로 이 현상의 경음화 적용 여부 또한 합성어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 사이의 의미 관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이진호2014:180). 사잇소리 현상의 의미관계는 합성명사를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 선행 요소가 후행 요소의 ‘시간, 장소, 용도, 기원, 소유주’ 등의 의미 관계에 있을 때 주로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비바람’ 과 ‘고무신’과 같이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간의 관계가 대등하거나 선행 요소가 후행 요소의 ‘재료’를 나타낼 때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밖에도 선행 요소가 후행 요소의 ‘모양, 수단이나 소유주(유정물)의 의미에서는 사이시옷이 개재하지 않고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합성어에서의 경음화는 음운론적, 형태론적 조건 환경이외에도 의미론적 조건이 요구된다.

(5-가)~(5-라)는 합성어를 이루는 두 요소가 ‘시간, 장소, 용도, 기원, 소유주’ 등의 의미 관계에 있으므로 사이시옷이 첨가되어 뒤의 명사가 경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5-가)는 ‘봄비’와 ‘아침밥’에서 ‘봄’과 ‘아침’은 후행하는 명사에 대해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5-나)는 ‘산새’와 ‘시골쥐’에서 ‘산’과 ‘시골’이 후행하는 명사에 대해 장소를 나타내고 (5-다)는 ‘손거울’과 ‘침대보’에서 ‘손’과 ‘침대’가 후행 명사의 용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 (5-라)에서 ‘강줄기’와 ‘밀가루’는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에 대해 기원이나 소유주의 의미를 나타낸다. (5-마)

의 ‘물고기’와 ‘불고기’는 선행 명사가 ‘물’과 ‘불’, 후행명사가 ‘고기’로 음운론적 환경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경음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 ‘물고기’가 ‘물’과 ‘고기’ 사이에 장소적 의미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반해 ‘불고기’는 의미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합성어 사이시옷에서의 경음화는 의미관계에 따른 분류로 경음화 현상의 여부를 대부분 설명할 수 있지만 여전히 예외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는 수의적 경음화이다. (5-바)의 경우는 음운론적으로도 의미론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예시이다. ‘비빔밥’과 ‘볶음밥’에서 ‘비빔’과 ‘볶음’뒤에 ‘밥’이 오는 음운론적 환경이 동일하지만 비빔밥[비빔뺨]은 경음화가 일어나고 볶음밥[보끔밥]은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의미관계에서도 ‘수단이나 방법’적인 의미는 사이시옷이 끼어들지 못하는데 비빔밥[비빔뺨]은 경음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의미관계의 설명과 잘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역시 사이시옷의 개재 때문에 비롯된 현상이지만 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경음화의 실현 여부에 대한 차이는 쉽게 설명할 수 없다 (배영환2017:357).

㉠ 강가[강까], 바닷가[바닷까][바다까]

㉡ 뒷걸음[뒤꺼름][뒹꺼름], 뒷산[뒤싼][뒹싼]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에는 이상에서 살펴본 의미론적 설명을 통한 사이시옷의 첨가 이외에도 항상 사이시옷이 첨가되는 명사²⁶⁾가 있다. 이진호(2014:180)에는 합성어를 이룰 때 항상 경음화를 일으키거나 경음화가 일어나는 명사가 있다고 하며 ㅅ-전치 명사와 ㅅ-후치 명사를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위의 예시를 보면 ㉠에서와 같이 ‘강가, 바닷가’에서 ‘가’는 합성어의 후행요소로 올 때 항상 경음화가 일어나고 ㉡에서 ‘뒤’는 선행요소로 ‘뒷걸음, 뒷산’과 같이 합성어를 이룰 때 항상 후행요소에 경음화를 일으킨다. ‘가’와 같이 합성어를 이룰 때 항상 경음화가 일어나는 명사를 ㅅ-전치 명사라고 하고, ‘뒤’와 같이 합성어를 이룰

26) 부가준-배영환(2020:443)에서는 합성어에서의 경음화 현상을 합성명사에서 의미관계에 따라 실현되는 경음화와 합성어와 파생어를 이룰 때 특정 형태소에서 실현되는 경음화가 있다고 하며 특정 형태소에서 실현되는 경음화로 항상 사이시옷을 동반하는 ㅅ-전치성 형태소와 ㅅ-후치성 형태소가 있다고 하였다.

때 항상 경음화를 일으키는 명사를 ㅅ-후치 명사라고 한다. ㅅ-전치 명사에는 ‘가, 가게, 길’ 등이 있고 ㅅ-후치 명사에는 ‘뒤, 아래, 위’가 있다.

- ㉔ 과(科): 국문과 (國文科)→[궁문파], 내과(內科)→[내파]
- ㉕ 가(價): 물가(物價)→[물까], 정가(定價)→[정까]
- ㉖ 권(權)(圈)(券): 인권(人權)→[인편], 상위권(上位圈)→[상위편],
여권(旅券)→[여편]

한자 형태소 중에도 항상 사이시옷이 첨가되는 ㅅ-전치성 형태소가 있다. 한자어 과(科)와 한자어계 접미사 ‘-가(價), -권(權), -권(圈), -권(券)’은 다른 한자어에 붙어서 쓰일 때 항상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정 한자가 가진 특성으로 인해 경음화가 일어날 수 있다 (배주채2003:280).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합성어 사이시옷에서의 경음화 유형에 항상 사이시옷이 첨가되는 ㅅ-전치성 형태소²⁷⁾와 ㅅ-후치성 형태소, 즉, 특정 형태소에서 실현되는 경음화의 유형들을 포함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합성어에서의 경음화에 포함하여 함께 살펴볼 특정 형태소들은 다음과 같다.

ㅅ-전치성 형태소 : 가, -가, 가게, 감, 값, 거리, 국, 길, 발, -발, 살
 ㅅ-후치성 형태소 : 뒤, 아래, 위, 열, 여덟
 한자 ㅅ-전치성 형태소 : -기(氣), -가(價), 과(科), 권(權), 권(圈), 권(券)

지금까지 한국어의 경음화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 다섯 가지 경음화 유형과 예시를 다시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3> 경음화 유형 및 예시

27) ‘ㅅ-전치성’과 ‘ㅅ-후치성’에 대해서는 이진호(2014:180)과 구분관 외(2015:126)에서 ‘ㅅ-전치 명사, ㅅ-후치 명사’라는 표현을 썼으나 합성어에서 뿐만 아니라 파생어에서의 접미사와의 구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배주채(2003:226)를 따라 형태소로 표시하기로 한다.

경음화 유형	예시
① 평과열음 뒤의 경음화	국부터[국뿌터], 옷도[온또]
② 용언 어간말 비음 뒤의 경음화	안고[안꼬], 심고[심꼬]
③ 한자어 ‘ㄹ’ 뒤의 경음화	갈등(葛藤)[갈똥], 물질(物質)[물짚]
④ 관형형 어미 ‘-(으)ㄹ’ 뒤의 경음화	할 것을[할꺼슬], 할지언정[할찌언정]
⑤ 사이시옷에서의 경음화	겨울비[겨울뵤], 침대보[침대뵤]

<표3>을 통해 다섯 가지 유형을 본 것처럼 경음화의 유형이 다양하고 그 조건이 복잡하며 예외가 많다는 특성은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인 학습자들도 다섯 가지 경음화 유형의 규칙들을 모두 이해하고 적용하여 성공적인 경음화 실현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 본다.

Ⅲ. 연구 설계 및 방법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인 베트남인 학습자의 경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험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먼저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경음화 실현을 살펴보기 위해 자유 발화가 진행된다. 그리고 경음화 목록으로 구성된 문장의 낭독 실험과 경음화 규칙 인식에 대해 살펴볼 인지 실험을 진행하기로 한다. 세 가지 유형의 실험은 모두 2장에서 언급한 경음화의 유형에 기반을 두고 분류하며 각 실험의 실현 양상과 실현율과 오류율을 살펴본다.

1. 자유 발화

1.1. 실험 대상

본 연구의 자유 발화 실험 대상은 국내 대학교 부설 어학당의 6급 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베트남인 학습자 2명이다.²⁸⁾ 목표어인 한국어로 한 시간 가량 상대방과의 대화가 가능한 발화자여야 했기 때문에 어학당에서 고급 수준인 6급에서 공부하면서 대학 입학에 준비하고 있는 학습자를 선정하였다. 또 자유 발화를 통한 경음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소 5시간 이상²⁹⁾의 발화한 자료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유 발화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하고 조사에 호의적인 학습자를 선정하였다.

자유 발화 실험 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지속적인 자유 대화가 가능한 학습자였지만 발화자의 성격과 함께 조사에 대한 참여 정도 또한

28) 베트남 학습자 2명의 자유 발화에 대한 조사는 그 대상자 개인적인 오류 양상일 수 있다는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20명이 20~30분의 자유 발화를 하는 것보다 2명이 5시간의 자유 발화를 통한 집중적인 조사가 경음화의 유형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9) 짧은 시간 안에는 경음화의 다양한 유형들과 환경들에서의 실현 양상을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태경(2018:368)에서도 자유 발화의 연구 특성이 음운환경과 그에 따른 발화 분량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진다고 지적한 것처럼 경음화 유형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자유 발화 10회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실험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친분이 있는 실험 대상자 두 명을 선정하여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실험 대상자로 참여한 피험자 1과 피험자 2의 경우에 모두 한국인과 교제 중이었기 때문에 평소 한국어 발화의 기회가 많아서 발음과 문법적으로는 다소 오류가 있더라도 대화를 나누는데 막힘이 없었다. 피험자 1은 평소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이나 여행과 활동적인 취미를 즐기고 한국의 문화와 학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대화의 폭이 넓고 풍부했다. 피험자 2는 매우 활발한 성격으로 개인적인 감정까지 공유하며 대화에 적극성을 보였다. 자유 발화 실험 대상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4> 자유 발화 실험 대상자 정보

	성별	나이	교육기관	한국어 학습 기간	토픽
#1	여	25	6급	1년9개월	4급
#2	여	28	6급	2년4개월	3급

1.2. 실험 방법

자유 발화 실험은 매주, 피험자인 두 명의 베트남 학습자가 만나서 한 시간 가량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10주에 걸쳐 총 10회를 진행하였다. 피험자 두 명은 이미 한국어 어학당에서 함께 공부를 하면서 친분이 있었으므로 서로 상대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으며 한국어로 한 시간 가량을 대화한다는 것이 큰 학습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자유 발화 녹음은 대학교의 조용한 빈 강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먼저 피험자 두 명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날의 주제에 맞추어 대화를 시작하고 이것을 녹음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어떠한 제약도 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만 대화의 주제가 있어야 내용의 중복도 피하고, 대화가 막힘없이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구술 발화를 사용한 김경희(2019)와 배영환·김성란(2019)을 참고하여 주제를 선정하였다. 자유 발화 실험에서 사용한 대화 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5> 자유 발화 실험의 주제

	주제
1회	나의 고향
2회	나의 학생 시절(초,중,고)
3회	아르바이트 경험
4회	여행 경험
5회	남자 친구
6회	희망 사항
7회	새해
8회	유학 생활
9회	한국어 학습, 시험 준비
10회	대학 생활

주제 내용은 피험자들의 관심이 많고 평소 자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피험자 두 명은 주제에 맞추어 대화를 나누어 가며 자연스럽게 내용을 확장시키기도 하고 다른 주제에 연결하여 대화를 완성하였다. 기본적으로 피험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연구자의 간섭은 없었으나 가끔 대화가 끊어졌을 때나 발화량이 적은 대상자의 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OO는 어때요?” 등의 질문을 하였음을 밝혀둔다.

자유 발화 실험의 내용은 전체 10회를 통해 녹음이 이루어졌다. 녹음기기는 SONY PCM-A10이고 MP3파일 방식으로 저장하였다. 녹음된 내용은 총 602분이고 전체 녹음을 직접 연구자가 듣고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매회에 한 개의 파일에는 두 명의 피험자의 발화가 포함되어있고 학습자 개인의 발화의 양과 발음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험자의 기호인 #1,#2로만 구별하여 표시하였다. 연구자의 발화가 있는 경우에는 @로 표시하였고 표기법에 맞게 기록하였다. 피험자의 발화의 의미와 발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발화한 대로 적고 해당 어절 뒤에 ()를 붙여 표기법에 맞는 표현을 병기하여 넣는 방식을 취하였다. 발화 중에 휴지 표시는 #로 표기하였다. 전사 자료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그럼 OO, 시작#부터 전부 멘개 해써?
 #2: 처음에 친구 알바 소개해줘써요. 그때는 거기 일#하고 인는 지귀니 쫓구게 갈따와서 한달동안(한달동안)? 거기서 그 친구대신 저는 거기서 일 해써요.
 그때는 한달동안만 해서 그 나중에...
 다른 친구른 거기 동문시장 근처에 코기짱 소개해줘서 거기에 가서 사장님미랑 얘기해서 거기 알바이트 하기가 시작#해써요. 이제까지.

#1: 아 마따.
 그 저기 OO 이아꼬(일하고) 인는 고기집 내가 한번, 하루만 여기 일 해써.

#2: 진짜?
 #1: 그때 지짜로 근데 너무 우껴.
 #2: 왜 하루만 일#해써여?

자유 발화의 분석 대상 전사 자료에서 피험자들의 구분인 #1,#2를 제외하고 한컴 오피스 프로그램의 문서 통계를 이용하여 어절 수를 확인하였다. 전사 자료는 전체 26,021어절이다. 매회 파일의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경음화에 해당하는 어휘나 어절을 찾아내고 실현과 오류를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경음화 유형별 실현과 오류를 분류하여 그 빈도를 계산하였으며 오류율을 구하고 오류 양상을 살펴보았다.

2. 낭독 실험과 인지 실험³⁰⁾

2.1. 실험 대상

본 연구를 위해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들은 현재 국내 대학의 한국어 교육기관 정규 교육 과정 6급에서 공부하고 있는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 17명과 4년제 대학 학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베트남인 유학생 3명이다. 따라서 피험자들은 모두 한국어 교육 기관의 초급과 중급에서 경음화를 이미 학습하여 경음화 음운규칙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중급 이상의 어휘 인지 능력을 갖추어 발음 실현의 양상

30) 자유 발화 조사와 낭독 실험, 인지 실험에서 1.자유 발화 조사의 대상과 실험 방법을 먼저 기술하였고, 2. 낭독 실험과 인지 실험은 실험 대상인 피험자20명과 실험지의 구성이 같아서 함께 묶어서 실험 방법을 기술하였다.

을 살펴보기 적합한 베트남인 학습자이다. 이것은 앞서 자유 발화를 통해 경음화 실현을 진행한 교육 기관 6급 과정의 학습자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다.

피험자는 모두 20대로 본 연구가 남녀의 사회언어학적 실현 양상과 출신 지역의 차이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험자 남녀의 성비와 일정 지역의 출신을 관계하지 않고 피험자를 선정하였다. 피험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6> 피험자 정보

번호	성별	나이	고향	소속	한국어 학습기간	토픽
1	남	23	하노이(북)	어학당 6급	1년8개월	4급
2	여	20	하이퐁(북)	6	2년	4급
3	여	21	꽝닌(북)	6	2년	2급
4	남	20	하노이(북)	6	1년6개월	2급
5	여	21	하이즈엉(북)	6	1년10개월	3급
6	여	23	호찌민(남)	6	3년4개월	3급
7	남	20	하이즈엉(북)	6	2년	3급
8	남	25	하띤(중)	6	1년11개월	5급
9	여	26	타잉 화(북)	6	1년5개월	3급
10	남	21	하이즈엉(북)	6	1년10개월	4급
11	여	25	호찌민(남)	학부	1년9개월	4급
12	여	21	네안(중)	6	1년6개월	3급
13	여	26	꽝닌(북)	6	1년5개월	5급
14	여	21	탄화(북)	6	1년10개월	3급
15	여	23	꽝빈(중)	6	1년4개월	3급
16	여	28	하노이(북)	학부	2년4개월	3급
17	여	21	하이퐁(북)	학부	1년10개월	4급
18	남	21	응에안(중)	6	1년9개월	4급
19	여	25	빈푹(북)	6	1년5개월	3급
20	여	22	꽝닌(북)	6	1년6개월	4급

2.2. 실험 방법

2.2.1. 낭독 실험 방법

베트남인 학습자의 경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험 목록을 구성하였다. 먼저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경음화 어휘를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1A~6B)에 수록된 경음화 어휘 1,096개를 추출하였다. 이어서 빈도

수를 고려하여 국립 국어원의 한국어 교육용 어휘 4단계의 어휘 목록과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어휘 목록에서 경음화 어휘를 추출하여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의 1,096개 경음화 어휘와 중복으로 나타나는 경음화 어휘를 도출하였다. 3개의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경음화 어휘 목록을 다시 경음화 유형별로 분류하여 낭독 실험 어휘를 선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어학에서의 경음화의 5가지 유형을 기본으로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만 실현 양상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평파열음에서의 경음화의 내용 안에 자음군단순화가 함께 일어나는 자음군 어휘를 따로 분류하였다. 이는 평파열음 내의 자음군 어휘의 경음화 실현이 전체 평파열음의 경음화 오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평파열음만의 경음화 실현과 자음군단순화가 적용된 경음화를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살펴본 총 6가지의 경음화 실험 어휘 목록은 <표7>과 같다.

<표7> 경음화 실험 어휘 목록

경음화 유형	경음화 실현 환경	어휘
평파열음	단어 내부	이력서, 갑자기, 박수, 엇그제, 접수, 합격, 엇드려
	체언+조사	집도, 밭도, 입학부터, 소식보다
	용언+어미	녹지, 썩고, 묻고, 곱고, 쉽다
평파열음 자음군	자음군	읽고, 읽지, 값비싼, 가라앉게, 훑고, 얹게, 밟지, 많다
용언 어간 말 비음	비음 ㄴ	껴안고, 신지
	비음 ㄹ(ㄹㅇ)	감고, 다듬던, 품지, 삶고, 삶지, 젊게
한자어 ㄹ	한자어 ㄹ+ㄷ	발달, 갈등, 절대
	한자어 ㄹ+ㅅ	출산, 필수, 달성
	한자어 ㄹ+ㅈ	열정, 실제
관형형 어미 ㄹ	'-(으)ㄹ'+의존명사	할 수, 의지할 데, 어찌할 바, 먹을 거야, 먹을 것, 올 줄, 그럴 줄,
	'-(으)ㄹ'+자립명사	사람
	'ㄹ' 어말 어미	올지라도, 갈수록, 할지, 공부할걸
합성어 사이시옷	의미 관계	한밤중, 보름달, 일자리, 빗방울, 방바닥, 비빔밥
	특정 형태소	요리법, 물가, 눈길, 공통점, 심술보,

구조화된 실험에서 학습자의 좀 더 자연스러운 발화 실현을 위하여 경음화 어휘가 포함된 문장을 구성하여 읽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음화 실험 어휘가 포함된 목록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용례를 참고하고, 문장 구성의 난이도와 길이를 조절하여 실험 문장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실험 어휘 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구’ 형태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와 표준국어대사전의 용례를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낭독 실험을 위한 총 문장의 수는 66문장이다. 경음화가 일어나는 49개의 문장 속에 경음화 어휘가 63개 포함되었으며 피험자들이 실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17개의 비 경음화 문장³¹⁾을 함께 읽도록 구성하였다. 낭독 실험 문장의 예시는 <표8>와 같다.

<표8> 낭독 실험 문장 예시

1	그녀는 심성이 곱고 맑다.
2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
3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4	차츰 기억에서 잊히고 있었다.
5	달걀도 삶고 과일도 준비했다.
6	너의 지치지 않는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7	한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8	엄마는 부엌일로 분주하시다.
9	밥을 함께 먹을 사람을 찾았다.
10	실내에서 정숙하여 주십시오.

실험은 대학 내의 조용한 빈 강의실에서 1:1로 이루어졌다. 실험이 진행되던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활동을 자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험자와 피험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피험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낭독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피험자에게 경음화 낭독 실험 문장을 자연스럽게 한 번 읽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문장을 읽어

31) 비음화 5문장, 유음화 4문장, 유기음화 3문장, 구개음화 2문장, ㄴ첨가 3문장, 총 17문장의 비 경음화 문장을 낭독 실험 문장에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서 총 두 번을 읽도록 하였으며 이를 녹음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녹음은 휴대폰의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하고 MP3 파일방식으로 저장하였다. 이렇게 녹음된 실험 자료는 먼저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3명의 평가자³²⁾가 듣고 경음화 적용 어휘를 중점으로 전사하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피험자가 반복해서 발화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발화한 발음을 적용하여 전사하도록 하였으며 경음화 실현 여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경음화 적용 환경에서 경음이 나타난 것은 모두 실현으로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삼고[삼꼬]’의 경우에[쌈꼬],[쌀꼬] 등과 같이 일부 음소의 대치가 이루어졌어도 경음을 바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경음화 실현으로 평가하였다. 평가자들의 전사내용이 서로 다른 것은 연구자가 다시 듣고 판단하여 경음화 실현 여부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전체 20명 피험자의 2,640개 문장의 발화를 모두 합산한 최종 평가 결과를 가지고 경음화의 각 유형별 실현율과 오류율을 도출하고 각 환경별 오류 유형을 살펴보았다.

2.2.2. 인지 실험 방법

다음으로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경음화 적용 발음에 대한 경음화 규칙 인식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낭독 실험을 마친 피험자들은 잠시 쉬었다가 조용한 빈 강의실에서 인지 실험에 참여하였다. 인지 실험 문장은 낭독 실험 문장과 같은 66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실험에서 살펴볼 49개 경음화 적용 어휘와 17개 비 경음화 적용 어휘에 밑줄을 치고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피험자들이 해당 문장을 읽고 밑줄 친 부분의 발음에 알맞은 것을 제시된 4개의 발음에서 고르도록 하였다. 실험 문장의 예시는 <표9>와 같다.

<표9> 인지 실험 문장 예시

32) 평가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평가자	성별	나이	지역	한국어 교육 경력	학력
1	여	40대	서울	10년	박사 재학
2	여	40대	서울	10년	박사 수료
3	여	30대	제주도	2년	석사 재학

1	그녀는 심성이 곱고 많다. ①[곱고] ②[곱꼬] ③[곱코] ④[고코]
2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 ①[일코] ②[이코] ③[이꼬] ④[일꼬]
3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①[머근거] ②[머글걸] ③[머글곶] ④[머그꺼]
4	차츰 기억에서 잊히고 있었다. ①[이치고] ②[이지고] ③[이찌고] ④[잊히고]
5	달걀도 삶고 과일도 준비했다. ①[삼고] ②[잘꼬] ③[삼꼬] ④[살꼬]
6	너의 지치지 않는 열정 에 박수를 보낸다. ①[열정] ②[열정] ③[여정] ④[여정]
7	한밤중 에 무슨 일이세요? ①[한밤중] ②[한바중] ③[한밤중] ④[한파중]
8	엄마는 부엌 으로 분주하시다. ①[부엌일] ②[부엌릴] ③[부엌닐] ④[푸엌닐]
9	밥을 함께 먹을 사람 을 찾았다. ①[머글싸람] ②[머글사람] ③[머는싸람] ④[머는사람]
10	실내 에서 정숙하여 주십시오. ①[실내] ②[실래] ③[시래] ④[시내]

인지 실험 자료는 경음화 문장 980개에서 피험자별 정답수를 실현 개수로 정하여 각각 실현율과 오류율을 구하였다. 피험자 개인의 오답 문항을 정리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유형별 오류율과 오류 유형을 살펴보았다.

IV. 경음화 실현 양상 및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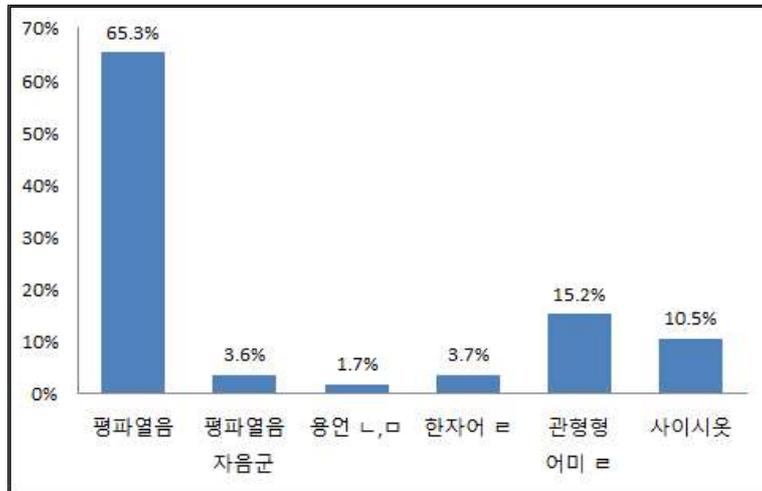
1. 자유 발화

자유 발화 조사에 나타난 경음화 환경은 1,886건으로 나타났다. 그중에 경음화 실현은 1,759건이며 오류는 127건으로 93.3%의 경음화 실현율과 6.7%의 경음화 오류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베트남인 학습자가 전체 발화 중에서 경음화를 대체적으로 잘 적용하여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유 발화의 특성상 발화자들은 본인이 아는 어휘와 사용이 용이한 문법을 사용하여 대화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경음화의 6가지 유형 중에 일부 유형에 대한 사례는 현저하게 적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머리를 감지 않았어요.’의 경우에 발화자가 ‘머리를 안 감았어요.’로 발화하는 경우 경음화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의 경음화를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학습자가 중간언어와 목표어를 사용하여 대화를 구성하고 그 실현과정에서 음운규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경음화 실현의 여러 양상을 살펴보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자유 발화 전체에 나타난 경음화 실현 환경을 6가지 유형별로 분류하여 실현율을 살펴보면 경음화 전체 실현 빈도 1,886건 중에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가 1,232건으로 65.3%로 가장 많이 실현되었다. 그리고 평파열음 자음군 뒤의 경음화가 67건으로 3.6%,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의 경음화는 32건으로 1.7%, 한자어 ‘ㄱ’ 뒤의 경음화는 71건으로 3.7%, 관형형 어미 ‘ㄴ’ 뒤의 경음화는 286건으로 15.2%, 합성어 사이시옷에서의 경음화는 198건으로 10.5%가 실현되어 유형별 실현의 빈도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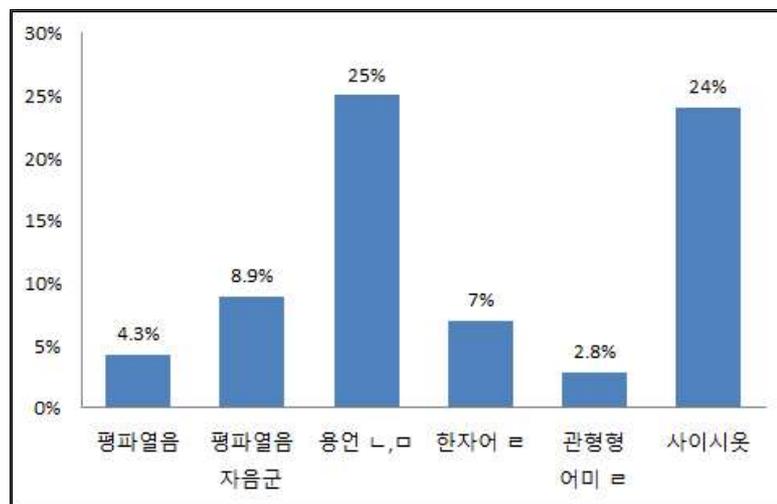
<그림1> 자유 발화 유형별 실현 빈도율



<그림1>을 통해서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발화 중에 용언 어간 말 비음이나 평파열음 자음군, 한자어 사용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상의 대화에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학교, 식당, 직장’ 등의 단어들과 체언과 조사, 용언과 어미의 결합, 또 문장을 맺는 종결어미나 연결 어미의 사용으로 평파열음 경음화의 실현이 많았다, 그다음으로 관형형 어미의 경우에도 빈도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유형별 경음화 환경에서의 경음화 전체 실현 빈도수와 오류 빈도수를 내어 베트남 학습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실현이 잘 되고 어떤 환경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림2> 자유 발화 유형별 오류율



위 그림에서 본 것과 같이 자유 발화 조사에서 경음화 오류는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에서 4.3%, 평파열음 자음군 뒤에서 8.9%,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의 경음화에서 25%, 한자어 ‘ㄹ’ 뒤에서 7%, 관형형 어미 ‘ㄹ’ 뒤의 경음화에서 2.8%, 사이시옷 환경의 경음화에서 24%의 오류율을 나타냈다. 자유 발화 조사의 유형별 경음화 오류율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관형형 어미 ㄹ < 평파열음 < 한자어 ㄹ < 평파열음 자음군 < 사이시옷 < 용언 어간 말 비음

오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용언 어간 말 비음의 경우 발화 횟수도 가장 적은 동시에 오류도 높게 나타났다. 이한결³³⁾(2017:41)에서도 경음화 유형 중에서 용언 어간 말 비음에서 일어나는 경음화 현상이 가장 많은 오류를 보였고 오류의 양상에도 뚜렷한 경향성이 없어 규칙의 인지 및 적용이 가장 어려운 규칙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어휘들이라면 경음화 유형의 규칙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음화 적용을 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합성어 사이시옷 환경은 수의적 경음화로 예외가 많고 학습자들이 합성어를 두 개의 단어로 인식하여 끊어서 발화하기 때문에 경음화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한대로 오류가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관형형 어미 ‘ㄹ’ 뒤에 경음화 실현율이다. 관형형 어미 ‘ㄹ’ 뒤에 의존 명사가 온다는 형태론적 환경을 인지해야 하고 단어 경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이 어절 단위로 끊어서 발화할 경우 경음화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경음화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실현율을 나타냈다. 발화 횟수도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는데 학습자들은 경음화 실현에서 평파열음에서 보다 더 높게 경음화를 실현을 하였다. 주로 ‘할 수’, ‘갈 수’, ‘볼 수’ 등의 표현이 많았는데 이것은 일상의 대화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33) 이한결(2017)은 외국인 학습자(11개국의 피험자 20명)의 경음화, 비음화 실현 양상 연구로서 본 연구와 연구 대상이 같지 않으나 경음화 각 유형, 세부 환경에서의 실현 양상이 잘 나타나 있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베트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경음화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사용하는 표현으로 이미 초급 단계에서부터 익숙하게 사용하여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더불어 평과열음 뒤의 경음화 경우가 그 다음으로 실현율이 높았는데 이것은 음운론적 환경에서 필수적이고 예외 없이 일어나는 경음화라는 면에서 예측 가능했던 결과이다. 학습자들은 96%의 실현율을 보였는데 배영환(2017:363)에서도 평과열음 뒤에서의 경음화는 매우 일찍부터 습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실제로 학습자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평과열음 뒤의 경음화는 교재를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일상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적용 환경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경음화 실현은 비교적 쉽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평과열음에서 자음군 단순화를 거친 경음화는 전체적인 발화 빈도가 낮았으나 91%의 실현율을 나타냈다. 학습자가 자음군에 대해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인위적인 실험에서의 발화 상태가 아니라 자유 발화에서의 자유로운 어휘 선택을 통한 발화였기 때문에 자음군에 대한 학습자의 부담을 덜어 주었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유 발화 조사와 낭독, 인지 실험에서의 평과열음 자음군의 경음화 적용에 대해 비교하여 볼 만하다.

‘한자어 ㄹ 뒤의 경음화’의 경우도 주목할 만하다. 전체 한자어의 발화 빈도가 낮아서 학습자들의 한자어에 대한 사용과 경음화 규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인가 추측하였지만 93%의 실현율을 확인할 수 있다. 한자어 사용은 어휘 능력이 변인이 될 수 있는데 이미 학습을 통해 습득한 어휘는 경음화 규칙을 잘 적용하여 발화한 것이었다. 따라서 발화 빈도가 낮다고 난이도가 높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각 유형별 경음화에서의 실현 양상과 오류 양상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겠다.

1.1. 평과열음 뒤에서의 경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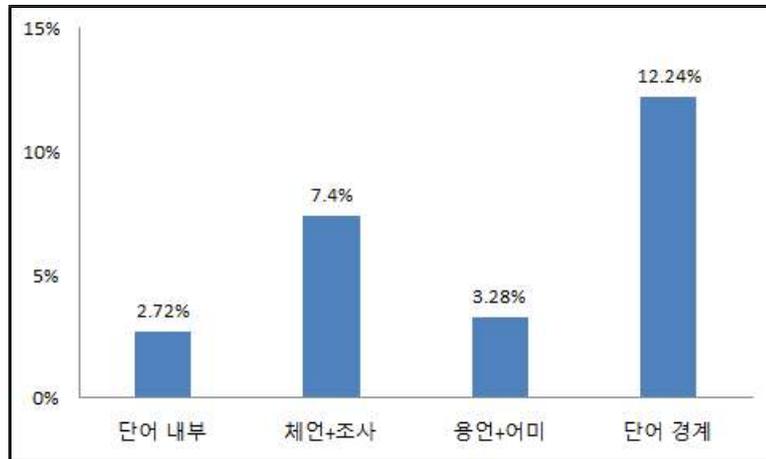
자유 발화 실험에서 가장 높은 경음화 발화 빈도를 차지한 것은 평과열음에서의 경음화이다. 평과열음 경음화는 1,179건의 경음화 실현으로 95.6%의 실현율을 보여 학습자들의 경음화 습득이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평과열음 경음화의 실현 양상을 형태면으로 단어 내부와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 용언과 어미의 결합형, 그리고 단어와 단어의 경계에서 일어난 경음화로 분류하여 살펴보

았다. 평과열음 뒤의 경음화 실현 양상은 단어 내부 < 용언 어미 결합형 < 체언 조사 결합형 < 단어 경계의 순서로 오류의 차이를 보였다. 각 환경에서의 경음화 실현양상과 오류율을 표와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0> 평과열음 뒤 경음화 실현 양상과 실현 빈도

구분	실현 양상 예시	실현 빈도
단어 내부	합격(합격), 식싸(식사), 대하교(대학교), 온짱(옷장)	499
체언+조사	칩또(집도), 아무거또(아무것도), 미빠닥뿌터(밑바닥부터)	50
용언+어미	찬꼬(찾고), 두껍께(두껍게), 먹꼬(먹고), 입찌(입지)	501
단어 경계	면께(몇 개), 월급쭈고(월급 주고), 다서씨간(다섯 시간)	129
	계	1179

<그림3> 평과열음 뒤 경음화 환경별 오류율



<그림3>을 통해 노순주(2014:42)에서 학습자들의 경음화 실현 양상은 체언과 조사 결합형, 용언과 어미 결합형, 그리고 단어 내부에서 순서로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의 자유 발화에서는 노순주(2014)에서 함께 살펴보지 않은 단어 경계에서의 실현 양상이 학습자의 기식 단위에 영향으로 다른 환경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오류율을 나타냈다. 다음은 평과열음의 각 환경에서 경음화 실현의 예이다. ①②는 단어 내부, ③~⑤은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 ⑥~⑧은 어미 결합형, ⑨⑩은 단어 경계에서의 경음화 실현 예이다.

- ① 고등학교: 그 베트남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거 지겹 나중에 하고 시퍼?
- ② 쌀국수: 진짜 쌀구수 아니고 쌀구수 가튼건만 만들 쭈 이썬요.

단어 내부에서의 경음화에서는 자유 발화의 주제가 학습자들의 고향과 과거, 현재, 미래의 생활 전반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특히 학습자들의 관심이 많은 ‘학과’, ‘학교’, ‘식당’, ‘기숙사’ 등의 단어들에 중복되어 실현되었다. 학습자들은 단어 내부에서 대부분을 경음화 실현에 성공하였는데 ①에서 ‘학교’를 [하교]로 ②의 ‘국수’를 [구수]로 앞 음절의 중성을 탈락시켜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후행하는 음절의 경음화는 실현하여 발화하였다.

오류율 2.72%의 단어 내부에서의 오류는 사실 한 번씩 나타난 발화 실패의 경우 오류라기보다 실수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음식#점](음식점), [특#산물](특산물)의 경우 끊어서 발음하여 경음화를 실패하였고 [하생식당](학생식당), [이하금](입학금), [유급](육급)의 경우 앞 음절의 중성을 탈락하여 발음하여 경음화를 적용하지 못했으며 [입장],[입창](입장)의 경우에는 음절대로 발음을 하거나 격음화를 시키는 오류를 나타냈다. [갑자기],[갑차기](갑자기)의 경우는 총 7번의 오류로 23%의 오류율을 나타내어 자주 사용하는 단어지만 평음-경음-격음의 혼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③ 밥도: 팍또 가치 머꼬 하교 갈 때도 가치 가고.
- ④ 그것과: 그걸과 가튼 거스로 달라고 해찌.
- ⑤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려워서 하는데 힘드러써.

평과열음 뒤 경음화에서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은 ③~⑤와 같이 발화 실현도 양호하여 오류율 7.4% 나타냈다. 발화 빈도는 비교적 낮았지만 조사 ‘도’와의 결합은 96%의 실현율을 보였으며 ‘과’는 100%로 경음화 실현에 성공하였다. 반면에 ‘보다’와 ‘부터’는 발화 빈도도 낮았고 오류율도 높았다.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의 오류 양상은 [북쪽#보다는](북쪽보다는), [이적#도](이쪽도)의 경우 음절을 끊어 발화하여 경음화를 적용하지 않은 유형과 [엡토이씨](엡도있어), [미과닥부터](밀바닥부터)와 같이 경음을 격음으로 대체하여

발화한 경우이다. 학습자는 평과열음에서의 경음화 적용을 인지하여도 사용하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경우 오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였다.

- ⑥ 찍고, 먹고: 가서 사진도 찍꼬 밥도 머꼬 재미써써요.
- ⑦ 싶지: 아니 난 거기 카고싹찌 아나.
- ⑧ 했잖아: 그래서 내가 연스꽤짜나.

용언과 어미의 결합형은 평과열음에서의 경음화 실현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실현 유형도 다양하였다. ⑥과 ⑦과 같이 ‘고, 게, 지, 던, 도록’ 등의 어미와 결합하여 경음화 실현을 성공시켰고 특히 종결어미에서의 경음화가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⑧의 예와 같이 발화의 습관으로 학습자들은 ‘먹었잖아, 갔잖아, 몰랐잖아, 만났잖아, 땀잖아’ 등의 발화에서 경음화를 실현시켰다. 이밖에도 어간의 과거형에 ‘-지, -죠, -더라고, -겠다, -대’ 등의 종결 어미가 결합하여 경음화를 실현하였다.

용언과 어미의 결합형 오류의 유형으로는 [머고시폰데](먹고시폰데), [머고십치아나](먹고싶지않아), [고마#다고](고맙다고), [해거드뇨](했거든요), [이자나(있잖아)], [기러자나요](길었잖아요), [찌그지](찍지) 등으로 앞 음절의 종성을 탈락하여 경음화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어렵#고](어렵고), [적자나요](적잖아요), [가고십#지](가고싶지), [해반#자나요](해봐잖아요)와 같이 음절을 끊어 발화한 경우, 그리고 [굽코](굽고), [어렵치](어렵지), [해차나요](했잖아요)와 같이 경음을 격음으로 대치하여 발화한 경우이다.

- ⑨ 몇 개: 그냥 공장 뎡개만 인꼬 크냥 유명하지아나.
- ⑩ 한국 돈: 살 때 일 키로그램? 오만동 한국또느로

이한결(2017:30)에서는 단어 경계에서의 경음화 실현은 단어 경계에서 일어나는 두 음절을 하나의 기식 단위로 발음해야하는데 학습자에 따라 그 기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작된 문장을 읽는 실험에서는 살펴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경음화 규칙의 인지와 상관없이 기식의 단위에 따라 실현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 발화에서는 단어와 단어 경계에서의 경음화 실현이 자연스러운 관찰 대상인 만큼 다른 환경과 함께 살펴보아 제작된 실험과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였다.

단어 경계에서의 경음화 실현은 위에서 예측한 대로 평파열음 경음화의 환경 중에서 가장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음절별로 끊어서 발화하려는 베트남인 학습자의 모국어 영향으로 지속적인 오류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단어 경계의 실현 유형은 ⑨와 같이 체언 뒤에 수 관형사나 의존 명사가 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아홉 시, 여섯 개, 몇 번, 다섯 시간’ 등이 그 예이다. 또 ⑩의 예와 같이 ‘외국 사람, 책 사서, 끝 반, 열 반, 한국 공부’ 등과 같이 발화시에 앞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경음화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오류 유형은 모두 어절로 끊어 발화한 예로 [외국#가서](외국 가서), [온#사는지](온 사는지), [중국#걸로만](중국 걸로만), [한국지베서](한국 집에서), [한국사람](한국 사람), [가본곳중에서](가본 곳 중에서), [오백#장인데](오백 장인데) 등이 있다. 오류의 예를 통해 수 관형사나 수 의존명사를 연결해서 발화하는 경우에는 두 번의 건수를 제외하고 모두 성공적으로 실현했는데 이것은 ‘아홉 시, 몇 개, 다섯 시간’의 경우 단어로 익숙하게 익혀져 실현한 것으로 추측된다.

1.2. 평파열음 자음군 뒤의 경음화

자유 발화에 나타난 평파열음 자음군의 경음화는 61건의 실현과 6건의 오류로 91%의 실현율과 8.9%의 오류율을 나타냈다. 배영환(2017:363)에서는 초급 학습자의 경우에 선행 자음의 발음은 부정확할지라도 자음군 뒤에서의 경음화는 거의 습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중급 이상의 베트남인 학습자가 참여한 자유 발화에 나타난 평파열음 자음군의 경음화 실현은 비록 발화 빈도는 높지 않았으나 학습자들의 경음화 실현율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평파열음 자음군의 경음화 실현 문장 예시와 <표11>은 실현 양상과 실현 빈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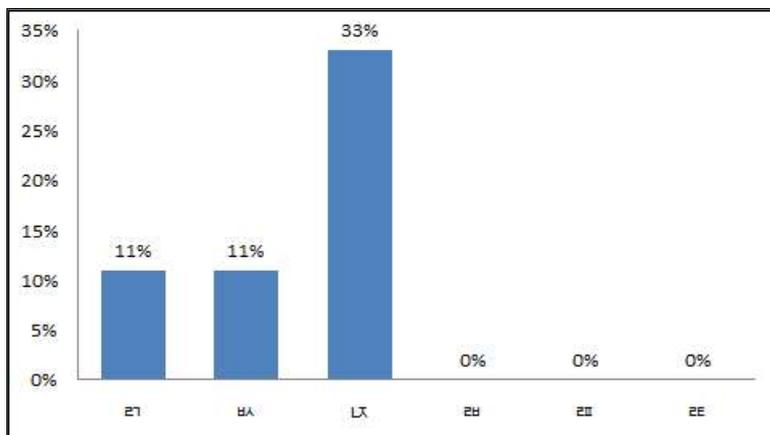
- ① 읽고, 읽지: 어제도 교재만 일꼬 다른 채근 일찌 아나씨.
- ② 짧게: 오빠가 치마를 너무 짧께 입찌 말래요.
- ③ 활고: 뚜껑까지 그걸 다 활꼬...

<표11> 평파열음 자음군 뒤 경음화 실현 양상과 실현 빈도

구분	실현 양상 예시	실현 빈도
ㄹ	다갈비(닭갈비), 닭또(닭도), 일꼬(읽고), 일찌(읽지), 늘꼬(늘고)	15
ㅃ	업꼬(없고), 업따면(없다면), 업짜나(없잖아), 갑찐(값진)	29
ㄴ	가라안떠라구요(가라앉더라구요), 안따가(앉다가)	4
ㄹ	짚게(짹게), 알찌(알지), 널떠라구요(넙더라구요), 땃꼬, 땃꼬(땃고)	10
ㄹ	읍쪼리던데(웁조린던데)	2
ㄹ	할꼬(할고)	1
계		61

자음군 ‘ㅃ’이 용언의 활용으로 대화에서 비교적 많이 출현하여 학습자들이 경음화를 실현하였으며 그 다음 자음군 ‘ㄹ’의 실현 빈도가 높았다. 자음군 ‘ㄹ’의 경우에는 ‘뺨고’[뺨꼬]의 경우 [뺨꼬]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어미의 초성이 ‘ㄱ, ㅈ, ㅊ’ 등 다양하게 결합할 때도 모두 완벽하게 경음화를 실현시켰다. 자음군 ‘ㄴ’은 평파열음과 자음군 단순화에 의하여 경음화가 일어나는 경우이지만 발음은 선행 자음 ‘ㄴ’으로 발음되어 비음 뒤에서의 경음화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가 어떻게 실현하는지 주목하여 볼 수 있었다. 또 자음군 ‘ㄹ, ㄹ’의 경우에는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어휘는 아니지만 경음화를 잘 적용하여 실현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미 자음군 환경에서 경음화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4> 평파열음 자음군 뒤 경음화 자음군별 오류율



<그림4>을 통해 자음군 ‘ㄹ, ㄴ, ㄷ’ 은 오류 없이 경음화를 100% 실현하였고 ‘ㄹ, ㅂ’의 경우에는 11%의 오류를 ‘ㄴ’에서는 33%의 오류를 나타내 학습자들이 자음군 ‘ㄴ’의 경음화를 비교적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오류의 양상으로는 ‘닭볶음탕’을 [닥보끔탕]으로, 자음군은 ‘닥’으로 잘 발음하였지만 두 개의 단어로 생각하여 끊어서 발화하면서 경음화를 실현시키지 못하였다. [피료업#자나], [피료어자나]는 학습자가 이미 앞서 대화에서 계속 경음화를 실현 시킨 ‘없잖아’를 세 번에 실패를 나타낸 것인데 이는 학습자의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베트남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음절로 끊어 발음하기와 종성을 탈락시켜 발화하는 것은 이미 화석화되어 빈번하게 오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1.3.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의 경음화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의 경음화는 자유 발화 조사에서 가장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경음화 유형으로 나타났다. 자유 발화에 나타난 경음화 실현 빈도수는 다른 유형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았고 경음화 실현율도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다. 즉 ‘용언의 어간 말’이라는 형태론적 조건과 ‘비음’이라는 음운론적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하는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의 경음화가 학습자들에게 어려울 수 있다. 이것은 같은 표기라도 체언과 용언으로 경음화 적용이 다르고 ‘안다(know)’와 ‘안다(hug)’와 같이 대화의 맥락 속에서 구별하여 경음화를 적용하는 것이 외국인 학습자에게 까다로운 규칙일 수 있다 이한결(2017:14).

자유 발화에 나타난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의 경음화 실현은 전체 24건에 8건의 오류로 75%의 경음화 실현율과 25%의 오류율을 나타냈다. 다음은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의 경음화 실현 문장 예시와 <표12>는 실현 양상과 실현 빈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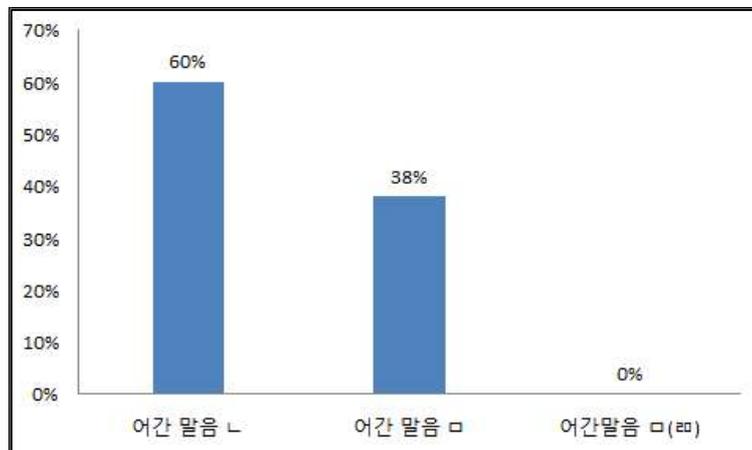
- ① 참고: 뭐 남자진구 항상 잡꼬(참고), 양보도 해주고 이해해 주고.
- ② 께안고: 친나른 엄마랑 꼭 껴안꼬 자써.
- ③ 젊지: 이 흰머리 봐. 난 이제 젊찌아나.

<표12> 용언 어간 말 비음 뒤 경음화 실현 양상과 실현 빈도

	실현 양상 예시	실현 빈도
어간 말음 ㄴ	껴안꼬(껴안고)	2
어간 말음 ㅁ	잠꼬(참고), 쓰다듬꼬(쓰다듬고), 감꼬(감고), 넘께(넘게), 심찌아는(심지않은)	13
어간 말음 ㅁ(ㄹ)	담꼬(담고), 쌀찌,쌈찌(쌌지), 꿈따가,굶따가(굶다가)	9
	계	24

자유 발화에서 용언 어간 말음 ‘ㄴ’과 어미 ‘-고, -게, -지, -다가’의 결합으로 경음화가 실현된 예는 ②의 ‘껴안고’를 발화한 두 건에 불과하다. 이것은 실제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용언 어간 말음이 ‘ㄴ’인 어휘는 ‘신다(wear)’와 ‘안다(hug)’밖에 없음과 관련이 없지 않다. 그리고 <표12>를 통해 어간 말음 ‘ㅁ’과 ‘ㄹ’의 경우엔 어미 ‘-고, -게, -지, -다가’의 형태로 다양하게 결합하여 경음화를 실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쌌지’의 경우 [쌀찌], [쌈찌]로, ‘굶다가’의 경우 [꿈따가]로 자음군의 발음이 틀리거나 앞 음절의 초성을 대치하여 발음하여도 경음화를 실현시킨 것을 볼 수 있다.

<그림5> 용언 어간 말 비음 뒤 경음화 환경별 오류율



위의 <그림5>는 용언 어간 말 비음(ㄴ, ㄹ, ㄷ)의 경음화 환경별 오류율이다. 어간 말음 ‘ㄴ’ 뒤의 경음화는 실현 빈도도 높지 않았지만 60%의 오류율을 나타내어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 양상으로 ‘신고’의 경우엔 [신고] 한 번의 발화가 실패로 이어져 오류율 100%를 나타내었고 ‘껴안고’의 경우도 [껴안고]로 철자대로 발음하여 오류율 33%를 나타냈다. 어간 말음 ‘ㄹ’ 뒤의 경음화에서는 38%의 오류율을 보였는데 ‘숨고’는 [숨고]로 발음하여 오류율 100%를 나타냈으며 ‘넘게’의 경우 한 번은 실현 성공을 한 번은 실현 실패로 오류율 50%를 나타냈다. 반면에 어간 말음 ‘ㄷ’의 경우엔 오류율이 0%다. ‘젊다, 삶다, 닳다, 굽다’의 어휘에 ‘-고, -지, -다가’ 어미의 초성의 결합에서 100% 경음화 실현을 나타내어 학습자들의 어간 말음 ‘ㄷ’의 인지와 완전한 적용을 확인할 수 있다.

1.4. 한자어 ‘ㄷ’ 뒤의 경음화

자유 발화 조사를 통해 학습자들의 발화 속에서 한자어 사용이 많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한자어 ‘ㄷ’ 뒤의 경음화 실현 빈도수는 높지 않다. 다만 경음화 환경에서는 비교적 경음화 적용이 잘 이루어져 전체 66건의 경음화 실현과 7건의 오류로 93%의 실현율과 7%의 오류율을 나타냈다. 여기서는 학습자들이 경음화 실현 양상으로 한자어 앞 음절의 종성 ‘ㄷ’ 다음에 초성 ‘ㄷ, ㅅ, ㅈ’ 이 온 것으로 분류하여 경음화 적용이 어떤 환경에서 잘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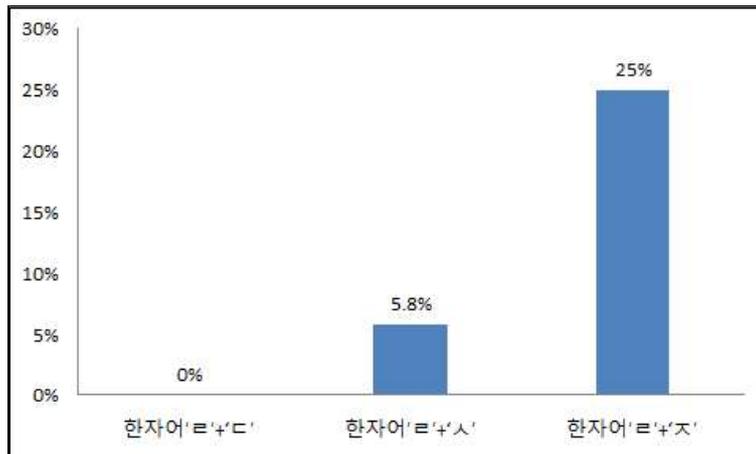
- ① 갈등(ㄷ): 둘 관계에서 갈똥이 생겨서 그거 해겨래야 돼.
- ② 결심(ㅅ): 결씨마고 결씨맨는데 잘 안 되던데...
- ③ 발전(ㅈ): 골목뜨리 저네 땅이어써. 근데 발쩨되고 이제 다 기리돼써.

<표13> 한자어 ‘ㄷ’ 뒤 경음화 실현 양상과 실현빈도

구분	실현 양상 예시	실현빈도
한자어‘ㄹ’+‘ㄷ’	화동, 활동(活動), 일탄(一坦), 갈뚝((葛藤), 발달(發達) 일당(一黨)	22
한자어‘ㄹ’+‘ㅅ’	열심(熱心), 칠십(七十), 팔십(八十), 줄쌍, 추쌍(出生), 결씩(缺席), 결심(決心)	32
한자어‘ㄹ’+‘ㅈ’	결정(決定), 일정(日程), 발전(發展)	12
계		66

①②③에서와 같이 학습자들은 평소에 자주 사용하여 익숙한 한자어를 통해 경음화 실현 대화를 구사하였는데 전체 발화에서 15건이나 발화한 ‘열심’(熱心)의 경우를 보면 더욱 확실하다. <표13>을 보면 한자어 내부에서 ‘ㄹ’+‘ㅅ’의 경우에 실현 빈도가 높았고 그 다음이 ‘ㄹ’+‘ㄷ’, ‘ㄹ’+‘ㅈ’의 순서로 빈도수를 나타냈다. 한자어 경음화 실현 양상은 먼저 다른 유형에서와 마찬가지로 [화동](活動), [추쌍](出生)과 같이 앞 음절의 종성 ‘ㄹ’을 탈락하고 경음화 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줄쌍](出生)과 같이 앞 음절의 초성을 평음으로 대치하거나 [결씩](缺席), [결정](決定)과 같이 앞 음절의 초성을 격음으로 대치하여 발음하였으나 경음화는 적용하여 실현한 것들이 있고 그 외에 대부분은 경음화가 잘 이루어졌다.

<그림6> 한자어 ‘ㄹ’ 뒤 경음화 환경별 오류율



한자어 ‘ㄹ’뒤의 경음화 오류 양상과 오류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오류율은 높지 않았지만 각 단어별 오류율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한자어 내부‘ㄹ’+‘ㄷ’에서는 오류가 없이 완벽하게 경음화를 실현하였다. ‘ㄹ’+‘ㅅ’과

‘ㄹ’+‘ㅈ’에 오류율은 각각 5.8%와 25%를 나타내었다. 오류 유형은 [치십#명] (七十名), [설사](泄瀉), [일주](一周), [열#정](熱情)으로 앞 음절 종성 탈락, 표기대로 발음하기, 경음을 격음으로 발음하기, 띄어서 발음하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는데 ‘칠십(七十)’을 1건, ‘팔십(八十)’을 4건의 발화를 실현 성공한 것으로 보아 [치십#명]의 경우 단순한 실수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열#정]의 경우엔 4건의 발화 중 2건만을 경음화 실현을 시켜 50%의 오류율을 보임으로 학습자들이 ‘ㄹ’+‘ㅈ’의 결합에서 경음화 실현을 비교적 어려워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5. 관형형 어미 ㄹ 뒤의 경음화

자유 발화 조사의 결과 중에 경음화 실현의 성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유형은 관형형 어미 ‘ㄹ’ 뒤에서의 경음화이다. 자유 발화 중에서 전체 264건의 경음화 실현과 단 8건의 오류로 관형형 어미 ‘ㄹ’ 뒤에서의 경음화는 자유 발화의 전체 발화에서 평과열음 다음으로 발화 빈도수도 높고, 경음화 실현도 높게 나타난 것이다. 다음에서는 경음화 실현 예시를 보고, 표를 통해 관형형 어미의 ‘ㄹ’ 뒤에 의존 명사가 올 때와 자립 명사가 올 때, 그리고 ‘ㄹ’ 어말어미로 경음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 그 빈도수와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 ① 할 수: 갑자기 나도 스스로 이해할 쑈 업써.
- ② 갈 것: 프랑쓰에 카고시픈데 아마 모칼꺼 가튼데.
- ③ 갈 생각: 거기에 갈 썩가기 업는거가태요.
- ④ 먹을거리: 지베 머글꺼리 하나도 업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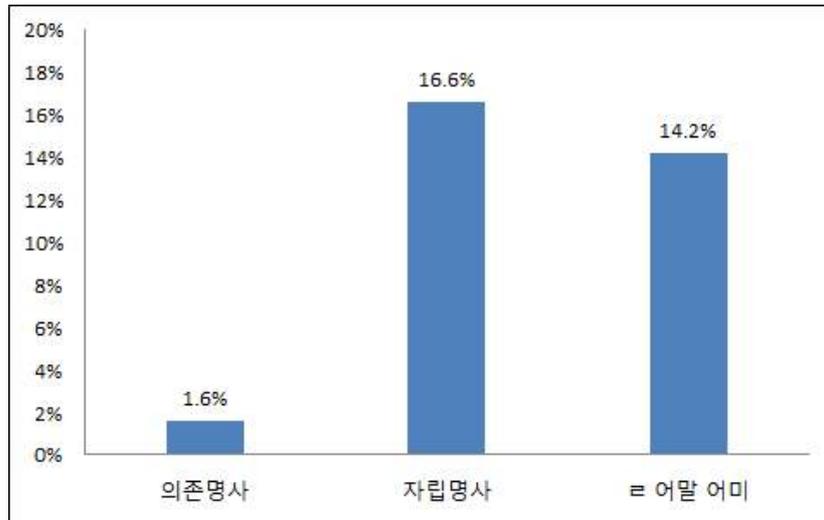
<표14> 관형형 어미 ‘ㄹ’ 뒤 경음화 실현 양상과 실현 빈도

구분	실현 양상 예시	실현빈도
의존명사	이쓸쑤(있을 수), 갈 꺼야(갈거야), 만날쑤, 만날쑤(만날 수), 마랄찌(말할 지),	241
자립명사	운전할쌍각(운전할 생각), 만날싸람(만날 사람)	5
ㄹ 어말어미	걸릴꺄(걸릴걸), 연라카고갈꺄(갈꺄), 하쑤록, 할쑤록(할쑤록), 볼꺄리(볼꺄리),	18
	계	264

①에서와 같이 관형형 어미 ‘ㄹ’ 뒤에서의 경음화에서 가장 빈번하게 실현이 이루어진 것은 관형형 어미 ‘-(으)ㄹ’ 와 의존 명사 ‘수’와의 결합이다. ‘볼 수, 잘 수, 갈 수, 먹을 수, 참을 수’ 등의 결합은 학습자가 초급에서 ‘~(으)ㄹ 수 있다/없다’의 표현으로 학습하여 익숙하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경음화 실현이 어려움 없이 잘 적용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히려 학습자들은 ‘~(으)ㄹ 수 있다/없다’를 다른 표현에 대체하여 쉽게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그래서 더 친하게 됐어’를 ‘그래서 더 친할 수 있어’로 표현하는 경우인데 ‘안 부정문’이나 ‘못 부정문’의 사용보다 ‘~(으)ㄹ 수 없다’의 표현을 더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밖에도 ②와 같은 ‘것, 지, 데’ 등의 다양한 의존 명사와 결합하여 경음화를 실현시켰다. ③은 자립 명사와의 결합이며 ④는 관형형어미와의 결합으로 경음화가 일어난 구가 한 단어나 어미로 굳어진 예이다. ‘먹을꺄리’ 외에도 자유 발화에 나타난 ‘ㄹ’ 어말 어미의 실현 양상은 <표14>를 통해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의존 명사와의 결합이 압도적으로 많아 241건의 빈도수를 나타냈고, 자립 명사와의 결합은 5건, 단어와 어미의 형태는 18건의 경음화 실현 빈도를 나타냈다. 실현 양상은 [마날쑤], [갈쑤록], [하쑤록] 과 같이 앞 음절의 종성을 탈락시키거나 초성을 격음으로 대치하여 발음하기도 하였으나 후행하는 의존 명사나 단어는 경음화를 실현시키며 전체적으로 경음화 실현에 성공적이었다.

<그림7> 관형형 어미 ㄹ 뒤 경음화 환경별 오류율



관형형 어미 ‘-(으)ㄴ’ 뒤의 경음화 오류율과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의존 명사와의 결합이 1.63%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ㄴ’ 어말어미가 14.2%, 자립 명사와의 결합이 16.6%를 나타냈다. 오류 양상은 대부분 철자법대로 발화하여 ‘ㄴ’ 어말어미를 음절별로 끊어서 사줄게 등으로 발화하며 경음화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이다. 또 [된거야](될 거야)의 경우엔 ‘ㄴ’을 ‘ㄴ’으로 대치하여 경음화 실현에 실패하였고 [선물주겔](선물줄겔)의 경우에는 ‘-을겔’의 선행 음절 종성 ‘ㄴ’을 탈락하여 후행 음절의 초성을 경음화하지 못한 사례이다.

1.6. 합성어 사이시옷에서의 경음화

2장에서 합성어 사이시옷 환경의 경음화는 다양하고 규칙에 예외도 많아서 학습자들의 경음화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였었다. 자유 발화 조사에서도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의 경음화와 비슷한 오류율을 나타내어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 발화 조사에 나타난 합성어 사이시옷 환경 경음화의 발화 실현은 151건이며 오류는 47건으로 76%의 실현율과 24%의 오류율을 나타냈다. 다음에서는 먼저 사이시옷 환경 경음화의 실현 양상과 함께 사이시옷 환경 경음화의 내용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합성어 사이시옷 환경에서의 경음화는 특정 형태소의 경음화와 의미관계에 의한 경음화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부가준, 배영환(2020:444). 여기서는 의미 관

계의 경음화와 ‘ㅅ’-전치성 형태소나 ‘ㅅ’-후치성 형태소의 결합으로 경음화를 일으키는 특정 형태소의 경음화, 그리고 특정 한자 형태소의 결합은 어떻게 실현하는지 분류하여 그 실현 양상을 살펴본다.

- ① 밤거리: 베트남 더 조은거 그냥 머글꺼리, 어 밤꺼리...
- ② 웃음소리: 근데 우습쏘리가 너무 큰데?
- ③ 올레길: 우리 올레길 하는 케회기 이써써요.
- ④ 인기(人氣): 그 친구 머신포 키도 크고 인끼도 마나써.

<표15> 합성어 사이시옷 경음화 실현양상과 실현 빈도

구분	실현 양상 예시	실현 빈도
의미 관계	고기찐,코기찐(고기찐), 회찐(회찐), 밤꺼리(밤거리), 자취빵(자취방), 손똥(손등)	35
특정 형태소	오랫동안(오랫동안), 빠다까,바다까(바닷가), 열뚜시(열두시), 내꺼(내거), 만두꼭(만두국),	80
특정 한자 형태소	우울쫙(憂鬱症), 인끼(人氣), 성격(性格) 가능썩(可能性), 영점(零點), 평까(平價)	36
	계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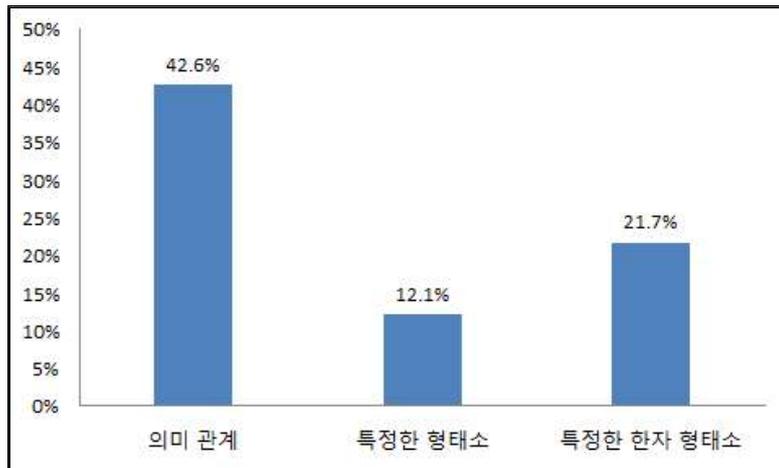
사이시옷 경음화에서 경음화 실현 빈도는 151건 중에서 특정 형태소의 경음화가 80건으로 빈도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는 특정 한자 형태소와 의미 관계의 경음화가 비슷한 빈도로 36, 35건을 나타냈다. ①~④의 사이시옷 경음화 실현 대화와 <표15>의 실현 양상 예시를 통해서도 [코기찐], [빠다까]과 같이 선행 명사의 초성 발음을 격음이나 경음으로 대치하여 발음하여도 후행 명사의 초성을 경음으로 바꿔 실현에 성공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고기], [바다까], [회찐] 과 같이 선행 명사의 중성을 탈락하기도 하였지만 경음화는 실현하였다.

특정 형태소의 실현 양상 중에는 한 단어인 ‘오랫동안’ 이외에도 ‘이틀 동안, 오년 동안’의 ‘동안’ 이나 ‘내 거’, ‘네 거’, ‘프랑스 거’ 등에서 ‘거’와 같은 특정 형태소의 개입으로 구를 형성할 때도 사이시옷 경음화가 적용³⁴⁾되어 실현되었음

34) 이 외에도 구를 형성할 때 ㅅ전치성 형태소 때문에 사이시옷이 들어간 예로 ‘철수가 도착한 날 밤, 이 마을 사람, 출석한 사람 수’ 등을 더 들 수 있다. 배주채(2003:264)

을 확인했다. 특히 ‘내 거’, ‘네 거’와 같은 소유물을 나타낼 때의 의존 명사 ‘거’는 100% 경음화 실현에 성공하였다. 이것은 후행하는 1음절 의존명사의 결합으로 학습자들이 덩어리 표현을 쉽게 습득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본다.

<그림8> 합성어 사이시옷의 경음화 환경별 오류율



오류율과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특정 형태소에 의한 경음화 발화 빈도가 높으나 오류율은 12.1%에 불과하였고 의미 관계에서의 사이시옷 환경의 경음화는 42.6%로 오류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회집, 고기집’의 경우 다수의 실현에 성공하여도 오류도 여전히 일어나 70%의 오류율을 나타냈고 [아침#밥](아침밥)의 경우에는 오류율이 100%였다. 이것은 학습자가 합성어인 해당 어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합성어 사이시옷의 ‘집, 밥, 살’ 등이 모두 자립 명사로 이미 학습한 단어인데 명사와 명사의 결합인 합성어에서 사이시옷의 개재로 경음화를 시킨다는 것은 학습자에게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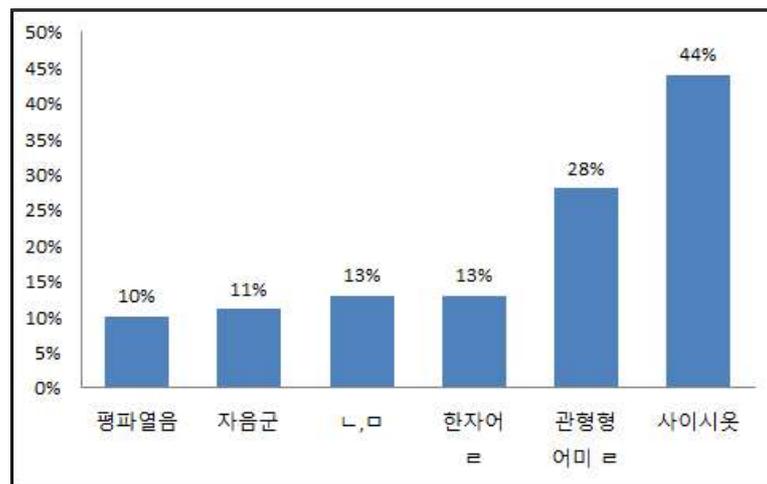
오류의 양상으로는 철자법대로 발음하며 [회#집], [아침#밥], [주름#살] 등과 같이 끊어 발음하여 경음화를 적용하지 못했으며 [회집]의 경우 경음을 격음으로 대치하기도 하였다. 특히 시간적 길이를 뜻하는 말 뒤에 연결되어 구를 형성할 때 ㅅ전치성으로 경음화를 일으키는 ‘동안’의 경우와 ㅅ후치성 형태소 ‘열’의 경우는 각각 25%의 오류율을 나타낸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선행명사나 후

행 명사들과의 결합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경음화를 적용하는 어휘도 학습자의 ‘ㄹ’받침 탈락과 끊어 발음하는 모국어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정 한자 형태소 ‘격(格)’의 한자어 ‘성격(性格)’도 오류의 원인이 같은 것과 반면에 ‘과(科)’와 ‘점(點)’ 등의 한자어, ‘교과(教科), 영점(零點)’등은 학습자가 한자어 어휘에 익숙하지 않아 나타난 오류일 것으로 보인다.

2. 낭독 실험

베트남인 학습자의 경음화 낭독 실험에서는 경음화 적용 환경 2,520건에서 오류는 510건으로 전체 80%의 실현율과 20%의 오류율을 차지하여 학습자들이 경음화 낭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⁵⁾ 각 유형별 전체 낭독 오류율은 다음과 같다.

<그림9> 낭독 실험 유형별 오류율



경음화 낭독 실험의 결과에서 합성어 사이시옷에서의 경음화가 44%로 가장 오류율이 높았고 그다음에 관형형 어미 ‘-(으)ㄹ’ 뒤에서의 경음화가 28%, 그다

35) 경음화 낭독 실험 결과는 각 경음화 유형에서 다른 연구 대상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신정애 (2005:70), 김정연(2018:69), 임소정(2019:69)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경음화 오류율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음에는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의 경음화와 한자어 ‘ㄹ’ 뒤의 경음화가 함께 13%를 나타냈으며 평파열음 자음군 경음화는 11%, 마지막으로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가 오류율 10%를 나타내어 낭독 실험에서 가장 오류율이 낮게 나타났다. 낭독 실험의 유형별 경음화 오류율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평파열음 < 평파열음 자음군 < 용언 어간 말 비음 < 한자어 ㄹ < 관형형 어미 ㄹ < 사이시옷

<그림9>를 보면 평파열음과 평파열음 자음군, 용언 어간말 비음, 한자어 ‘ㄹ’ 뒤에서의 경음화에서는 오류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관형형 어미 ‘-(으)ㄹ’ 뒤에서의 경음화와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가 오류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학습자들은 경음화 유형에서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를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베트남인 학습자가 모국어의 영향으로 음절 단위대로 끊어서 읽으려고 하며 특히 합성어인 사이시옷 환경의 경음화를 두 단어로 인식하여 끊어서 발음하여 생기는 오류라고 분석할 수 있다.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 규칙 인지에 대한 부족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김영선(2004:9)에서도 베트남인 학습자가 합성어에서의 경음화 발생의 여부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오류의 원인으로 꼽았다.

자유 발화 조사에서 가장 경음화 실현율이 높았던 관형형 어미 ‘-(으)ㄹ’ 뒤에서의 경음화는 낭독 실험에서 사이시옷에서의 경음화 다음으로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자유 발화에서는 학습자 개인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을 통해 경음화 발화에 성공한 것에 비하여 낭독 실험에서는 계획된 실험에서 학습자가 환경에 따라 경음화를 적용하여야 하는 차이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관형형 어미 ㄹ’ 뒤라는 환경과 후행하는 체언과의 결합에서 일어나는 경음화 규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낯선 어휘의 경우 어려워하나 실제 생활에서의 대화에서는 가장 일반적이고 난이도가 낮은 덩어리 표현을 사용하여 발화를 성공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나타난 결과도 있다. 바로 자유 발화 조사에서 오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의 경음화는 낭독 실험에서 비교적 낮은 오

류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의 경음화 실현 적용에 대해 학습자들은 문장을 낭독할 때는 어느 정도 인식하여 발화하였으나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대화를 구사할 때는 용언의 선택에 한계가 있어서 발화 빈도도 낮고 실수도 많이 일어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해 어휘의 폭을 넓혀 표현 어휘가 증가되는 것은 결국 풍부한 발화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는 필수적이고 규칙적이어서 자유 발화 조사와 낭독 실험에서 모두 오류율이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은 경음화 각 유형에서의 학습자별 실현율과 전체 실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6> 학습자별 경음화 낭독 실현율

피험자	평파열음	자음군	ㄴ, ㄹ	한자어 ㄹ	관형형 어미ㄹ	사이시옷	계
1	93.75	93.75	100	93.75	95.83	86.36	93.90
2	84.37	81.25	87.5	50	41.66	36.36	63.52
3	87.5	93.75	87.5	81.25	66.66	40.90	72.26
4	93.75	93.75	100	100	70.83	40.90	83.20
5	93.75	100	100	100	83.33	86.36	93.90
6	84.37	93.75	100	93.75	83.33	50	84.2
7	81.25	37.5	43.75	68.75	33.33	36.36	50.15
8	100	100	100	100	95.83	81.81	96.27
9	96.87	93.75	62.5	81.25	70.83	31.81	72.83
10	78.12	87.5	100	87.5	79.16	68.18	83.41
11	90.62	87.5	68.75	87.5	79.16	36.36	74.98
12	87.5	87.5	81.25	68.75	45.83	31.81	67.10
13	87.5	75	100	100	91.66	36.36	81.75
14	84.37	93.75	75	100	45.83	40.90	73.30
15	96.87	93.75	81.25	75	70.83	63.63	80.22
16	84.37	87.5	81.25	62.5	58.33	54.54	71.41
17	96.87	87.5	93.75	87.5	70.83	68.18	84.10
18	93.75	100	100	100	100	90.90	97.44
19	90.62	81.25	87.5	100	66.66	68.18	82.36
20	100	100	100	93.75	87.5	68.18	91.57
평균	90.3	88.43	87.5	86.56	71.87	55.9	80.42

낭독 실험에서 경음화 실현율을 가장 높게 나타낸 학습자의 경우는 97.44%로

90%이상 실현한 학습자가 5명이며, 제일 낮게 실현한 학습자의 실현율은 50.15%로 70%이하의 실현율을 나타낸 학습자는 총 3명에 불과하다. 관형형 어미 ‘-(으)ㄴ’ 뒤에서의 경음화에서 한 명의 피험자만이 100%의 실현율을 보이고 오류율이 비교적 높은 관형형 어미 ‘-(으)ㄴ’ 뒤에서와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에서는 전반적으로 실현율이 낮음을 볼 수 있다.

경음화 실현율도 비교적 높고 실현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평파열음 자음군 뒤의 경음화와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의 경음화, 한자어 ‘ㄴ’ 뒤의 경음화의 경우에는 100% 경음화 실현에 성공한 학습자의 수가 4명, 9명, 7명이다. 특히 한자어 ‘ㄴ’ 뒤의 경음화를 완벽하게 성공시킨 학생 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경음화 실현율이 가장 높은 평파열음 뒤에서의 경음화에서는 100% 실현에 성공한 피험자가 2명뿐이었다. 이것은 피험자들이 가장 쉽게 적용하는 경음화이지만 후행하는 어미나 조사와의 결합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발화할 때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이라도 완벽하게 경음화를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은 경음화의 각 유형에서 피험자들의 경음화 실현 양상을 통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다.

2.1.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

평파열음 뒤 경음화에서 학습자들의 경음화 실현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17> 평파열음 뒤 경음화 실현 양상

구분	실현 양상 예시		실현율
단어 내부	접수	접쑤(97.5%), 첩쑤(2.5%)	89.2%
	합격	합꺀(100%)	
	엣그제	연꺀제(85%)	
	이력서	이력쑤(67.5%), 이력쑤(2.5%)	
	박수	박쑤(80%), 뺑쑤 5 빠쑤(2.5%) 팍쑤(2.5%)	
	갑자기	갑짜기(72.5%), 갑짜기(10%), 갑짜키(5%), 갑짜끼(7.5%)	
체언+조사	앞드려	업뜨려(45%), 업뜨려(32.5%)	86.8%
	발도	받또(92.5%) 받꼬(7.5%)	
	집도	집또(77.5%), 칩또(20%)	

	입학부터	이팍부터(72.5%)	
	소식보다	소식뵤다(62.5%), 쏘식뵤다(15%)	
용언+어미	씩고	씩꼬(85%) 석꼬(15%)	94.5%
	곱고	곱꼬(85%) 곱꼬(7.5%)	
	묻고	묻꼬(95%)	
	녹지	녹찌(85%)	
	쉽다	쉽따(100%)	

위의 <표17>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전체 평과열음 뒤의 경음화에서 큰 어려움 없이 경음화 실현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접수, 합격, 밭도, 썩고, 쉽다’의 경우에는 학습자 모두 경음화를 실현했다. 용언과 어미의 결합형에는 94.5% 경음화를 실현했고 단어 내부는 89.2%,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에서는 86.8%의 실현율을 나타내어 학습자들이 용언과 어미의 결합에서 경음화 실현을 잘 적용하여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은 [칩쑤], [괵쑤], [갑짜기], [칩또]와 같이 선행 음절의 초성을 격음으로 대치하여 발음하거나 [이려쑤]와 같이 경음화의 환경인 ‘ㄱ’을 탈락하고도 경음화를 실현하는 양상을 보였다. ‘갑자기’의 경우는 95%의 실현율을 보였으나 실현 양상은 [갑짜기], [갑짜기], [갑짜끼], [갑짜끼]와 같이 매우 다양한데 이것은 베트남인 학습자들에게 평음과 경음, 그리고 격음을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는 원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학습자들은 체언과 조사, 그리고 용언과 어미의 결합에서 후행하는 조사나 어미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어미 ‘-고’는 용언 어간 ‘ㄱ, ㄷ, ㅂ’에서 모두 95% 이상의 실현율을 보였으나 ‘-지’는 85%를 나타내어 학습자들이 ‘-고’를 더욱 쉽게 실현함을 알 수 있었다. 또 조사 ‘도’와의 결합은 98.5%가 넘게 나타난 것에 비하여 ‘보다’, ‘부터’의 결합은 75%의 실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의 음절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일 음절 조사의 경우 선행 명사와의 긴밀도가 더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³⁶⁾

36) 배영환(2017:364)에서는 일 음절 조사의 경우 선행 명사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반면 이 음절 조사의 경우 선행 명사와 상대적으로 이완되어 경음화 실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표18> 평파열음 뒤 경음화 오류 양상

구분	오류 양상	
단어 내부	엣그제	엣크제(15%)
	이력서	이력서(2.5%), 이력서(27.5%)
	박수	박수(2.5%)
	갑자기	갑차기(5%)
	엣드려	엣트려(7.5), 엣트려(2.5%), 엣트려(7.5%), 엣드려(2.5%), 엣드려(2.5%),
체언+조사	집도	지도(2.5%)
	입학부터	이팍부터(25%), 이팍부터(2.5%)
	소식보다	소식보다(22.5%),
용언+어미	곶고	곶코(7.5%)
	묻고	묻코(5%)
	녹지	노치(5%), 녹치(10%),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 오류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철자법대로 읽은 것과 경음을 격음으로 실현하여 오류를 나타낸 것이다. 용언과 어미의 결합형에서는 오류가 모두 경음을 격음으로 발음하여 경음화에 실패하였으며 단어 내부에서는 ‘엣그제’와 ‘갑자기’를 [엣크제]와 [갑차기]로 발음하는 학습자가 있었다. 특히 ‘엣드려’는 9명의 학습자가 [엣트려], [엣트려], [엣트려], [엣드려], [엣드려]로 다양하게 발음하여 베트남 학습자가 단모음과 이중 모음의 구분을 어려워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 실험 대상자 중 한 명은 [이력서], [지도]와 같이 경음화 환경의 중성을 탈락하여 발음하고 경음화 실현에 실패하였다.

2.2. 평파열음 자음군 뒤의 경음화

<표19> 평파열음 자음군 뒤 경음화 실현 양상

구분	실현 양상		실현율
ㄹ	읽고	일꼬(37.5%), 익꼬(55%)	91.6%
	읽지	익찌(60%), 일찌(35%)	
	맑다	막따(40%), 말따(47.5%)	
ㄴ	가라얏게	가라안게(82.5%)	82.5%
ㄹ	얏게	얏께(87.5%), 압께(10%)	93.75%
	뵤지	뵤찌(10%), 발찌(77.5%), 빨찌(2.5%)	
ㄹ	할고	할꼬(67.5%), 할꼬(20%)	87.5%
ㅂ	깁비싼	깁뵤싼(65%), 깁뵤싼(10%), 깁뵤싼(2.5%)	77.5%

평파열음 자음군 뒤에서의 경음화 실현은 낭독 실험 결과에서 89%의 실현율을 나타냈다. <표19>을 보면 학습자들은 자음군을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경음화 실현에 성공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뵤지’의 경우에는 36건의 경음화 실현 빈도 중에 [뵤찌]라고 정확하게 발음하여 경음화를 실현한 경우가 4건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발찌], [빨찌]로 발화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깁비싼’의 경우에도 ‘비’를 [뵤]로 모두 경음화하였지만 앞 음절과 후행 음절을 ‘깁뵤싼, 깁뵤싼’ 과 같이 모두 경음과 격음으로 대치하여 발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자음군 발음의 규정에서 언급한 ‘예외 항목’의 발음도 <표19>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먼저 자음군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으로 발음한다. 그러나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하는 것을 ‘읽고’를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읽고[일꼬]’를 [일꼬]로 제대로 발음한 경우는 37.5%이고, [익꼬]로 발음한 경우는 55%이었으며 ‘맑다[막따]’의 경우에도 [막따]로 맞게 발음한 경우는 40%, [말따]로 잘못 발음한 경우가 47.5%로 더 많이 차지했다. ‘읽지[익찌]’의 경우에도 [일찌]로 35%가 발음하였다. 또 자음군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으로 발음하는데 ‘뵤-’은 자음 앞에서 [뵤]으로 발음하여야 한다. 위 표에서 ‘얏게’와 ‘뵤지’의 실현 양상을 보면, ‘얏게[얏께]’는 [압께]로 10%만 실현하고 대부분 [얏께]로 제대로 발음한 반면 ‘뵤지[뵤찌]’는 10%만이 [뵤찌]로 제대로 발음하고 77.5%는 [발찌]로 발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자음군 원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속적인

자음군 교육의 필요와 함께 자음군 단순화 원리의 이해는 경음화 적용과도 관계가 있어서 학습자의 경음화 실현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20> 평파열음 자음군 뒤 경음화 오류 양상

구분	오류 양상	
ㄹ	읽고	익코(7.5%)
	읽지	익치(5%)
	말다	말다(7.5%), 막타(5%),
ㄴ	가라앉게	가라안게(5%), 가라안케(12.5%)
ㄹ	얹게	얹케(2.5%)
	밭지	밭치(10%)
ㄹ	할고	할고(5%), 할코(7.5%)
ㅂ	값비싼	값비싼(12.5%), 캡비싼(5%), 갑피싼(5%)

평파열음 자음군 뒤의 경음화에서 오류 양상은 전체적으로 경음을 격음으로 발음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익코], [익치], [막타]의 경우는 자음군의 발음을 결정하여 선행 음절의 종성이 ‘ㄱ’이었음에도 경음화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평파열음 자음군 단순화의 규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경음화 오류율은 ㄹ < ㄹ < ㄹ < ㄴ < ㅂ 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자유 발화 조사에서도 자음군 ‘ㄹ’은 오류율 0%를 나타냈고, ‘ㄴ’은 33%로 가장 높은 오류율을 나타낸 것을 볼 때 학습자들이 ‘ㄹ’ 자음군을 비교적 쉽게 경음화를 실현하고 ‘ㄴ’ 자음군을 어려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ㅂ’의 ‘값비싼’의 경우에는 자유 발화 조사에서의 ‘없다’와는 다르게 오류율의 차이와 오류 양상도 다양한데 이것은 단어마다 실현율의 편차가 있음을 나타낸다.

2.3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의 경음화

<표21> 용언 어간 말 비음 뒤 경음화 실현 양상

구분	실현 양상		실현율
ㄴ	껴안고	껴안꼬(77.5%), 겨안꼬(12.5%)	86.25
	신지	신찌(82.5%)	
ㄹ	감고	감꼬(92.5%), 꺾꼬(5%)	82.5%
	다듬던	다듬뎐(65%), 따듬뎐(10%)	
	폼지	폼찌(75%)	
ㄷ	삶고	삼꼬(47.5%), 째꼬(37.5%), 살꼬(10%)	92.5%
	삶지	삼찌(35%), 째찌(35%), 살찌(20%)	
	접게	접께(52.5%), 절께(35%), 접께(5%)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의 경음화는 낭독 실험에서 87%의 경음화 실현율을 나타냈다. 먼저 어간 말음이 ‘ㄴ’인 경우와 ‘ㄹ’인 경우, 그리고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용언 어간 말 비음인 ‘ㄷ’으로 나누어 결과를 살펴보았다. 실현율은 어간 말음 ‘ㄷ’이 92.5%로 가장 높았고 ‘ㄴ’이 86.5%, ‘ㄹ’이 82.5%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자음군 ‘ㄷ’에 실현율이 높은 것이다. 물론 자유 발화에서도 ‘ㄷ’의 실현율이 가장 높았지만 앞서 살펴 본 평파열음의 경우와 평파열음 자음군의 경우에는 평파열음과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야 하는 자음군에서의 실현율이 더 낮았던 것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용언 어간 말 비음에서는 자음군 환경이 경음화 실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한결(2017:42)에서도 외국인 학습자들은 자음군을 발음할 때 받침을 더 세게 소리 내면서 뒤 소리가 자연스럽게 경음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용언 ‘삼고’와 ‘삶고’를 비교하여보면 ‘삼고’는 표면적으로 볼 때 경음화의 환경으로 보이지 않아서 [삼고]로 표기대로 읽을 가능성이 있으며 ‘삶고’는 선행 음절이 자음군이라는 이유로 뒤 소리를 더 세게 하여 [삼꼬] 또는 [살꼬]로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선행하는 어간과 후행하는 어미에 따른 양상도 살펴보았는데 어간 말 비음에 ‘-고’가 결합한 ‘껴안고’, ‘감고’, ‘삶고’는 평균 94%가 넘는 경음화 실현율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지’나 ‘-던’이 결합한 ‘신지’, ‘폼지’, ‘다듬던’의 경우에는 77.5%의 실현율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배영환(2017:365)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용언 어간 말 비음 환경에서 ‘-지’는 거의 모든 학습자가 [찌]로 경음화 실현을 하였으나 ‘-고’에서는 [고], [꼬], [꾸] 등 여러 오류 양상을 보였다고

했는데 위의 결과와 비교할 만하다.

<표21>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학습자들은 경음화 실현에 성공하였으나 여전히 어두 초성을 경음이나 평음으로 대치하여 발음하였고 자음군에서는 자음군 중에 어떤 자음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상관없이 후행 어미를 경음화 시키는 예가 많았다. 특히 한 학습자는 ‘줍게’를 두 번 모두 [접게]로 발음하여 어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자음군 뒤 자음을 ‘ㅂ’으로 인지하여 경음화를 적용시킨 예도 있었다.

<표22> 용언 어간 말 비음 뒤 경음화 오류 양상

구분	오류 양상	
ㄴ	껴안고	껴안고(2.5%), 꺾안코(2.5%), 겨안고(2.5%), 겨안코(2.5%)
	신지	신지(10%), 신치(7.5%)
ㄹ	감고	감코(2.5%)
	다듬던	다듬던(25%)
	폼지	폼지(7.5%), 폼치(17.5%)
ㄹ	삼고	삼코(5%)
	삼지	삼지(2.5%), 삼치(5%), 살치(2.5%)
	줍게	접게(7.5%)

오류 양상은 [껴안고], [신지], [다듬던]과 같은 철자법대로 읽기와 [껴안코], [신치], [감코], [폼치], [삼코], [삼치] 등과 같이 경음을 격음으로 대치하여 발음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폼지’를 [폼치]로 발음한 경우가 7건으로 비교적 많았는데 이것은 ‘폼지’의 어간 말 ‘폼-’의 초성이 격음인 것과 관계가 없지 않은 듯하다. ‘껴안고’의 오류 양상을 보면 전체 피험자의 경음화 오류율은 높지 않으나 실현 양상에서도 [겨안꼬]로 발음한 경우가 5건으로 피험자들 중에는 단어라도 인지하지 못하고 평음과 경음, 격음을 혼란스러워 하여 생긴 오류들이라고 볼 수 있다. 실례로 피험자 중에 유독 경음화를 어려워한 한 명은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의 경음화에서 ‘신지’ 하나만 경음화를 실현하고 모두 오류를 보였다. 그리고 [다듬던]과 [접게],[겨안고]를 제외한 모든 해당 어휘를 격음으로 발음하여 경음화 실현에 실패한 것을 들 수 있다.

2.4. 한자어 ‘ㄹ’ 뒤의 경음화

<표23> 한자어 ‘ㄹ’ 뒤 경음화 실현 양상

구분	실현 양상		실현율
ㄹ+ㄷ	발달	발달(85%), 빨달(7.5%), 바달(5%)	96.6%
	갈등	갈등(80%), 깔등(15%), 가등(2.5%)	
	절대	절대(92.5%), 전대(2.5%)	
ㄹ+ㅅ	출산	출산(87.5%), 출쌀(5%)	85%
	필수	필쑤(92.5%)	
	달성	달쌩(70%)	
ㄹ+ㅈ	열정	열쌩(72.5%), 연쌩(5%)	75%
	실제	실쌩(72.5%)	

한자어 ‘ㄹ’ 뒤의 경음화는 낭독 실험에서 87%의 실현율을 나타내어 학습자들이 비교적 경음화를 잘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3>을 보면 한자어 내부에서 ‘ㄹ’과 ‘ㄷ’이 연결된 한자어의 경음화 실현이 96.6%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ㄹ’과 ‘ㅅ’의 결합된 한자어는 85%로 나타났다. ‘ㄹ’과 ‘ㅈ’이 결합한 한자어는 75%의 실현율을 보여 학습자들이 한자어 ‘ㄹ’과 ‘ㅈ’의 결합을 좀 더 어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자유 발화 조사에서도 ‘ㄹ’과 ‘ㄷ’이 연결된 한자어는 오류 없이 100% 경음화 실현을 한 것과 학습자들이 ‘ㄹ’과 ‘ㅈ’의 결합을 가장 어려워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ㄹ’과 ‘ㅅ’의 결합인 ‘달성’의 경음화 실현율이 70%로 가장 낮은 것은 자유 발화 조사에서 ‘ㄹ’과 ‘ㅅ’의 결합인 ‘열심’이 경음화 실현 100%로 다른 한자어와 차이를 보인 것과 같은 예로서 출현 빈도와 난이도로 인한 단어마다 실현율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자어 ‘ㄹ’ 뒤의 경음화에서 실현 양상은 대부분 ‘ㄹ’ 뒤의 초성을 경음화 시키는데 성공하였고, [빨달], [깔등]과 같이 선행 음절의 초성을 경음으로 발음하거나 소수의 피험자들은 [바달], [가등]과 같이 ‘ㄹ’을 탈락하고 경음화를 실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전대]와 [연쌩]과 같이 ‘ㄹ’을 ‘ㄴ’으로 대체하여 발음하면서 경음화는 실현시킨 예도 볼 수 있다.

<표24> 한자어 ‘ㄹ’ 뒤 경음화 오류 양상

구분	오류 양상	
ㄹ+ㄷ	발달	발달(2.5%)
	갈등	가등(2.5%)
	절대	절대(2.5%), 전대(2.5%)
ㄹ+ㅅ	출산	출산(7.5%)
	필수	필수(5%), 피수(2.5%)
	달성	달성(30%)
ㄹ+ㅈ	열정	열정(22.5%)
	실제	실제(17.5%), 실제(5%), 신체(5%)

한자어 ‘ㄹ’ 뒤 경음화의 오류 양상은 주로 철자법대로 발음하는 것이다. 즉, 음절 형태대로 발음한 것으로 전체 오류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는 소수의 피험자의 양상인데 특히 [달성], [열정], [실제]의 오류율은 비교적 높았다. 이것은 한자어의 난이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피험자 한 명은 한자어 ‘ㄹ’을 탈락하고 [가등], [피수]로 발음하여 경음화 실현에 실패하였고 ‘ㄹ’을 ‘ㄴ’으로 대치하여 [절때]를 [전대]로 발음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실제’의 오류 양상은 좀 다양하다. 오류율이 비슷한 ‘달성’의 실현 양상과 비교해 볼 때 [실제]와 [실체], [신체]로 나타났는데 철자법대로 발음하기 이외에도 다른 경음화 환경에서의 주요 오류 양상인 경음의 격음 대치와 ‘ㄹ’의 ‘ㄴ’ 대치가 모두 나타난 것이다. 학습자에게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때 베트남인 학습자의 모국어의 습관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달성’의 경우에는 ‘ㅅ’을 격음으로 대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5. 관형형 어미 ‘ㄹ’ 뒤의 경음화

<표25> 관형형 어미 ‘ㄹ’ 뒤 경음화 실현 양상

구분	실현 양상		실현율
의존 명사	할 수	할쑤100%	67.14%
	먹을 것이	머글꺼시(30%), 머끌꺼시(50%), 머끈꺼시(5%)	
	올 줄	올쫌(50%)	

	그럴 줄	그럴쥌(37.5%)	
	어찌할 바	어찌할빠(22.5%)	
	의지할 데	의지할떼(95%)	
	먹을 거야	머글꺼야(45%), 머끌꺼야(27.5%), 머근꺼야(5%), 머꺼야(2.5%)	
자립 명사	먹을 사람	머글싸람(27.5%), 머끌싸람(35%), 머근싸람(7.5%)	70%
'ㄹ' 어말 어미	올지라도	올찌라도(55%), 오피라도(5%)	80.62%
	갈수록	갈쑤룩(70%), 깔쑤룩(10%), 칼쑤룩(5%)	
	할지	할찌(80%)	
	공부 할걸	공부할걸(97.5%)	

관형형 어미 'ㄹ' 뒤에 오는 체언으로 의존 명사와 자립 명사가 올 때, 그리고 'ㄹ' 어말어미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각의 환경별 경음화 실현율은 'ㄹ' 어말어미 경우가 80.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립 명사와의 결합이 70%, 의존 명사와의 결합이 67.14%로 나타났다.

관형형 어미 'ㄹ' 뒤의 의존 명사의 초성은 항상 경음화하는 것으로서 수의적으로 경음화가 일어나는 자립 명사의 결합보다 경음화 실현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각 어휘의 실현율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는데 먼저 '할 수'의 경우는 피험자 전원이 경음화를 실현하였으며 '의지할 데'의 경우도 95%로 경음화를 잘 실현하였다. 그러나 '올 줄', '그럴 줄'은 50%, 37.5%의 실현율을 나타내어 같은 의존 명사라도 선행하는 용언의 난이도에 따라 적용에 차이를 보였으며, '어찌할 바'는 22.5%만이 경음화 실현에 성공하였다. 이것은 의존 명사와의 결합이라도 '할 수'는 초급 때부터 '할 수 있다/없다'로 학습하고 교재와 일상생활에서 출현하는 빈도가 높음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어찌할 바'의 경우에는 평소에 사용하는 빈도가 낮은 이유로 학습자들이 어려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먹을 거야'는 [머글꺼야] 이외에도 [머끌꺼야], [머근꺼야]라고 발음하여 경음화를 실현하기도 했는데 한 명은 [머꺼야]로 발음하기도 했다. 베트남 학습자들이 '갈 거야'를 [갈꺼야]가 아닌[가꺼야]로 'ㄹ'을 탈락하여 발음 하듯이 '을'을 탈락하고 [머꺼야]로 발음한 경우로 보인다.

관형형 어미 'ㄹ'로 시작하는 어말어미는 피험자들이 하나의 단어로 인식해 실

현율이 비교적 높았는데 ‘갈수록’의 어두 초성을 경음과 격음으로 발음하여 [갈쑤록], [칼쑤록]이라고 발음한 학생이 두 명 있었다.

<표26> 관형형 어미 ‘ㄹ’ 뒤 경음화 오류 양상

구분	오류 양상	
의존 명사	먹을 것이	머글거시(7.5%), 머끈거시(2.5%), 머클거시(2.5%), 머끌거시(2.5%)
	올 줄	올줄(22.5%), 올출11(27.5%)
	그럴 줄	그럴줄(45%), 그런줄(7.5%), 그럴출(10%)
	어찌할 바	어찌할바(70%), 어찌할파(2.5%), 어찌로바로(2.5%), 머찌말바(2.5%)
	의지할 데	의지할데(5%),
	먹을 거야	머글거야(17.5%), 머근거야(2.5%)
자립 명사	먹을 사람	머근사람(2.5%), 머글사람(12.5%), 머끈사람(10%), 머끌사람(2.5%), 멍는사람(2.5%)
‘ㄹ’ 어말 어미	올지라도	올지라도(25%), 올치라도(15%)
	갈수록	갈쑤록(15%)
	할지	할지(15%), 할치(5%)
	공부할 걸	공부할걸(2.5%)

관형형 어미 ‘ㄹ’ 뒤 경음화의 보편적인 오류 양상은 ‘먹을 것이[머글거시]’를 [머글 거시]로 ‘올 줄[올쑤]’을 [올 줄], ‘어찌할 바[어찌할빠]’를 [어찌할 바]로 띄어쓰기로 발화하여 경음화 실현에 실패한 것이다. 또한 ‘올 줄’의 경우에는 [올출]로 발음한 것이 [올 줄]로 발화한 것 보다 많고 ‘그럴 줄’도 [그럴출]로 경음화 시켜 발음한 피험자가 4명이 있었다. 오류율이 가장 높은 ‘어찌할 바’의 경우는 [어찌할바] 이외에도 [어찌할파], [어찌로바로], [머찌말바]와 같이 발화하여 소수 학습자는 이 규칙과 어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올지라도’를 [올치라도], ‘할지’를 [할치]로 발화한 경우도 사례도 여전히 있지만 관형형 어미 ‘ㄹ’로 시작하는 어말어미는 단어 내부의 경음화이기 때문에 의존 명사와 자립 명사와의 결합과 같이 단어 경계에서의 경음화보다 학습자의 오류율이 낮았다.

2.6. 합성어 사이시옷에서의 경음화

<표27> 사이시옷에서의 경음화 실현 양상

구분	실현 양상		실현율
의미 관계	한밤중	한밤쫑(52.5%)	50.83%
	보름달	보름달(30%)	
	일자리	일짜리(47.5%)	
	빗방울	빈빵울(52.5%), 뽀빵울(12.5%), 핀빵울(2.5%)	
	방바닥	방빠닥(35%), 빵빠닥(15%)	
	비빔밥	비빔뽀(52.5%), 뽀빔뽀(5%)	
특정 형태소 (사이시옷)	요리법	요리뽀(55%)	62%
	물가	물까(77.5%)	
	눈길	눈낄(75%)	
	공통점	공통뽀(52.5%)	
	심술보	심쑤뽀(45%) 쑤쑤뽀(5%)	

합성어 사이시옷에서의 경음화는 사이시옷의 개재를 통한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로 베트남 학습자들의 경음화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낭독 실험 결과에서도 유형별 경음화 실현에서 44%로 가장 높은 오류율을 나타냈다. <표27>은 사이시옷 경음화를 의미 관계로 사이시옷이 개입되는 경우와 항상 사이시옷을 동반하는 특정 형태소로 나누어 실현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경음화 실현율은 단어마다 어느 정도 편차가 있지만 항상 사이시옷을 동반하는 특정 형태소의 경우는 62%를 나타냈고 의미 관계에 의한 경음화 실현은 50.83%를 나타냈다. 이것은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항상 경음화가 일어나는 특정 형태소가 포함된 경우의 단어를 학습자들이 의미 관계의 합성어보다 더 용이하게 습득하고 기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강가’를 학습할 때 ‘물가, 길가, 바닷가, 냇가’ 등을 함께 학습하고, ‘눈길’의 발음을 연습할 때 ‘골목길, 밤길, 자갈길, 빗길’ 등을 학습하며 합성어의 환경에서 항상 경음화가 일어나는 형태소로 기억하여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미 관계에서는 30%에서 60%의 실현율이 나타나 ‘빗방울’은 67.5%로 실현율이 가장 높았다. 이것은 ‘빗’의 ‘ㅈ’이 평과열음으로 경음화를 실현한 것으로 보

이다. 또 ‘보름달’은 30%의 실현에 그쳤는데 피험자 20명 중에서 두 번의 ‘보름달’을 완벽하게 발화한 사람은 두 명 뿐이어서 사이시옷에서의 경음화가 학습자들에게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표28> 사이시옷에서의 경음화 오류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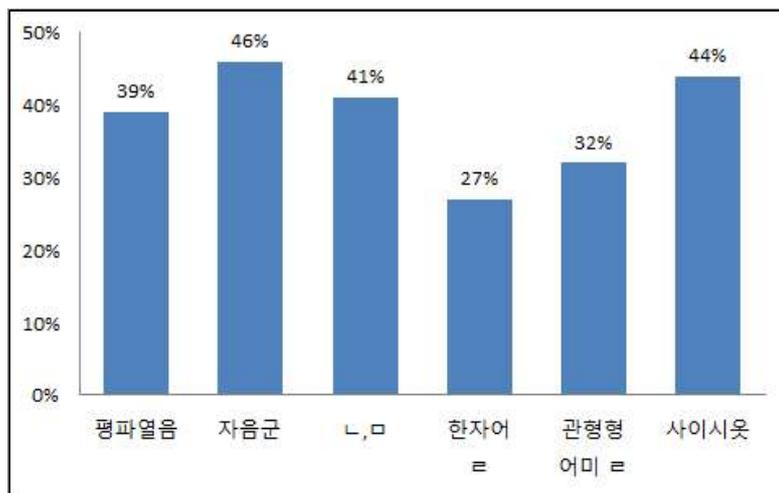
구분	오류 양상	
의미 관계	한밤중	한밤중(47.5%)
	보름달	보름달(70%)
	일자리	일자리(42.5%), 일차리(10%)
	빗방울	빈방울(15%), 빈팡울(12.5%), 비방울(5%)
	방바닥	방바닥(45%), 방파닥(2.5%), 방파딱(2.5%)
	비빔밥	비빔밥(37.5%), 피빔밥(5%)
특정 형태소	요리법	요리법(40%), 요리핍(5%)
	물가	물가(20%), 물카(2.5%)
	눈길	눈길(7.5%), 눈킬(17.5%)
	공통점	공통점(37.5%), 공통침(7.5%), 고통침(2.5%)
	심술보	심술보(45%), 심보(2.5%), 쌤술보(2.5%)

<표28>을 보면 사이시옷에서의 경음화 해당 어휘들은 ‘물가’와 ‘눈길’을 제외하고 오류율 40%이상 70%까지 비교적 높은 오류율을 보이고 있다. 오류 양상은 일반적으로 철자법대로 읽는 오류로 학습자들은 합성어를 두 단어로 인식하여 읽은 것으로 보인다. 또 [일차리], [빈팡울], [눈킬], [공통침]과 같이 후행하는 형태소의 초성을 격음으로 발음하는 사례가 거의 모든 어휘에서 나타났다. 또 ‘비빔밥’은 선행 음절의 초성을 격음으로 발음하여 [피빔밥]이라고 발화하였으며, ‘빗방울’, ‘공통점’은 [비방울], [고통침]으로 선행 음절의 중성을 탈락시키고 발화하기도 하였다. 학습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 ‘심술보’는 대부분 철자법대로 읽고 [심보], [쌤술보]와 같이 발화한 사람도 있어 학습자가 전혀 모르는 단어임을 알 수 있었다.

3. 인지 실험

베트남인 학습자가 경음화 적용 환경에서 규칙을 잘 인지하여 경음화 실현에 성공하는지 알기위한 인지 실험은 전체 980건의 실현 환경에서 총372건의 오류가 나타나 오류율 38%를 차지했다. 오류율 20%를 나타낸 낭독 실험의 결과에 비하여 높은 오류율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낭독 실험에서 경음화 실현에 성공하면 선행 음절이나 인접하는 음절의 발음이 부정확해도 오류로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달리 인지 실험은 경음화뿐만 아니라 해당 어휘의 올바른 발음을 고르도록 하였기 때문에 오류율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경음화 규칙의 인식은 있지만 자음군의 발음을 결정하는 것이나 인접 음절들에 대한 습관적인 발음의 오류는 여전히 학습자들에게 부담이 되어 인지 실험에서 올바른 발음을 찾는 데 어려움을 보인 것이다. 인지 실험 결과의 오류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10> 인지 실험 유형별 오류율



<그림10>에서 확인하듯이 인지 실험에서 오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유형은 평파열음 자음군 뒤의 경음화로 46%의 오류율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합성어 사이시옷에서의 경음화가 44%의 오류율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의 경음화가 41%,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가 39%의 오류율을 나타냈으며 관형형 어미 ‘-(으)ㄹ’ 뒤에서의 경음화와 한자어 ‘ㄹ’ 뒤의 경음화는 각각 32%,

27%를 나타내어 비교적 낮은 오류율을 보여주었다. 각 유형별 경음화 실현 오류율을 순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한자어 ㄹ < 관형형 어미 ㄹ < 평파열음 < 용언 어간 말 비음 < 사이시옷 < 평파열음 자음군

오류율의 순서를 통해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경음화 규칙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평파열음 자음군 뒤의 경음화인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유 발화 조사와 낭독 실험 결과에서 낮은 오류율을 보였던 평파열음 자음군 뒤의 경음화가 인지 실험에서는 높은 오류율이 나타난 것은 자음군 단순화를 통한 자음 선택의 오류와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뱃지’의 경우에 [밭찌]라고 후행 어미를 경음으로 발음하였지만 자음군 발음 오류를 보인 피험자는 10명이며, [뱃찌]라고 올바르게 발음한 경우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지 실험에서는 한자어 ‘ㄹ’ 뒤의 경음화와 관형형 어미 ‘-(으)ㄹ’ 뒤에서의 경음화, 그리고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가 낮은 오류율을 차지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오류율이 낮았던 자유 발화 조사와의 결과와 같은 것이 의미 있는 부분이다. 낭독 실험에서도 한자어 ‘ㄹ’ 뒤의 경음화와 그리고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는 오류율이 낮았지만 관형형 어미 ‘-(으)ㄹ’ 뒤에서의 경음화는 사이시옷에서의 경음화 다음으로 오류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통해 학습자들이 관형형 어미 ‘-(으)ㄹ’ 뒤에서의 경음화 규칙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낭독 실험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어휘를 발화할 때에 끊어서 발화하거나 경음을 대치하여 발화하는 오류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또 자유 발화에서는 학습자 스스로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어휘를 사용하여 발화를 실현하였기 때문에 오류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경음화 규칙 인지에 대한 부분보다 어휘가 오류의 변인이 된 것이다. 인지 실험 결과에서 경음화의 실현은 각 유형별 분석에서 더 살펴볼 것이며 다음은 학습자별 경음화 각 유형에서의 인지 실현율과 전체 실현율을 살펴보겠다.

<표29> 학습자별 경음화 인지 실현율

피험자	평파열음	자음군	ㄴ, ㄹ	한자어 ㄹ	관형형 어미 ㄹ	사이시옷	계
1	44.44	66.66	71.42	100	90	40	68.75
2	22.22	33.33	14.28	0	10	0	12.24
3	77.77	50	71.42	100	90	70	77.55
4	88.88	66.66	100	100	100	90	91.83
5	33.33	50	28.57	28.57	40	10	30.61
6	11.11	33.33	14.28	0	20	0	12.24
7	44.44	83.33	14.28	71.42	60	20	46.93
8	88.88	66.66	85.71	100	100	80	87.75
9	44.44	33.33	57.14	85.71	70	50	57.14
10	22.22	16.66	28.57	57.14	40	50	36.73
11	100	66.66	100	100	100	100	95.91
12	33.33	33.33	28.57	14.28	10	20	22.44
13	66.66	33.33	57.14	100	80	40	63.26
14	77.77	66.66	42.85	71.42	70	80	69.38
15	77.77	33.33	71.42	71.42	50	60	61.22
16	77.77	83.33	85.71	85.71	100	80	85.71
17	77.77	66.66	57.14	100	100	80	81.63
18	33.33	50	85.71	100	70	70	67.34
19	100	66.66	71.42	71.42	70	90	79.59
20	100	83.33	85.71	100	100	90	93.87
평균	61	54	59	73	68	56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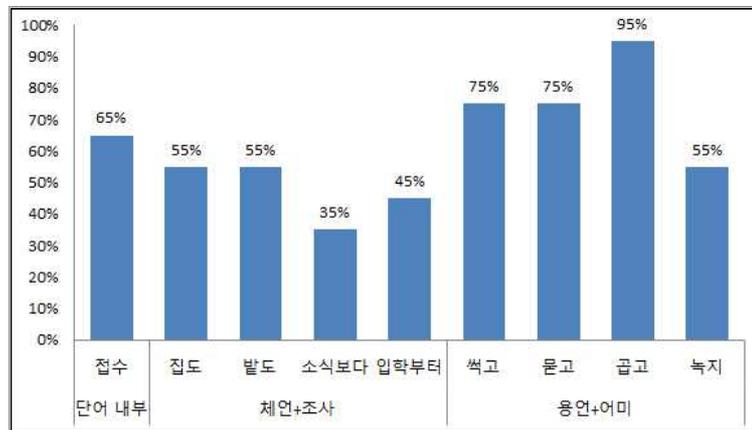
<표29>을 보면 인지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의 편차는 매우 크다. 경음화 인지 실험율은 전체 62%인데 90%이상의 실험을 보인 피험자가 3명이며 20%대 이하의 실험율을 나타낸 피험자도 3명이 된다. 학습자들의 인지 오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한자어 ‘ㄹ’뒤의 경음화의 경우는 100% 실험을 한 학습자는 9명이나 되는데 반하여 피험자 2번과 6번의 경우에는 한자어 7개 모두 틀려 실험율 0%를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다. 피험자 2번과 6번은 관형형 어미 ‘-(으)ㄹ’ 뒤에서의 경음화도 실험율 0%로 전체 경음화 실험 12.24%를 나타냄으로 경음화 유형별 규칙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특히 한자어나 사이시옷 환경의 경음화와 같이 단어 내부의 경음화에 대해 전혀 습득이 안 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경음화 실험 95.91%를 얻은 피험자 11번도 두 개의 오류를 평파열음 자

음군에서 나타났고, 피험자 중에 평파열음 자음군 뒤의 경음화를 100% 실현한 경우가 없는 것과 또 50%이하의 실현율을 나타낸 피험자가 10명인 것으로 보아 학습자들이 평파열음 자음군에 대해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한자어 ‘ㄹ’ 뒤에서의 경음화는 낭독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100% 실현에 성공한 피험자가 많아 인지 실현율에 비례한 낭독 실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1.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

<그림11> 평파열음 뒤 경음화 인지 실현율



<표30> 평파열음 뒤 경음화 오류 양상

접수	접수(35%)
발도	발도(15%), 받도(15%), 받토(15%)
집도	집도(25%), 칩도(5%), 칩또(15%)
입학부터	이팍부터(45%), 입학부터(5%), 입학뿌터(5%)
소식보다	소식보다(50%), 소식포다(5), 소씨뽀다(10)
썩고	썩고(15%), 석꼬(5%), 석코(5%)
문고	문고(10%), 무코(5%), 문코(10%)
곱고	곱고(5%)
녹지	녹지(25%), 노찌(10%), 녹치(10%)

<그림11>은 인지 실험에서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 실현을 단어 내부와 체언과 조사의 결합, 그리고 용언과 어미의 결합으로 나누어 본 것이고 <표30>은 오류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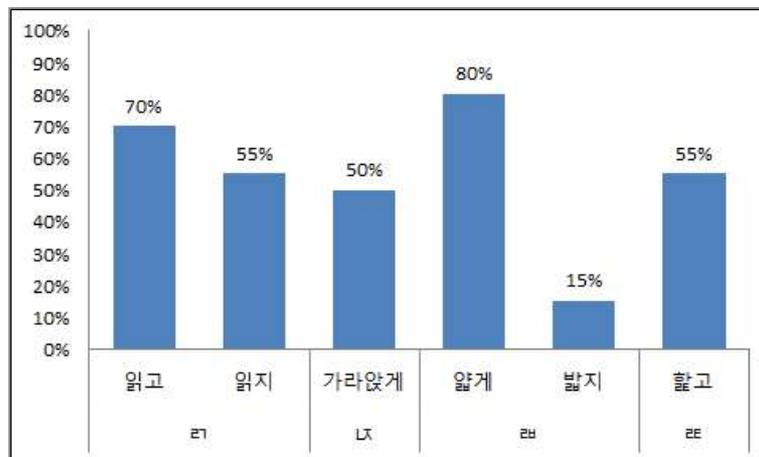
<그림11>을 보면 ‘접수’, ‘집도’, ‘씩고’의 경우 낭독 실험에서 100%의 실현율을 보였으나 인지 실험에서 비교적 낮은 실현율을 나타냈다. 실현율은 낭독 실험과 같이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 단어 내부< 용언과 어미의 결합형 순서로 실현율을 나타냈으며 ‘곱고’의 실현율이 95%로 가장 높다. 또 낭독 실험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어미 ‘-고’ 보다 ‘-지’의 결합이 오류율이 더 높았다. 학습자들에게 어미 ‘-고’ 와의 결합이 부정문의 ‘-지’ 보다 더 쉽게 느껴짐을 알 수 있다.

자유 발화 조사와 낭독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체언과 조사의 결합 실현율이 가장 낮았는데 특히 일 음절 조사 ‘도’ 보다 이 음절 조사인 ‘보다’와 ‘부터’와의 결합이 역시 오류가 많았다. ‘소식보다[소식보다]’의 경우에는 10명이나 철자법대로 읽어서 경음화에 실패한 것이다.

오류 양상은 전체적으로 철자법대로 발음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받토], [이팍푸터], [문코], [눅치]와 같이 격음화를 시키거나 [침또], [석꼬]와 같이 선행음절을 격음이나 평음으로 대치하여 발음한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이팍푸터]로 발음한 피험자는 9명이나 있는데 이것은 선행 명사 ‘입학’이 격음화가 되면서 후행하는 어미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2. 평파열음 자음군 뒤의 경음화

<그림12> 평파열음 자음군 뒤 경음화 인지 실현율



<표31> 평파열음 자음군 뒤 경음화 인지 오류 양상

읽고	일코(15%), 이꼬(15%)
읽지	일찌(40%), 일지(5%)
가라앉게	가라안게(25%), 가라안케(25%)
얹게	얹께(15%), 얹게(5%)
할고	할코(20%), 할꼬(20%), 하코(5%)
밭지	밭찌(50%) 밭치(15%) 밭치(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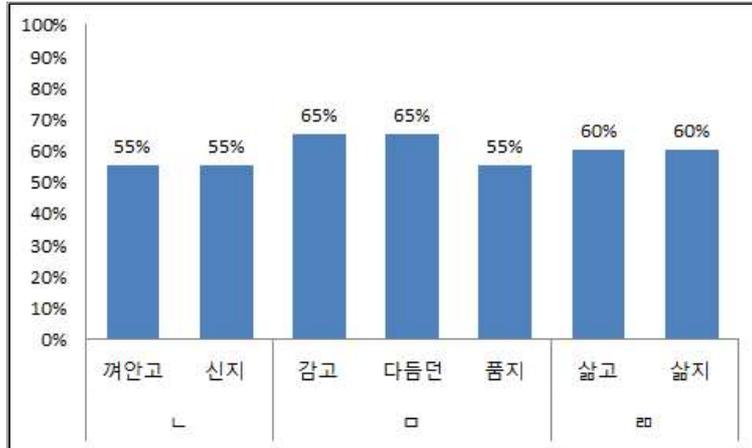
<그림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과열음 자음군 뒤에서의 경음화 실현은 자음군 ‘ㄹ’이 47.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ㄴ’은 50%, ‘ㄷ’은 55% ‘ㄹ’은 62.5%를 나타냈다. 그러나 같은 자음군이라 하여도 실현율의 격차가 심했는데 이것은 피험자들이 대부분 자음군의 앞 자음을 발음하여 경음화 실현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읽고[일꼬]’와 ‘읽지[일찌]’를 모두 앞 자음을 발음하여 경음화를 실현한 경우 [일찌]는 오류로 판단되기 때문에 ‘ㄹ’ 자음군의 실현율이 차이가 난다. 낭독 실험 결과에서 자음군 ‘ㄹ’의 실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자음군의 발음에 오류가 있어도 어미의 초성을 경음화 시키면 실현이라고 판단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험자 16명이 앞 자음을 발음하여 경음화한 ‘얹게[얹께]’와 피험자 3명만이 뒤 자음을 발음하여 경음화한 ‘밭지[밭찌]’의 실현율의 차이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최경복, 송지영(2019)³⁷⁾에서 언급하듯이 베트남 학습자들은 자음군의 뒤 자음을 발음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31>를 보면 오류 양상으로는 [얹께], [일찌], [할꼬], [밭찌]와 같이 자음군의 발음이 틀렸으나 경음화를 적용하여 발음한 예도 많지만 [일코], [가라안케], [할코], [밭치], [밭치]등의 격음으로 발음한 경우도 적지 않아 학습자들의 자음군 뒤에서의 경음화를 어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음군 교육이 더욱 강조되어 경음화 습득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지적할 수 있다.

3.3.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의 경음화

<그림13> 용언 어간 말 비음 뒤 경음화 인지 실현율

37) 최경복, 송지영(2019:187)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자음군 뒤 자음을 발음하는 ‘ㄹ,ㄹ,ㄹ,ㄹ’ 계열의 단어에서 많은 오류를 보였다고 하였다.



<표32> 용언 어간 말 비음 뒤 경음화 인지 오류 양상

껴안고	껴안고(25%), 껌안코(20%)
신지	신지(45%)
감고	감고(20%), 감코(15%)
품지	품지(15%), 품치(25%), 푸찌(5%)
다듬던	다듬던(25%), 다등던(10%)
삶고	삼고(10%), 쌀꼬(5%), 살꼬(25%)
삶지	쌘찌(25%), 삼지(10%), 삼치(5%)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의 경음화의 인지 실현율은 59%로 높지 않은 편이다. 이것은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에서의 음운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음절별로 끊어서 발음하는 베트남인 모국어 간섭 현상으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비음 ‘ㄱ’ 뒤에서의 경음화가 61.6%를 나타내고 ‘ㄷ’ 뒤에서는 60%, ‘ㄴ’ 뒤에서의 경음화는 55%의 실현율로 그 중에서 제일 낮게 나타났다. 자연 발화와 낭독 실험에서 ‘ㄷ’ 뒤의 경음화가 가장 실현율이 높았던 것과 달리 인지 실험에서는 역시 자음군의 자음을 선택하는 문제가 실현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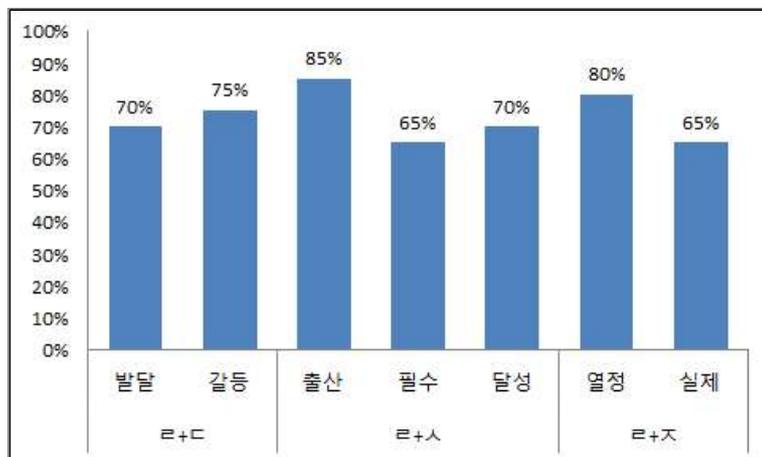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인지 실험에서는 비음 ‘ㄴ’이 가장 실현율이 낮아 학습자들이 ‘ㄴ’ 뒤의 경음화 실현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 인지 실험에서는 용언 어간에 어미 ‘-고’와 ‘-지’에 결합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고’와 ‘품지’는 10%의 실현율의 차이가 있지만 ‘껴안고’와 ‘신지’, ‘삶고’와 ‘삶지’의 경우 실현율이 같게 나타나 후행 어미의 초성 비교가 의미 있는 것

은 아니다.

오류 양상을 <표32>를 통해 살펴보면 각 어휘의 철자법대로 발음하기 이외에도 [껴안코], [감코], [폼치]등과 같이 비음 뒤의 어미를 격음으로 대치하여 발음한 오류가 있다. 특히 ‘폼지[폼찌]’에서 [폼지]보다 [폼치]로 발음한 경우가 많은데 낭독 실험과 마찬가지로 어간 ‘폼-’의 초성이 격음인 이유로 후행하는 어미의 초성을 격음으로 발음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 ‘삼고’의 경우에는 자음군 발음 ‘ㄱ’으로 발음하는 것을 모르고 [살꼬]와 [쌀꼬]로 발음한 피험자도 다수 확인된다.

3.4. 한자어 ‘ㄹ’ 뒤에서의 경음화

<그림14> 한자어 ‘ㄹ’ 뒤 경음화 인지 실현율



<표33> 한자어 ‘ㄹ’ 뒤 경음화 인지 오류 양상

열정	열정(20%)
발달	발달(30%)
출산	출산(15%)
필수	필수(25%), 피수(10%)
갈등	갈등(25%)
실제	실제(20%), 실제(15%)
달성	달성(25%), 다甞(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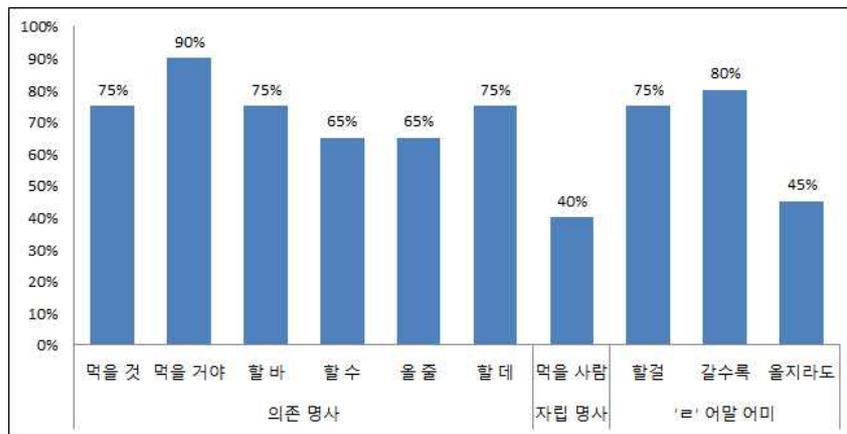
인지 실험에서 실현율 73%를 차지하여 피험자들이 가장 어렵지 않게 경음화 규칙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유형이 한자어 ‘ㄹ’ 뒤에서의 경음화이다. 87%의 실현율을 나타냈던 낭독 실험에 비하면 오류율이 상승했으나 인지 실험의 유형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실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14>를 보면 한자어 ‘ㄹ’과 ‘ㄷ’의 결합과 ‘ㅅ’, ‘ㅈ’과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실현율은 각각 72.5%와 73.3%, 72.5%로 격차가 없이 나타난 점이 낭독 실험 결과와 다른 점이다. 이것으로 베트남 학습자의 한자어 ‘ㄹ’ 뒤의 경음화 규칙에 대한 환경별 이해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각 한자어의 난이도가 경음화 적용 실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실험 항목 한자어 중에서 가장 실현율이 높았던 것은 ‘출산’이 85%였으며 ‘필수’와 ‘실제’는 65%의 실현율을 나타냈다.

오류 양상은 거의 모든 한자어를 철자대로 발음하는 것이며 오류율이 비교적 높은 ‘필수’, ‘실제’, ‘달성’은 격음으로 대치하여 발음하거나 ‘ㄹ’ 종성을 탈락하고 발음하는 오류의 양상을 함께 발견할 수 있다.

3.5. 관형형 어미 ‘ㄹ’ 뒤의 경음화

<그림15> 관형형 어미 ‘ㄹ’ 뒤 경음화 인지 실현율



<표34> 관형형 어미 ‘ㄹ’ 뒤 경음화 인지 오류 양상

먹을 것	머근거(5%), 머글견(15%), 머그꺼(10%)
먹을 사람	머글사람(60%)
먹을거야	먹을거야(5%), 머근꺼야(5%)
할바	할바(20%), 할파(5%)
할수	할수(30%), 하쑤(5%)
울줄	울줄(20%), 울출(10%), 오쫘(5%)
할데	할데(25%)
할걸	할걸(15%), 하걸(10%)
갈수록	갈수록(20%)
올지라도	올지라도(25%), 오찌라도(15%), 올치라도(15%)

관형형 어미 ‘ㄴ’뒤의 경음화는 실현율 69%를 차지하여 한자어 ‘ㄴ’뒤의 경음화 다음으로 실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15>를 보면, 관형형 어미 ‘ㄴ’뒤에 의존명사가 올 때 실현율이 74.16%로 가장 높았고, ‘ㄴ’ 어말 어미는 66.6%, 자립 명사와의 결합이 40%의 실현율을 나타냈다. 낭독 실험에서의 의존 명사와의 결합은 ‘어찌할 바’와 ‘그럴 줄’과 같은 익숙하지 않은 어휘에서 높은 오류를 보이며 어휘별 편차를 나타냈다. 그러나 인지 실험에서 의존 명사와의 결합은 각 어휘가 비슷한 실현율로 가장 낮은 오류율을 보인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규칙을 인지하여 올바른 발음을 선택할 수는 있으나 발화로 실현될 때는 또 다른 부담이 추가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경음화 발화에 있어서 더욱이 익숙하지 않은 어휘일 때는 띄어쓰기 존재로 인해 음절대로 발음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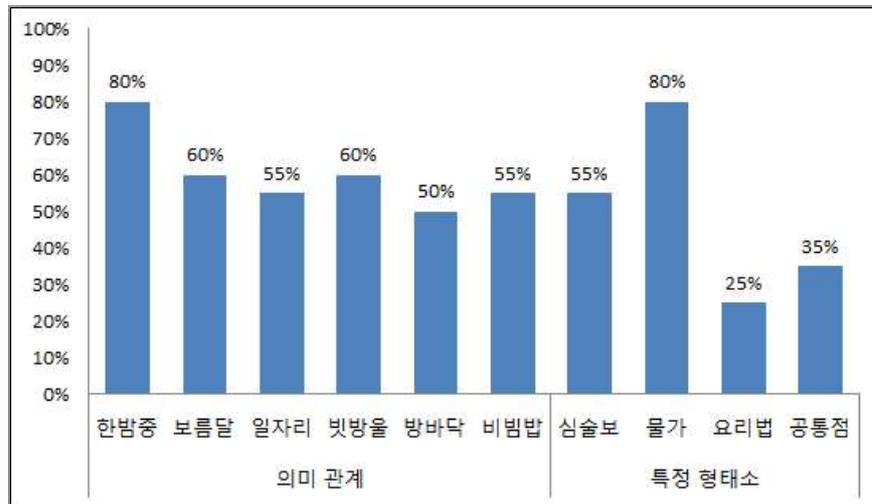
한편 의존 명사와의 결합 다음으로 ‘ㄴ’ 어말 어미를 쉽게 적용하여 실현하였고 개인에 따라 기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자립 명사와의 결합은 가장 낮은 실현율을 보였다. 의존 명사 ‘것’과 ‘거’ 그리고 자립 명사 ‘사람’을 비교하여 보면 종결 어미로 연결되는 ‘먹을 거야’가 90%의 실현율을 나타냈고 ‘먹을 것’은 75%, ‘먹을 사람’은 40%를 나타내어 학습자들은 자립 명사와의 결합에서 어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4>의 주된 오류 양상은 철자법대로 발음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할파], [울출], [올치라도]와 같이 격음으로 대치하여 발음한 것과 [머그꺼], [오쫘], [하쑤], [오찌라도]와 같이 어미 ‘ㄴ’을 탈락하여 발음한 경우가 있다. 또 피험자

두 명은 [머근거], [머근꺼야]로 ‘ㄹ’을 ‘ㄴ’으로 대치하여 발음하는 오류를 보였다.

3.6. 합성어 사이시옷에서의 경음화

<그림16> 사이시옷에서의 경음화 인지 실현율



<표35> 사이시옷에서의 경음화 인지 오류 양상

한밤중	한밤중(20%)
요리법	요리법(75%)
물가	물가(20%)
보름달	보름달(35%), 보름탈(5%)
일자리	일자리(20%), 이짜리(15%), 일차리(10%)
빗방울	빈방울(20%), 비팡울(5%), 빗방울(15%)
심술보	심술보(35%), 심수뽕(5%), 심술포(5%)
방바닥	방바닥(45%), 바빠닥(5%)
공통점	공통점(50%), 공통침(15%)
비빔밥	비빔밥(30%), 비빔팍(15%)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는 합성어가 유성음 뒤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경음화로 사이시옷의 개재 여부도 다양하고 복잡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도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측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인지 실험에서도 56%의 실현율을 보여 경음화 유형 중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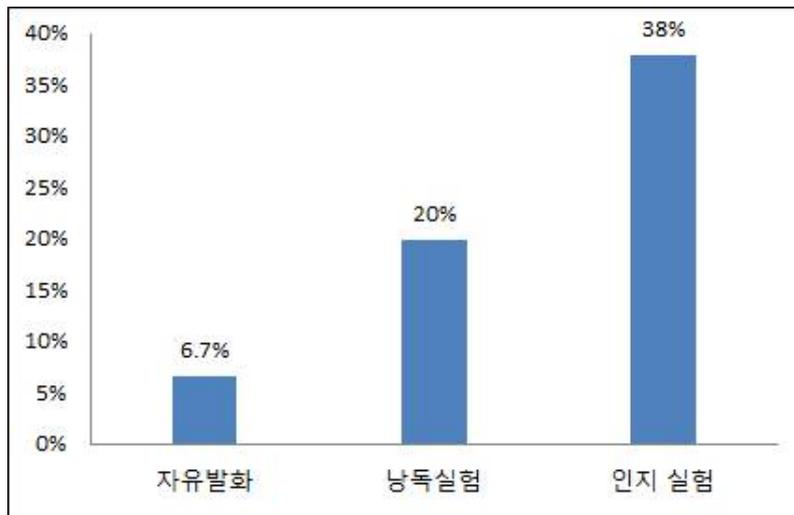
<그림16>을 보면 의미 관계로 인한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 어휘는 평균 60%의 실현율을 차지하고 특정 형태소의 경음화 실현은 48.75%를 나타냈다. 특정 형태소 ‘가’와 결합한 ‘물가’를 제외하고 특정 형태소의 어휘들이 실현율이 낮았는데 특히 한자 형태소 ‘법(法)’과 ‘점(點)’의 실현율이 낮다. 이것을 특정 형태소의 경음화 실현율이 더 높았던 낭독 실험 결과와 비교하면 학습자들은 항상 경음화가 일어나는 특정 형태소의 인식이 많지는 않지만 문장에서 발화할 때는 맥락을 통해 학습한 어휘를 기억하고 발음으로 실현하기 때문에 경음화를 좀 더 실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오류 양상은 ‘한밤중’, ‘요리법’, ‘물가’와 같이 철자법대로만 발음한 경우가 있고 철자법대로 발음한 것 이외에도 소수의 피험자가 [보름탈], [일차리], [비팡울], [심술포]처럼 격음으로 발음하여 오류를 범한 것이 보인다. 또 [이짜리], [바빠닥]과 같이 후행 명사의 초성을 경음화 시켰으나 선행 명사의 종성을 탈락한 경우도 있다.

4. 결과에 대한 분석

이상에서 베트남 학습자들의 경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세 가지 실험을 하고 각 실험을 분석 했다. 이 절에서는 자유 발화와 낭독 실험, 그리고 인지 실험을 종합하여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세 실험의 오류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7> 경음화 자유 발화, 낭독, 인지 오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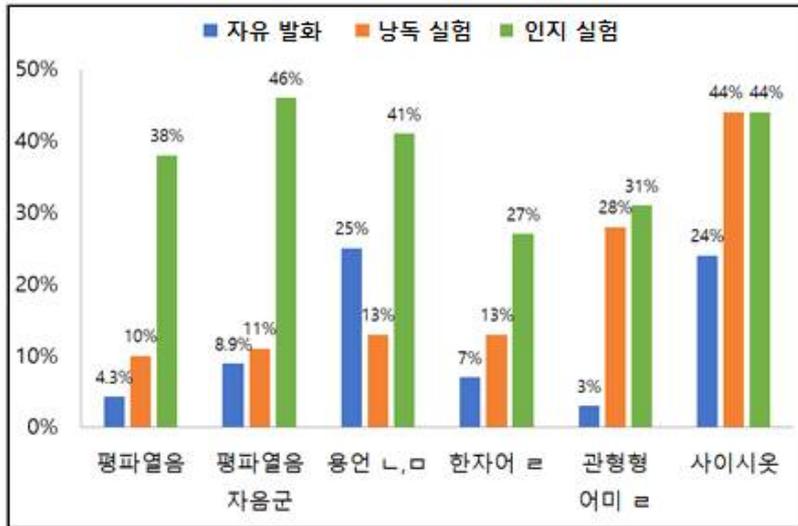


세 실험을 통한 경음화 오류율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베트남인 학습자의 경음화 오류는 38% 오류율을 차지한 인지 실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³⁸⁾ 그다음으로 낭독 실험이 20%의 오류율을 보였고 자유 발화에서는 6.7%만의 오류를 나타냈다. 이는 학습자들이 경음화 규칙을 인식하여 경음화를 실현한다기보다 문장의 문맥을 통한 덩어리 표현이나 어휘로 익혀서 경음화를 실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³⁹⁾. 특히 개인의 학업 수준과 능력에 맞게 자기에 게 익숙한 어휘로 대화를 구성하여 발화한 자유 발화의 경우에는 오류율이 더욱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베트남 학습자들이 경음화 실현을 대체적으로 잘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더욱 풍부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경음화 규칙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림18> 유형별 자유 발화, 낭독, 인지 오류율

38) 팜튀엔짱(2017:51)에서는 규칙 인식 조사보다 해당 규칙을 적용하여 실제 문장을 발화하는 것을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비교할 만하다.

39) 노순주(2014:44)에서는 학습자들은 경음화를 습득하여 경음화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어휘로 습득한 것이라 하였으며 김정연(2018)에서도 산출 실험에 비해 인지 실험률이 현저하게 낮게 나온 것에 대하여 규칙 인식을 못하면서도 실제 발음할 때는 자연스럽게 경음화를 나타낸다는 의미로 보았다.



<그림18>은 자유 발화와 낭독 실험, 인지 실험에서 나타난 경음화 각 유형별 오류율이다. 모든 유형에서 인지 오류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낭독 실험과 자유 발화를 보면 대부분이 낭독 오류가 높는데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의 경우에는 자유 발화에서 오류율 25%로 낭독 오류 13%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오류율을 나타냈다. 자유 발화의 특성상 학습자들에게 특히 부담스러운 유형이 실험 빈도와 오류율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자유 발화와 낭독, 인지 실험에서의 경음화 6가지 유형별 오류율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표36> 유형별 자유 발화, 낭독, 인지 오류율 순서

자유발화	관형형 어미	관형형 어미 < 평파열음 자음군	한자어 어미 < 평파열음 자음군	사이시옷 < 용언 어간 말 비음	용언 어간 말 비음
	3.0	4.3	7.0	8.9	24
낭독실험	평파열음 자음군	평파열음 자음군 < 한자어 어미	용언 어간 말 비음 < 관형형 어미	사이시옷 < 평파열음 자음군	사이시옷
	10	11	13	13	28
인지실험	한자어 어미 < 관형형 어미	관형형 어미 < 평파열음 자음군	용언 어간 말 비음 < 사이시옷	사이시옷 < 평파열음 자음군	평파열음 자음군
	27	31	38	41	44
					46

<표36>과 함께 각 실험을 분석하여 각각의 오류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실행한 자유 발화와 낭독, 인지 실험 전체에서 베트남 학습자들이 경음화 실현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 단어인 합성어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사이시옷 개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의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이시옷의 쓰임이 매우 불규칙적이라는 것에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예측한 바 있다. 따라서 경음화 교육은 학습 과정의 고급반에서도 꾸준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학습자별 어려워하는 유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용언 어간 말 비음의 경우에도 자유 발화와 인지 실험에서 오류율이 높게 나타나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경음화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⁴⁰⁾ 비음 뒤에서의 음운론적 환경과 용언 어간 말음이라는 형태론적 정보가 필요한 유형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어간 말 ‘ㄴ, ㄹ’의 어휘수가 많지 않아 학습이나 생활 속에서 노출이 안 되어 습득 기회가 적은 것도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 학습자들은 평과열음 환경에서 자음군 뒤의 경음화의 규칙을 인식한다기보다 자음군을 발음할 때 받침을 더 세게 소리 내면서 뒤 소리를 자연스럽게 경음으로 발음하여 경음화 실현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자음군의 앞 자음을 발음하는 경향⁴¹⁾으로 어휘에 따라 오류를 나타냈는데 인지 실험에서의 높은 오류율도 대부분 자음군 발음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자음군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반면에 오류율이 낮은 경음화 유형들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가장 단순하고 무조건적인 경음화인 평과열음 뒤 경음화는 세 실험에서 모두 높은 실현율을 나타내어 필수적 경음화를 학습자들이 비교적 잘 실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용언과 어미의 결합은 그 실현율이 높은⁴²⁾ 반면에 체언과 조사의 결합은 조사에 따라 실현의 편차를 보이며 오류율의 차이를 나타냈다. 또 자유 발화에서는 단어 경계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비교적 쉬운 규칙의 유형이라도 각 환경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지므로 음운 환경을 세분하여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⁴³⁾

40) 이한결(2017:41)에서도 경음화 유형 중에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에서의 경음화 오류가 가장 높았으며 오류의 양상에도 뚜렷한 경향이 없이 규칙의 인지 및 적용이 가장 어려운 규칙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41) 최경복, 송지영(2019:199)은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겹자음을 발음할 때 우선적으로 앞 자음을 발음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예측한 것처럼 뒤 자음을 발음하는 단어에서 높은 오류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42) 이한결(2017:51)에서도 어간과 어미의 분리성 정도가 작기 때문에 용언의 활용형에서 경음화 실현이 높다고 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한자어 ‘ㄹ’ 뒤 경음화와 관형형 어미 ‘ㄹ’ 뒤 경음화의 오류율이다. 한자어 ‘ㄹ’ 뒤 경음화는 한자어라는 형태론적 정보와 ‘ㄹ’ 뒤에 ‘ㄷ, ㅂ, ㅈ’의 음운론적 정보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학습자가 어려워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자유 발화와 낭독 실험에서도 오류율이 비교적 낮았고 인지 실험에서는 오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한자어의 출현 빈도와 난이도에 따라 실현율에 편차가 있고 선행 음절의 발음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음화 실현에 어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관형형 어미 ‘ㄹ’ 뒤 경음화도 인지 실험과 자유 발화에서 관형형 어미 ‘ㄹ’이라는 형태론적 정보와 후행하는 체언과의 결합을 잘 이해하고 경음화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오류율과 난이도와의 또 다른 상관관계도 알 수 있다. 어떤 음운 규칙의 난이도가 높다고 하여 반드시 오류율이 높은 것은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할 수’의 경우에는 자유 발화와 낭독 실험에서 100% 경음화 실현에 성공하였고, 특히 의존 명사와의 결합과 ‘ㄹ’ 어미 어미에서 경음화를 잘 실현했다. 이렇게 사용 빈도가 높으면 오류가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가지 실험에 나타난 학습자들의 주된 오류 유형은 베트남어의 간섭으로 인한 음절별로 끊어서 발음하여 경음화를 실현하지 못하는 오류가 가장 많았고 선행 음절의 종성을 탈락시키거나 종성 ‘ㄹ’을 ‘ㄴ’으로 대치하여 발음하고 경음화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와 경음을 격음으로 대치하여 발음하는 등의 오류를 각 유형에서 골고루 발견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인지 실험에서 비교적 오류율이 낮게 나타난 한자어 ‘ㄹ’ 뒤 경음화와 관형형어미 ‘ㄹ’ 뒤 경음화, 그리고 평과열음 뒤 경음화가 자유 발화에서도 낮은 오류율을 보였고 인지 실험에서 오류율이 높게 나타난 용언 어간 말 비음 뒤 경음화와 사이시옷 경음화도 자유 발화에서 높은 오류율을 나타냈다. 반면에 낭독 실험에서는 앞의 두 실험에서 오류율이 높았던 용언 어간 말 비음 뒤 경음화의 오류율이 높지 않았으며 두 실험에서 오류율이 낮았던 관형형 어미

43) 김태경, 백경미(2015:147)는 하나의 음운 규칙에서도 음운 환경에 따라 학습자가 느끼는 적용의 난이도가 다르므로 음운 환경에 따라 세분하여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 학습자의 숙달도 수준에 맞는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ㄹ’ 뒤 경음화의 오류율이 높아서 각 실험에서의 경음화 실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경음화 규칙의 인식 정도가 산출될 때 자유 발화에서 더욱 정확하게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인지 실험에서 용언 어간 말 비음 뒤 환경의 경음화 실현을 어려워한 학습자들은 자유 발화에서 낮은 발화 빈도수로 발화 부담감을 나타냈으며 소수의 발화 건수에서도 제대로 경음화를 적용시키지 못하고 오류율을 나타냈다. 반면에 낭독 실험에서는 해당 어휘가 포함된 문장 전체를 발화하면서 문맥 속에서 경음화를 실현시켜 오류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계획된 문장을 읽은 낭독 실험에서보다 자유 발화를 통한 조사가 인지 실험의 결과를 더 잘 설명해주는 객관적인 실험임을 알 수 있다.

V. 결 론

한국어 경음화 현상은 한국어에서 실현 빈도가 매우 높은 음운 현상 중에 하나이다. 또 음운 규칙의 환경과 조건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예외가 많은 음운 현상이다. 따라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경음화의 음운 규칙을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달리 음운 변동이 거의 없는 베트남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습자가 한국어의 음운 현상을 어려워할 것으로 보고 한국어의 경음화를 어떻게 실현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선행 연구들에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교수-학습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던 경음화의 유형을 모두 포함하여 경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험은 구조화된 낭독 실험과 인지 실험 외에도 자유 발화 조사를 실시하여 실생활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오류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진행된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I 장의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연구의 성과를 밝히고 한계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더불어 선행 연구의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여 경음화의 모든 유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자료 수집의 측면에서 자유 발화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전체 연구 진행 절차를 설명했다.

II 장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자음 체계를 대조하고 음절 구조를 대조하여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차이점으로 인한 베트남인 학습자의 오류를 예측해 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집중하여 살펴 볼 경음화의 유형을 평과열음 뒤의 경음화와 용언 어간 말 비음 뒤 경음화, 한자어 ‘ㄱ’ 뒤 경음화, 관형형 어미 ‘-(으)ㄱ’ 뒤 경음화, 그리고 합성어 사이시옷에서의 경음화로 분류하고 그 규칙의 내용을 설명했다.

III 장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의 경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세 가지 실험의 대상과 실험 내용 및 방법, 실험 절차를 밝혔다. 먼저 자유 발화 조사를 위

해 한국어로 자유 대화가 한 시간 이상 가능하며 조사에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두 명의 베트남인 학습자를 매주 한 시간씩 만나서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하도록 하였다. 총 10차례에 걸쳐 자유로운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전사하여 자료를 만들었다. 낭독 실험에서는 2.2.1에서 만들어진 경음화 목록을 바탕으로 경음화 낭독 어휘를 선정하고 49개의 경음화 문장과 17개의 비 경음화 문장으로 구성된 실험지를 제작하였다. 또 경음화 규칙 인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음화 실현 어휘의 올바른 발음을 고르는 인지 실험지를 제작하여 한국어 수준 중급 이상의 베트남인 학습자 20명을 대상으로 낭독, 인지 실험을 실행하였다.

IV장에서는 자유 발화와 낭독, 인지 실험 자료를 통해 각 실험별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경음화 실현 빈도와 오류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실현 양상과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실험을 종합하여 각 실험에서 나타난 베트남인 학습자의 실현 양상에 특징을 비교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오류의 양상과 원인을 밝혔다.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자유 발화와 낭독, 인지 실험에서 인지 실험의 오류율이 38%, 낭독 실험은 20%, 자유 발화에서는 6.7%의 오류율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경음화 실현에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음화 규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문장을 읽어 낭독으로 나타낼 때는 문맥을 통한 적용 어휘의 경음화 실현이 가능하거나 평소 노출 빈도가 높아 개인적으로 익숙한 어휘의 경우가 변인이 되어 경음화를 실현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베트남 학습자들이 경음화를 대체적으로 잘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더욱 원활한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경음화 규칙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실험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 발화와 낭독, 인지 실험 전체에서 베트남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사이시옷에서의 경음화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습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유성음 뒤에서의 환경이 한 이유라 할 수 있고, 한 단어인 합성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이시옷의 개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의 부족함이 두 번째 이유라 할 수 있다.

둘째, 필수적 경음화인 평파열음 뒤 경음화를 살펴볼 때 자유 발화에서는 용언과 다양한 어미의 결합과 종결 어미에서의 경음화 실현이 두드러져 나타났고 낭

독 실험에서도 용언과 어미의 결합은 그 실현율이 높았다. 반면에 체언과 조사의 결합은 조사에 따라 실현의 편차를 보이며 오류율의 차이를 나타냈다. 또 자유 발화를 통해 학습자들이 단어 경계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비교적 쉬운 규칙의 유형이라도 각 환경에 따라 경음화 실현에 차이가 있어 세부적인 환경에서의 교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평파열음 자음군 뒤 경음화의 경우 자유 발화와 낭독 실험에서는 자음군 발음이 부정확해도 평파열음에서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여 경음화를 실현 시켜 학습자들에게 평파열음 자음군의 규칙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⁴⁾ 한편 인지 실험에서의 평파열음 자음군 뒤 경음화 오류는 대부분 자음군 발음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자음군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넷째, 용언 어간 말 비음 뒤 경음화는 자유 발화와 인지 실험에서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습자들이 용언 어간 말 비음 뒤 경음화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음운론적 환경과 형태론적 정보가 필요한 유형이라는 이유 외에도 특히 어간 말 ‘ㄴ, ㅁ’의 어휘 수가 많지 않아 학습이나 생활 속에서 노출이 안 되어 습득 기회가 적은 것도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한자어의 출현 빈도와 난이도에 따라 실현율에 편차가 있고 선행 음절의 발음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음화 실현을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 한자어의 사용이 많은 만큼 일상에서와 학습 이외에 토픽을 준비하는 등의 어휘 학습을 통한 결과라고 추측된다.

여섯째, 관형형 어미 ‘ㄴ’ 뒤 경음화도 인지 실험과 자유 발화에서 관형형 어미 ‘ㄴ’이라는 형태론적 정보와 후행하는 체언과의 결합을 잘 이해하고 경음화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할 수’의 경우에는 자유 발화와 낭독 실험에서 100% 경음화 실현에 성공하였고, 특히 의존 명사와의 결합과 ‘ㄴ’ 어말 어미에서 경음화를 잘 실현했다. 다만 낭독 실험에서는 다른 경음화 유형보다 오류율이 비교적 높았는데 낮은 어휘를 낭독할 때의 부담이 음절별로 발음하는 오류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44) 또는 김정연(2018:100)에서는 학습자들은 겹받침이 선행하는 경우 후행하는 자음을 세계 발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하였다.

일곱째, 세 가지 실험에 나타난 학습자들의 주된 오류 유형은 베트남어의 간섭으로 인한 음절별로 끊어서 발음하는 오류가 가장 많았고 선행 음절의 종성을 탈락하여 경음화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와 경음을 격음으로 대치하여 발음하는 등의 오류를 각 유형에서 골고루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선행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자연스러운 발화 상황에서의 경음화 실현 양상을 살폈고 이와 더불어 낭독 및 인지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각 실험별 차이를 규명하였다. 먼저 자유 발화 실험에서는 학습자가 친숙하게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을 통해 실현되는 경음화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중간 언어 사용과 개인의 언어 습관에 따른 경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자유 발화에서 나타나지 않은 다양한 경음화 유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낭독 실험을 진행하였다. 낭독 실험을 통해서 경음화 각 유형을 환경별로 세밀하게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학습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경음화를 더 어려워하고 더 쉽게 실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지 실험에서는 학습자들이 경음화 규칙을 얼마나 이해하고 실현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학습자들의 인지 실현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어휘에 따른 개인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음화에 대한 개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세 가지 실험은 모두 난이도와 사용 빈도수의 차이에 따라 오류율의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쉽고 사용 빈도가 높은 경우에 오류가 적다고 할 수 있으나 난이도가 높은 규칙도 자주 노출되어 빈도수가 높으면 오류가 적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자유 발화, 낭독 실험, 인지 실험을 함께 진행하여 실현 양상을 비교하고 특징을 살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유 발화의 대상자가 두 명에 그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과 실험 대상을 중급 이상의 학습자로 국한하여 한국어 능력 수준별 실현 양상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 경음화 실현 양상을 살핀 후에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연구 결과에 따라 베트남인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경음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후에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정희(2011), 「베트남인 학습자의 발음오류분석 및 교육방안-자음대조 및 학습자 자음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2, 한국문법교육학회. p.121-130.
- 강희숙(2008), 「한국어 경음화의 실현 양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한국언어문학>67, 한국언어학회, pp.159~180.
- 권성미(2017), 『한국어 발음 교육론』, 한글파크.
-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 김경희(2019),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종성 발음 오류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현(2013), 「베트남인 화자의 한국어 마찰음과 파찰음 발음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선(2004),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경음화 발음 교육 방안 연구」, <국어교육연구>15-2, pp.51-73.
- 김유범(1999), 「관형사형어미 ‘-ㄹ’뒤의 경음화 현상에 대한 고찰」, <한국어학>10, 한국어학회, pp.5-25.
- 김정숙(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 내용 선정 기준」, <korean 교육 학술 토론회 자료집>2006-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pp.1-2.
- 김정연(2018), 「베트남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특성 연구 : 음운 현상을 중심으로, 계명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숙(2007), 「베트남어권 학습자의 오류 연구」, <한국어 교육>18-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49-71.
- 김태경(2018), 「베트남인 화자의 한국어 자음 발음 오류 연구- 결혼이주여성의 자유발화를 대상으로-」, <국어교육>163, 한국어 교육학회, pp.345-372.
- 김태경·백경미(2015),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음운규칙 적용 양상연구」, <우리말글>64, 우리말글학회, p.117-151.
- 김현(2011), 「경음화의 발생: 비어두 무성무기음의 음소적 인식」, <국어학>62, 국어학회, pp.107-129.
- 김형복(2004), 「한국어 음운변동 규칙의 교수-학습 순서 연구」, <한국어교

- 육>15-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3-41.
- 김희정·박시균(2009),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발음 오류 분석과 발음교육-평음, 격음, 경음을 중심으로」,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 한국언어학회, pp.89-103.
- 노순주(2014), 「한국어 학습자의 장애음 뒤 경음화 실현에 관한 연구-어미·조사가 결합된 형태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 옥 루이엔(2015), 「베트남 남부 방언을 쓰는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수·학습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경래(2007), 「구술 발화의 조사와 정리」, <방언학>6, 한국방언학회, pp.73-116.
- 박고영(2010), 「경음화 교육내용 선정과 제시순서 연구-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동숙(2019), 『질적 인터뷰 방법』,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정태(2018),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론적 대조연구:-베트남인 학습자의 음운 오류 양상을 기반으로-」, 중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용우(2012), 「유성자음 뒤의 경음화 형상에 대하여」, <동악어문학>59, 동악어문학회. pp. 222-263.
- 배영환(2007), 「어미구조체에서의 르탈탁에 대한 고찰」, 어문연구 35-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135-160.
- 배영환(2017), 「중국인 학습자의 경음화 습득 양상 연구」, <어문논집>72집, 중앙어문학회, pp.345~374.
- 배영환·김성란(2019), 「구술 발화를 통한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 양상 연구- 종성 오류를 중심으로」, <어문논집>80집, 중앙어문학회, pp.387-415.
- 배주채(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 배주채(2003), 「한자어의 경음화에 대하여」, <성심어문논집>25, 성심어문학회. pp.247-283.
- 백경미(2018),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자유발화에 나타난 자음 대치 오류 연구-초성과 종성 환경을 중심으로」, <언어학>26, 대한언어학회. pp.179-197.
- 부가준·배영환(2020), 「한국어 합성어에서의 경음화습득양상연구 -중국인학습자를 중심으로-」, <국제어문>84, 국제어문학회, pp.437-460.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서울대 한국어』 1A~6B, TWO PONDS.

- 신승용(2013), 『국어음운론』, 역락.
- 신승용·안미애(2012), 「유성 자음 뒤 경음화의 특성 및 원인에 대한 고찰」, <동아인문학>22, 동아인문학회, pp.119-140.
- 신정애(2005),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영(1999), 「한국어의 운율단위와 경음화 현상」, <한국어학>10, 한국어학회, pp.27-45.
- 신지영·장향실·장혜진·박지연(2015), 『한국어 발음교육의 이론과 실제』, 박이정.
- 왕신(2018),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경음화 습득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소진(2005), 「‘한자어의 경음화’에 대한 재론」, <국어학>45, 국어학회, pp.69-92.
- 양순임(2009), 『말소리』, 박이정.
- 오정란(2002), 「국어 경음화 연구의 과제와 전망」, <한국어학>17, 한국어학회, pp.91-110.
- 우금훤(2010), 「한국어 경음화 교육방안 연구-중국인 초급학습자를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셋별(2018),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습득 양상 연구: 출신 지역과 학습 기간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석(2005), 「국어 경음화 현상에 대한 연구」, <청대학술논집>32,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pp.239-262.
- 이상억(1990), 「현대국어 음변화 규칙의 기능 부담량」, <言語研究>26-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pp.441-468.
- 이익섭(1986), 『국어학개설』, 박이정.
- 이진호(2014), 『국어 음운론 강의(개정판)』, 삼경문화사.
- 이한결(2017), 「한국어 학습자의 경음화와 비음화 실현 양상 및 오류연구-규칙의 유효성 및 실현 환경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정(2015), 「숙달도와 거주 기간에 따른 베트남인 학습자의 발음 습득 양상: 자음과 음운현상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35, 이화어문학회, pp.143-172.
- 임석규(2008), 「사이사웃 규정의 문제점 고찰」, <우리말글>43, 우리말글학회, pp.1-24.
- 임석규(2013), 「경음화 남은 몇 문제」, <국어학>67, 국어학회, pp.167-194.
- 임소정(2019),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음운현상 발음 오류 분석 연구: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홍빈(1981), 「사이시옷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어학>10, 국어학회, pp.1-35.
- 장향실(2008),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음운규칙 항목 선정 연구」, 한국언어문학65, 한국언어문학회. pp.137-158.
- 장향실(2008),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음운규칙 제시순서연구」, <한국어교육>19-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427-446.
- 정광미(2018),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연구- 경음화 현상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보라(2017), 『가장 쉬운 독학 베트남어 첫걸음』, 동양북스.
- 조명숙(2006), 「한국어 베트남어 대조 언어학적 연구」,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 pp.361-393.
- 최경복·송지영(2019), 「베트남 학습자의 겹받침 발음 오류분석-겹받침 앞, 뒤 자음의 오류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110 한국언어문학회, pp.175-203.
- 한국어능력시험(2015), 『한국어능력시험 어휘 목록』, 한국어 능력시험.
- 한명숙(2011), 「대학생들의 어두경음화 실현 및 인지 양상 연구」, <겨레어문학>46, 겨레어문학회, pp.329-370.
- 한송화 외(2015),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4단계)』, 국립국어원.
- 허용(2012),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에 대한 음운론적 분석 : 음운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pp.201-232.
- 허용·김선정(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발음교육론』, 박이정.
- 허용(2004), 「중간언어 음운론에서의 간접현상에 대한 대조언어학적 고찰」, <한국어교육>15-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33-257.
- 허용 외(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개론』, 박이정.
- John W. Creswell(2011), 『연구방법: 질적, 양적 및 혼합적 연구의 설계』, 시그마프레스.
- Pham, thi huyen trang(2017), 「베트남어권 학습자의 학습 수준에 따른 한국어 발음 특성 연구 : 비음화·유음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부 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실험은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실현 양상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 기재하시는 내용과 참여하시는 실험의 결과는 연구 이외의 어떤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연구물에는 익명으로 기재됩니다.

실험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연구자: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지숙

(휴대폰:010-****-****, 이메일:enhu****@hanmail.net)

※다음을 작성해 주십시오.

1. 이름:
2. 성별: 남 여
3. 고향:
4. 나이:
5. 한국어 학습기간: _____년_____ 개월
6. 한국 거주 기간: _____년_____ 개월
7. 한국어능력시험 TOPIK: _____급

<낭독 실험 문장>

1	그녀는 심성이 곱고 맑다.
2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
3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4	차츰 기억에서 잊히고 있었다.
5	달걀도 삶고 과일도 준비했다.
6	너의 지치지 않는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7	한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8	엄마는 부엌일로 분주하시다.
9	밥을 함께 먹을 사람을 찾았다.
10	실내에서 정숙하여 주십시오.
11	책도 읽지 않고 엮으려 있었다.
12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훈련을 한다.
13	그의 요리법은 따라 하기 쉽다.
14	과일은 나중에 먹을 거야.
15	스스로 묻고 대답해 봐야한다.
16	아이는 엄마를 꼭 껴안고 잔다.
17	음악은 아이의 정서적 발달에 좋다.
18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불안하다.
19	주위도 봐야지. 앞만 보지 말고.
20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21	그대로 가라앉게 기다리십시오.
22	그곳에선 발도 구경할 수 없었다.
23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해야 한다.
24	하얀 눈길에 보름달에 눈이 부셨다.
25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쳐나갔다.
26	출산 후에 절대 안정이 필요하였다.
27	나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28	한여름에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던데.
29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한다.
30	입학부터 어려움이 많았다.
31	고기를 얇게 썰어서 볶는다.
32	이렇게 혼자 앓고 있으면 어떡해요?
33	그 남자도 그곳에 올 줄 몰랐다.
34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35	머리를 감고 선풍기 바람에 말렸다.
36	그 과목은 필수 과목이다.
37	설날에 식당에서 떡국을 먹었다.
38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다.
39	집도 절도 없이 돌아다녔다.

40	강아지가 빈 그릇을 훑고 있다.
41	그럴 줄 알았으면 열심히 공부할걸.
42	손님께서 주문하신 것은 곧 나옵니다.
43	그는 심술보가 얼굴에 가득 찼다.
44	굳이 같이 가야할 이유는 없었다.
45	야채를 다듬던 엄마도 놀라셨다.
46	계속 공부를 해야 할지 정말 갈등이다.
47	날이 갈수록 자신감이 늘어났다.
48	합격 소식보다 기쁜 것은 없었다.
49	아이는 방바닥을 데굴데굴 구른다.
50	그는 발 냄새 심하기로 유명하다.
51	그와 나는 공통점이 많았다
52	저쪽에 출입문이 보였다.
53	비가 올지라도 꼭 와야 한다.
54	엣그제 이력서를 접수했다.
55	그 말을 가슴에 품지 않았다.
56	그는 실제 나이보다 젊게 보인다.
57	화장도 않고 그대로 나왔다.
58	나는 비빔밥보다 볶음밥을 더 좋아한다.
59	값비싼 기계가 그냥 썩고 있다.
60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렸다.
61	잔디를 밟지 마세요.
62	그것은 쉽게 녹지 않았다.
63	야채를 오래 삶지 마세요.
64	목표 달성을 위하여!
65	꽃잎이 떨어집니다.
66	나의 행복만 바라 수 없지요.

<인지 실험 문장>

1	그녀는 심성이 곱고 맑다. ①[곱고] ②[곱꼬] ③[곱코] ④[고코]
2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 ①[일코] ②[이코] ③[이꼬] ④[일꼬]
3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①[머근거] ②[머글걸] ③[머글곶] ④[머그꺼]
4	차츰 기억에서 잊히고 있었다. ①[이치고] ②[이지고] ③[이찌고] ④[잊히고]
5	달걀도 삶고 과일도 준비했다. ①[삼고] ②[쌀꼬] ③[삼꼬] ④[살꼬]
6	너의 지치지 않는 열정 에 박수를 보낸다. ①[열쩍] ②[열정] ③[여쩍] ④[여칭]
7	한밤중 에 무슨 일이에요? ①[한밤중] ②[한바중] ③[한밤쥁] ④[한파중]
8	엄마는 부엌일 로 분주하시다. ①[부엌일] ②[부엌릴] ③[부엌닐] ④[푸엌닐]
9	밥을 함께 먹을 사람 을 찾았다. ①[머글싸람] ②[머글사람] ③[머는싸람] ④[머는사람]
10	실내 에서 정숙하여 주십시오. ①[실내] ②[실래] ③[시래] ④[시내]
11	책도 읽지 않고 엮드려 있었다. ①[일찌] ②[익찌] ③[익지] ④[일지]
12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훈련 을 한다. ①[훈년] ②[훈련] ③[홀년] ④[홀련]
13	그의 요리법 은 따라 하기 쉽다. ①[요리법] ②[요리펍] ③[요리뺨] ④[올리법]
14	과일은 나중에 먹을 거야 . ①[머으거야] ②[먹을거야] ③[머글꺼야] ④[머근꺼야]
15	스스로 묻고 대답해 봐야한다. ①[묻꼬] ②[무코] ③[묻고] ④[묻코]
16	아이는 엄마를 꼭 껴안고 잔다. ①[껴안코] ②[껴안꼬] ③[껴안고] ④[껴아꼬]
17	음악은 아이의 정서적 발달 에 좋다. ①[바딸] ②[바달] ③[발달] ④[발딸]
18	물가 에 내놓은 아이처럼 불안하다. ①[물까] ②[무까] ③[물가] ④[물카]
19	주위도 봐야지. 앞만 보지 말고.

	①[암만] ②[압만] ③[알만] ④[양만]
20	어찌 할 바 를 모르겠다. ①[할바] ②[할파] ③[할빠] ④[하빠]
21	그대로 가 라 아 게 기다리십시오. ①[가라안게] ②[가라알게] ③[가라안께] ④[가라안케]
22	그곳에선 발 도 구경할 수 없었다. ①[발도] ②[발또] ③[받토] ④[발도]
23	자기가 맡은 역 할 을 잘 해야 한다. ①[여갈] ②[여갈] ③[여깔] ④[여카]
24	하얀 눈길이 보 름 달 에 눈이 부셨다. ①[보름달] ②[보름말] ③[보름탈] ④[보르말]
25	신발도 신 지 않은 채 뛰쳐나갔다. ①[신찌] ②[시찌] ③[신지] ④[신치]
26	출 산 후에 절대 안정이 필요하였다. ①[추산] ②[출산] ③[추산] ④[출산]
27	나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①[할수] ②[하쑤] ③[할쑤] ④[하수]
28	한 여 름 에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던데. ①[한녀름] ②[한여름] ③[한열름] ④[하녀름]
29	한국에서 일 자 리 를 구하려고 한다. ①[일자리] ②[이짜리] ③[일차리] ④[일짜리]
30	입 학 부 터 어려움이 많았다. ①[이팍퓨터] ②[이팍뿌터] ③[입학부터] ④[입학뿌터]
31	고기를 얇 게 썰어서 볶는다. ①[얇게] ②[얍게] ③[압게] ④[알게]
32	이렇게 혼자 알 고 있으면 어떡해요? ①[알꼬] ②[알코] ③[아코] ④[알고]
33	그 남자도 그곳에 올 줄 몰랐다. ①[올줄] ②[올출] ③[올쥬] ④[오쥬]
34	갑자기 빗 방 울 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①[빈방울] ②[빈방울] ③[비팡울] ④[빗방울]
35	머리를 감 고 선풍기 바람에 말렸다. ①[캄꼬] ②[감꼬] ③[감코] ④[감고]
36	그 과목은 필 수 과목이다. ①[피쑤] ②[피수] ③[필쑤] ④[필수]
37	설 날 에 식당에서 떡국을 먹었다. ①[설날] ②[설랄] ③[서날] ④[서랄]
38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다.

	①[할데] ②[할떼] ③[하떼] ④[하데]
39	집도 절도 없이 돌아다녔다. ①[집또] ②[칩또] ③[칩도] ④[집도]
40	강아지가 빈 그릇을 훑고 있다. ①[할코] ②[할꼬] ③[할꼬] ④[할코]
41	그럴 줄 알았으면 열심히 공부 할걸 . ①[할걸] ②[하걸] ③[하걸] ④[할걸]
42	손님께서 주문하신 것은 곧 나옵니다. ①[곤] ②[공] ③[곧] ④[곰]
43	그는 심술보 가 얼굴에 가득 찼다. ①[심술보] ②[심술뽀] ③[심수뽀] ④[심술포]
44	굳이 같이 가야할 이유는 없었다. ①[가치] ②[가티] ③[가지] ④[가찌]
45	야채를 다듬던 엄마도 놀라셨다. ①[다듬던] ②[다듬뻐] ③[다등던] ④[다듬뻐]
46	계속 공부를 해야 할지 정말 갈등 이다. ①[잘뽕] ②[갈등] ③[갈뽕] ④[가뽕]
47	날이 갈수록 자신감이 늘어났다. ①[가쑤록] ②[갈수록] ③[갈쑤록] ④[가수록]
48	합격 소식보다 기쁜 것은 없었다. ①[소씨뽀다] ②[소식보다] ③[소식포다] ④[소식뽀다]
49	아이는 방바닥 을 데굴데굴 구른다. ①[방빠닥] ②[바빠닥] ③[방파닥] ④[방바닥]
50	그는 발냄새 심하기로 유명하다. ①[발냄새] ②[발냄새] ③[바냄새] ④[바냄새]
51	그와 나는 공통점 이 많았다. ①[공통뽀] ②[공통뽀] ③[공통점] ④[고통점]
52	저쪽에 출입문 이 보였다. ①[출입문] ②[추림문] ③[추입문] ④[추인문]
53	비가 올지라도 꼭 와야 한다. ①[올지라도] ②[오찌라도] ③[올치라도] ④[올찌라도]
54	옛그제 이력서를 접수 했다. ①[접쑤] ②[접수] ③[저쑤] ④[전수]
55	그 말을 가슴에 품지 않았다. ①[품치] ②[품지] ③[품찌] ④[푸찌]
56	그는 실제 나이보다 젊게 보인다. ①[실제] ②[실제] ③[시찌] ④[실체]
57	화장도 안고 그대로 나왔다. ①[안꼬] ②[안코] ③[안고] ④[아코]

58	나는 비빔밥 보다 볶음밥을 더 좋아한다. ①[비빔밥] ②[비빔팝] ③[비빔뺨] ④[비비뺨]
59	값비싼 기계가 그냥 썩고 있다. ①[썩고] ②[썩꼬] ③[석꼬] ④[석코]
60	밤새도록 악몽 에 시달렸다. ①[악몽] ②[안몽] ③[앙몽] ④[암몽]
61	잔디를 밟지 마세요. ①[밟치] ②[밭찌] ③[밭치] ④[밟찌]
62	그것은 쉽게 녹지 않았다. ①[노찌] ②[녹지] ③[녹찌] ④[녹치]
63	목표 달성 을 위하여! ①[달성] ②[다쌩] ③[달쌩] ④[다성]
64	꽃잎 이 떨어집니다. ①[꼰닙] ②[꽃잎] ③[꼰닙] ④[꼬닙]
65	야채를 오래 삶지 마세요. ①[쌘찌] ②[삼찌] ③[삼지] ④[삼치]
66	나의 행복만 을 바랄 수 없지요. ①[행봉마늘] ②[햐복마늘] ③[행복만을] ④[햐봉마늘]

<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ization Phase of Glottalization of Vietnamese
Korean Learners

Ji-Sook Pak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hwan Bae)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Vietnamese Korean learners apply and actualize glottalization phenomenon in all types of environments. As a research method (for this purpose), recital experiments and cognitive experiments formed as lists, as well as free articulation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to examine practical errors that appear in real-life conversations. Subjects are Vietnamese learners studying level 6 formal curriculum in Korean Education Institute at university. Free articulation inquiry recorded conversations of two Vietnamese learners every week for an hour, for a total of 10 occasions, and transcribed them into materials.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on twenty learners by producing experimental sentences composed of subdivided types of environments for recital experiments and cognitive experiments. Actualization rates and error rates of each type of glottalization was derived and error types for each type of environment was examined using the data from three experim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Vietnamese learners had error rate of 38% in cognitive experiment, 20% in recital experiment, and 6.7% in free articulation inquiry, generally indicating that these learners have little difficulty in actualizing the glottalization. Especially in case of free articulation, the error rate was lower due to conversations that were composed of vocabulary selected according to the individual's learning ability and level. The results of each

experiment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roughout the whole experiment, it appears that Vietnamese learners had most difficulty with becoming double consonant after compound word ‘ㄱ’ and becoming glottal sound after pleonastic stem-final ‘ㄴ, ㄷ(ㄷ)’ which had little chance of exposure in studies or everyday life as a result of shortage of vocabulary of the stem ‘ㄴ, ㄷ’. Second, it was verified that teaching-learning must be done in detailed environments, as even the relatively easy type of rules, such as becoming glottal sound after obstruent, differ in the actualization of glottalization by environment. Third, becoming glottal sound after obstruent consonant group are most often caused by errors in consonant group pronunciation, which emphasizes on the importance of consonant group education. Fourth, in case of ‘할 수’ which is commonly used in everyday life, becoming double consonant after an adnominal ending form ‘-(으)ㄴ’ actualized 100%, and by doing so, it was confirmed that errors can be reduced, only if high level of difficult rules are used more frequently. Fifth, in the three experiments, learners’ major type of errors was pronouncing words by breaking them down according to the spellings and syllables due to Vietnamese interference; also, errors such as failing to apply glottalization due to failure in pronouncing the leading syllable’s final consonant, and replacing tense sound with aspirated sound while pronouncing, can be found evenly in each type. Sixth, by comparing errors in different types of environments, it was apparent that free articulation composed and produced by learners themselves was an objective investigation that better clarified the results of cognitive experiment than in the recital experiment that required reading the arranged sentences.